



11

1993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3. 11호

(루게 553)



◆◆◆◆◆◆◆◆◆◆ 차 례 ◆◆◆◆◆◆◆◆◆◆

로병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4
연백벌의 노래	6
별과 별이 되받아	7
연백벌 소조원	7
백가지 도술	8
위대한 생애가 시작된곳에서	9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10
진보의 길	10
효자샘	11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 (3)	13
명 언	15
조선의 향로	16
효녀의 마음	17
안해의 얼굴	23
한영철영웅을 불러	24
우리 나이 몇살인가	26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의 생명선이다	27
사랑과 충성	32
로병들이 돌아온다	33

백두온천건설자는 말한다	34
우리 인민반	36
밝은 저녁	37
초소에 효성화 피었네	43
명제해설	44
약 값	45
어머니 모습	46
사랑하는 나의 수도여 (외 1 편)	47
그들의 모습	48
로시인의 열도높은 정신생활을 들여다보게 하는 주옥같은 시편들	49
잠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55
빠스에서	56
승리는 우리의 전통	60
내 시를 쓸 때면	61
주체의 배길	61
사신행차	62
삶에 대한 처방	68
영원한 스승	69
나는 로동자	69
어머니의 편지	70
위원장어머니	71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외 2 편)	77
산촌의 저녁길에	78
고향의 저녁에	78
일곱번째 철갑모	79
길	79

로병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우리 혁명의 1 세, 2 세대인 로병들은 주체의 혁명관, 수령관이 투철하고 당과 수령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는 충신들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조국의 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영웅전사들이다.

우리 로병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혁명전쟁에 참가하여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오늘도 혁명과 건설의 초소들에서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큰 공헌을 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전국로병대회를 계기로 로병들에 대한 커다란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안고 그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우려는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오랜 기간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데서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로혁명가들이며 주체혁명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인 로병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문학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모두가 그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투사들은 잃었던 조국을 찾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면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해방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항일혁명로병들을 형상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항일혁명로병들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칠성관에 올라 압담하기 그지없던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령수,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

장함으로써 혁명전사가 지녀야 할 혁명적수령관의 투철한 모범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복잡다난하고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혁명전사의 가장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 한몸을 내대고 수령님을 결사적으로 보위하는데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된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유명무명의 충직한 혁명전사들, 그 어떤 절해고도에서도 오직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충신의 진형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웃으며 간수령의 전사들의 참신한 전형들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우리의 항일혁명로병들은 일제의 100 만대군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일제는 멸망하고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고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정규무력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는 만주광야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방대한 무력을 상대로 하여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항일선렬들의 투쟁과 생활을 형상한 문학작품의 창작에서도 새로운 성과들을 확대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모두가 항일혁명투사들의 빛나는 생애를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의 원로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해방 후 건당, 건국, 건군 위업을 실현하고 민주주의혁명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수행하는 전과정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작가들은 멀리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빛나는 자욱우에 실천적모범으로 불멸의 위훈을 새겨온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문학작품들에서 그들이 지니고있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추호도 드립없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로병들의 투쟁과 생활을 반영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을 그들의 실천적모범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조국해방전쟁로병들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덤벼든 제국주의연합세력을 반대하는 전례없는 준엄한 전쟁에서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함으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떨치었다.

우리 작가들은 세계전쟁사가 그 류례를 알지 못하는 가렬치절한 싸움의 불바다속에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만 계시면 그 어떤 강적이 달려든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신념화된 혁명적수령관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무비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승리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의 전형적성격들을 형상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창작하는데서 보다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우리의 전쟁로병들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전투에 참가하여 당과 수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전대미문의 폐허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이 땅우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인민의 지향과 리상이 꽃핀 지상락원을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우리 작가들은 전쟁로병들이 벽돌 한장 성한것 없고 한그람의 세멘트와 강재가 그토록 귀중하던 폐허우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한다면 짧은 기간에 전쟁의 피해를 가시여내고 이 땅우에 반드시 부강발전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적신념, 만난을 제힘으로 풀어나가려는 견결한 혁명적의지를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충실성, 헌신성, 대중적 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쟁로병들의 빛나는 전형들을 형상한 사상에술적으로 완벽한 시대의 명작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모든 근로자들이 그 실천적모범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항일투사들과 전쟁로병들은 혁명정세가 긴장해지고 내외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고있는 환경속에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고 당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계속 발전시키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문학작품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받들고 우리 당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전당, 전민, 전군을 충효일심의 결정체로 굳건히 다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완성해나가는데서 로세대혁명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항일로병들과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모범을 형상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그 어떤 혁명의 준엄한 폭풍속에서도 자기의 수령, 자기의 령도자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우리의 혁명전통에서 핵을 이루는 일심단결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신념화되고 량심화되고 도덕화, 생활화된 충실성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은 우리 로병들의 한결같은 모습이다.

로병들의 이러한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치는데서 중요한것은 로병들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하며 그들의 세계관형성과정속에서 잘 그려야 한다. 그래야 로병들의 성격적특징을 옹골케 밝혀낼수 있고 인간적품도도 선명하고 풍만하게 보여줄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런 로병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를 참신하게 형상하는것과 함께 로병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따라배워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혁명의 3세, 4세들의 모습도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로병들은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것을 우리 세대에 맡겨진 역사적과제로 간주하고 조국통일의 성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항일로병들과 전쟁로병들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하는데도 옹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처럼 혁명가에게 있어서 육체적로쇠는 있어도 사상적로쇠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생활신조로 삼고 로당익장의 기백으로 어제날의 위훈을 오늘의 벽찬 현실에서 더욱 빛내이며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 로병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한 훌륭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하여 우리 문학작품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혁명의 3세, 4세들이 로병들의 모범을 본받아 억센 혁명가로 준비하고 자라나게 함으로써 생활의 교과서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어야 할것이다.

연백벌의 노래

리종덕

가도가도 끝없는 이삭의 바다
참으로 너의 한끝은
해주만의 바다기슭이더냐
연연수백리 펼쳐진 연백벌

너의 들바람 마시며 자란 내
네 안은 행복 노래하고싶어
한달음에 달려오니
벌이여, 연백벌이여
이 가슴속 걱정을 네가 다 터치누나

오, 어버이수령님 모시였던 감격
금빛이삭의 물결로 터치며
바다처럼 설레이는
연백벌 연백벌

네가 안은
사랑의 시작은 어데서부터더냐
분계선이 장벽으로 막혔던 그날에도
구암, 레성강의 생명수로
마르고 탄 네 가슴을 적시여주신
뜨거운 전설을 새겨안은 대지

은혜로운 그 품에 안아주신 그날부터
이 벌에 찍으신 사랑의 자욱자욱
은행나무들은 뿌리를 내려
력사의 그날들을 년륜으로 새겨안고
끝없이 설레며 거목으로 자라는데

만풍년든 이 가을날 오시여

이 벌의 끝에서 끝까지 밟으시며
이 세상 가장 큰 영광을 안겨주시니
지구우에 금시 새로 솟아난듯
기쁨과 환희로 들먹이는 대지여

친애하는 그이의 위대한 사랑으로
레성강물이 통채로 흘러들고
대동강단물이 굽이쳐오니
이제는 기름진 롱마처럼
네굽을 든 네 아니냐

수령님 걸음걸음 걸으시며
정말 욕심이 나는 벌이라 하실 때
연백벌이여
너는 진정 사랑과 행복에 겨워
하늘에 닿도록 나래치지 않았더냐

연백벌 연백벌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온 세상이 눈부시도록
금빛이삭으로 새겨안은
복받은 대지여

오, 위대한 수령님의 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품에
그 한끝을 둔 이 땅
천만년 마르지 않을
대동강, 레성강 물길과 함께
만풍년의 네 노래 영원하리라

벌과 벌이 되받아

오필천

벌과 벌이 되받아 울려주었네
수령님 여기가 어디라고
팔십고령에 찾아오셨는가
이제는 먼길 걷지 마시라고
간절히 올린 진정 한마디

벌과 벌이 되받아 넘겨주었네
고맙소, 고맙다고
나는 쉬며는 더 늙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시는
수령님 옷섶에 눈물적시며 하던
녀성관리위원장의 그 말 한마디

벌과 벌이 되받아 합창했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받들어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께 풍년기쁨 드리겠다고
철석의 신념을 아뢰인

아 연백벌의 그 말 한마디
재령벌이 받아 외웠네
숙천벌이 받아 웨쳤네
수령님께 풍년기쁨만을 드리겠다고
풍년기쁨만을 드리겠다고

연백벌 소조원

유철수

수령님께 기쁨드린 눈빛들인가
벌을 향한 저기 농장마을 불빛들은
행복의 꿈나락 담아시고 흐르는데
소조원 그대만은 생각도 깊이
연백의 두렁길을 걷고걷는다

한걸음 옮기면
수령님 그리도 만족하시어
해빛처럼 지으시던 그 미소
달빛어린 벼이삭에 어려오고

또 한걸음 옮기면
농사중에 제일 잘된 농사라고
그리도 치하하시던 수령님 그 음성
설레이는 벼바다가 전해주는데

아, 걷고걷는다
만풍년의 자랑으로
수령님께 드린 기쁨 영광으로 지냈건만
농민들이 흘린 땀을 벼알에서 보신듯

기계화를 또다시 당부하신
수령님 그 모습 어려와

그래서구나
온 농장이 수령님께 기쁨드린
행복의 꿈나락에 묻혀있건만
수령님 남기신 그 당부 가슴에 불타
걷고 또 걷는 소조원이여

그대 새겨가는 자욱에서
종합적기계화의 발동소리
연백의 저 밤하늘에 울리고
농촌테제 휘황한 빛발
저 은하수에 비껴

아, 소조원은 말없이 걷고걷는다
아버이수령님 다녀가신
넓으나넓은 연백벌에
세세년년 만풍년을 부르며...

백가지 도술

6. 《독안에 든 쥐》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신 유격대의 한 부대가 어느 부락에 들어 류숙할 때였다. 왜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수백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부락을 포위하기 시작하였다. 《토벌대》대장 다무라는 수량상 우세를 믿고 원거리포위를 한후 점점 마을로 조여들기 시작하였다.

왜놈들은 이번에는야말로 유격대를 소탕한다고 의기양양해서 마을쪽으로 다가들고있었다.

이때였다.

팡주리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아 인 두 녀인이 마을쪽에서 걸어나오더니 산으로 오르는것이였다.

(김일성유격대한테 음식을 가져가는데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한 다무라는 저도 모르게 권총에 손이 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다무라는 자신을 자제하고 고쳐 생각하였다.

(옳지, 저 녀자들의 뒤를 감쪽같이 따라가 포위하면 유격대는 울데갈데없이 독안에 든 쥐신세다. 으흐흐흐.)

속으로 책재를 울리며 다무라는 녀인들이 올라가는 산을 향하여 포위환을 펴고 조여들었다.

녀인들은 왜놈들보다 한발 앞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다무라는 망원경으로 녀인들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녀인들은 산으로 오르더니 갑자기 안개에 휩싸였다가 홀연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영?》

다무라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다시 망원경을 눈에 가져다댔다.

녀인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에 등골이 쨍늘해졌다.

이때 《팡! 팡! ...》하고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내리쬐는 요란한 총성이 골안을 뒤흔들었다.

《빨리 빨리 올라가라! 저쪽이다!》

다무라는 집에 질리면서도 입으로는 호통을 쳤다.

잔뜩 겁을 먹은 졸병들이 엉기엉기 산으로 계바라오르는데 총성이 딱 멎더니 이번에는 뜻밖에도 오른쪽 옆고지에서 맹사격이 퍼부어졌다.

《아이쿠!-》

《아이쿠!-》

여기저기서 놈들은 삼대 쓰러지듯 무리로 나가 빠져드러졌다.

《이쪽 고지다!》

다무라는 황황히 총소리 나는쪽으로 군대를 돌리는데 그렇게도 우박치듯 쏟아붓던 총성이 또 일제히 그치고 이번에는 왼쪽 옆고지에서 맹사격이 퍼부어졌다.

《영? 이게 대관절 어떻게 된 판이야?》

왜병들은 가뜩이나 겁이 나던판에 유격대원들이 눈깜짝할사이에 이 고지에서 저 고지로 왔다갔다하는것을 보니 한발자국도 옮겨디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놈들이 갈광질광하는데 총성이 멎더니 또 다른 고지에서 맹사격이 퍼부어졌다.

망원경을 이쪽저쪽에 대고 살피던 다무라는 또 한번 흠칠 놀랐다.

산에서 구름이 몽게몽게 피여오르는데 그 구름이 옮겨가는 산마다에서 총성이 울리는것이였다.

《유격대가 구름을 타고 다니누나.》

다무라는 이렇게 종얼거리며 이번엔 구름이 움직이는쪽을 자세히 살피었다.

조금 있더니 저쪽 산에서 구름이 몽게몽게 피여올라 다른 산으로 옮겨가는것이였다.

《저 구름을 향해 쏘라! 유격대가 구름을 타고간다!-》

다무라가 소리를 지르자 왜병들은 구름을 향해 미친듯이 총을 쏘아댔다.

한동안 쏘아대니 탄알은 한알도 남지 않았다. 총알이 떨어진 왜놈들은 떠가는 구름만 멍하니 쳐다보며 눈을 꺼벅거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놈들이 있는 바로 뒤산에서 《팡!-》하고 총성이 울리더니 총알이 비발치듯 날아오기 시작했다.

이건 또 웬일인가?

《아이쿠! 아이쿠!》 왜놈들은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무리로 쓰러졌다.

알고보니 그 구름우엔 유격대가 한사람도 타고있지 않았던것이다.

유격대의 총알은 뒤산에서만이 아니라 앞산과 옆산에서도 날아왔다.

지어는 하늘과 땅에서도 날아오는것 같았다.

사면팔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니 오히려 다무라 《토벌대》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고말았다.

왜놈들은 움짱달짝 못하고 손발도 변변히 놀려
보지 못한채 몽땅 쓰러지고말았다.

《어이구, 등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일성** 장군
유격대를 무슨 수로 당하나?》

《축지법을 쓰는 유격대를 잡겠다구? 어이구 막
시사...》

놈들은 죽어자빠지면서도 공포에 났을 잃고 이
렇게 중얼거렸다,

구름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안타고 다니기도 하
면서 혼란을 주는 **김일성** 장군님 유격대를 왜놈들은
그후 감히 맞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놈들을 유인한 두 녀인은 바로 장군님께서 보
내신 유격대원들이었다.

그러니 놈들은 장군님의 유인매복전술에 걸려
들었던것이다.

위대한 생애가 시작된곳에서

김응하

하늘을 가리운
이깔이며 잣나무 우듬지사이로
눈부신 해빛이 쏟아진다
눈덮인 고향집 트랙에

백두산의 이깔로 다듬어 세운
소박한 귀틀집앞에 서니
유구한 력사의 시원에 선듯
흘러온 세기가 한눈에 안겨오누나

여기서 위대한 심장은 높이 고동치고
인민을 위한 고귀한 생애가 시작되었다

그이의 꾸밈없는 말솜은
진실과 진정으로
우리의 심장과 곧바로 통하고
세상의 리치를 쉽게 깨우쳐준다

그이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 사랑은
집집의 문턱을 가림없이 넘어선다

그이는 가식과 허위를
누구보다 미워하시고
인민에 대한
성실한 복무만을 바라신다

시간은 쉬임없이 흐르건만
나는 걸음을 땔수 없구나
그이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며

여기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싶다

공명과 거짓의 흐린 물에
내 량심을 흐리게 한적 없는가
유혹의 재가루에
내 마음 더럽힌적 없는가

그러면 맑은 소백수의 물소리
마음에 앉은 티를 깨끗이 씻어주고
순결한 눈꽃들은 청신한 기운을
가슴 한가득 채워주누나

력사의 위업을 이룩하고도
영원한 소박함을 지니고
순결의 절정우에 빛나는
위대한 생애가 시작된곳이어

여기서는 때묻지 않은 량심의 고백을
스스럼없이 아뢰일수 있어라
곡절많은 한생을 눈물로 씻고
백발에도 재생의 첫걸음 땔수 있어라

아 깨끗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집 트랙을 나서니
머리우에는 세월의 먼지가 덮을수 없는
빛나는 정일봉 높이 솟아있고

바라보니 아득한 산발넘어
굽이굽이
내 가야 할 먼길에
해빛이 눈부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디네스 브라사드 슈레타

당신은
민족의 별로 높이 솟아
조선인민에게 끝없는 행복과
밝은 미래를 펼쳐주시여라

당신은
주체의 상상봉에 높이 서시여
인민이 사는곳 그 어디라 없이
언제나 그들속에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훈으로 고무하시여라

당신은
낮에 밤을 이어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만천하를 다스리며
광명한 미래에로
조선을 이끌어가시여라

당신의 비범한 예지속에
조선의 새 모습 비껴있고
당신께서 바치시는 로고에
세인들 경탄 금치 못하고있나니

오, **김정일**동지!
당신의 탄생일 맞는 이 아침
새들도 지저귀며 이날을 축복하고
꽃들도 향기뿌려 이날을 축복하네

뜻깊은 이날
내 삼가 축원을 올리노라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행복하시옵기를
영원한 청춘으로 계시옵기를

(필자는 네 팔작가임)

진보의 길

꼬쵸 키크보

인류는 고대했노라
온갖 예측의 력사 끝장내고
사람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워줄
령도자의 손길을 그리었노라

아침의 나라 조선에
그 손길 있었노라
예속도 가난도 모르는 나라
사랑과 평등 자유와 행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라 조선에
그 손길 있었노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
참된 단결의 상징
향도의 태양
그이는 예지의 빛발로
진보와 정의의 세계로 가는 길
해빛처럼 환히 밝혀주어라

(필자는 토고철학자협회 위원장임)

효자샘

분계연선이 가까운 어느 한 지방에 가면 유수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다.

원래 이곳에는 목 추길 물 한모금 샘솟는데가 없어 무수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고장에 맑은 물이 솟구쳐오른 때로부터 여기를 유수골이라고 하였다. 그 샘물을 효자샘이라고 부르고있으니 여기에는 어떤 전설이 전해오고있는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0 년 여름이었다.

일군들은 락동강도하작전을 앞두고 충주남쪽 수안보에까지 나가시여 전선사령부의 사업을 지도하고 돌아오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평양으로 향하고있었다.

중부조선의 어느 한 산악지대를 달리고있던 한 낮경에 떡갈나무, 가독나무들이 뽀뽀이 들어찬 밋 밋한 골짜기에 들어섰다.

하늘중천에 뜬 태양은 포연서린 산하에 뜨거운 별을 내리쬠고있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된것이였다.

그들은 산기슭, 느리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지어 주고있는 잔디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일군들과 호위병들은 그곳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식사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 드릴 음식이라고는 빵 몇개와 삶은 감자뿐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변변치 못한 음식을 드리게 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하여 차마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식사를 책임진 호위대원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더 아팠다.

그러나 식생활을 언제나 검소하게 하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만족스럽게 받으시였다.

《동무도 여기서 같이 식사를 하지요.》

수령님께서는 그를 자기결로 부르시였다.

《예, 저도 인차 하겠습시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원은 물통을 들고 어디에 물이 있을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였다.

그러다가 물이 있음직한 숲이 우거진 어느 한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거기엔 앙상한 돌맹이들이 드러난 개천 자리가 있을뿐 물이 없었다.

그 대원은 점점 당황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땅을 파보았으나 먼지만 풀썩풀썩 일뿐 물이 나오는곳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그는 언젠가 이 근방에 물이 없다고 하여 무수골이라고 부르는 고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가 그 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런곳에 자리를 잡았을가?)

그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온몸을 엄습해오는 죄책감으로 하여 손발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이 더운날 현지 지도를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샘물 한고뿌 퍼드릴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는 도중식사준비를 간신히 하지 못하고 떠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그의 고향 갈매산에는 물도 많거니와 우산처럼 생긴 병풍이라는 산나물이 있어 그것을 꺾어먹으면 갈증을 면할수 있는데 여기 무수골에는 그것마저 없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종단 말인가.)

그는 안타까웠다. 넓은일나무들은 뜨거운 해열에 시들은 잎사귀들을 늘어뜨리고 이따금 불어오는 더운 바람을 피하듯 이리흔들 저리흔들 가지를 흔들고있었다.

그가 물을 찾지 못하자 일군들과 다른 호위병들도 모두 떨쳐나 이곳저곳 뛰여다니며 물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위대한 수령님께 어떻게 마른 음식만 대접한단 말인가.)

그 대원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아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전사의 자세에 아직 빈틈이 많다는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터벅터벅 골짜기를 내려오는데 문득 최고사령부를 떠날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로부터 받은 부탁이 생각났다.

그날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전선길을 떠나게 된 그가 길 떠날 준비를 서두르다가 잠시 쉽터에 앉아 미흡한데가 없는가를 따져보는데 뒤에서 가벼운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뒤를 돌아보던 대원은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나오신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가는 그에게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선현지지도의 기념으로 오던 길에 술방울을 하나 따오라고 하시었다.

그것도 꼭 피지 않은 큰 술방울을 하나 따오라고 하시었다.

(왜 술방울을 따오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더듬는 그에게는 그 술방울이 불비속을 헤치시며 전선을 현지도하시느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것만 같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나무 숲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꿀짜기랑옆으로 드문드문 여러해 자란 소나무들이 서있는데 그 나무들에는 잔술방울들만 가득 매달려있었다.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며 소나무란 소나무는 다 살펴보았으나 어떤것은 애솔모기가 되어 아직 술방울이 달리지 않았으며 큰나무들에는 입을 벌린 꺼칠한 술방울만이 달려있고 싱싱하고 잘 생긴 술방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부탁마저 들어드리지 못하게 될것 같아 조바심이 생겨났다.

그는 꿀짜기를 다시 살살이 훑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좀전에 지나왔던 바로 그 음침한곳에 그리 크지 않은 소나무가 허리를 구부리고 서있는데 바로 그 가지끝에 유난히도 크고 싱싱한 술방울이 매달려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야! 똥구나.》

그 대원은 혼자소리를 지르며 그곳으로 달려갔다.

파아랴게 윤기가 도는 큰 술방울이 가지끝에 달려있는데 내뻗 송진이 햇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거리고있었다.

원래 나무타기에서는 자기이상 없다고 여기던 그는 얼른 나무가지를 잡고 소나무꼭대기로 기여올라갔다.

그리고는 한손에 나무가지 하나를 꺾어들고 그것으로 가지끝에서 한들거리는 큰 술방울을 때리었다.

세번만에 술방울을 명중시켜 땅우에 떨어뜨리었다.

그는 술방울이 어디쯤 떨어졌는가를 가늠해보고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왔다.

술방울은 풀덤불속에 떨어졌는데 그가 덤불을 헤치고 술방울을 주으려는 순간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었다.

뿔랑-쫘르륵- 물떨어지는 소리같기도 하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어들어가는 소리같기도 한 이상스러운 소리였다.

대원은 그게 무슨 소리가 하여 다시 귀를 기울이었으나 그 소리는 간곳없이 사라지고 썩르륵거리는 풀벌레소리와 멋없이 불어대는 바람소리만이 들려왔다.

(참 이상한 일도 있군.)

그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여 다시 술방울을 집어들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뿔랑-쫘르륵 하고 또다시 물소리가 들려왔다.

먼곳에서 나는 소리같기도 하고 바로 발밑에서 나는 소리같기도 하였다.

(혹시 이밑에 물이 있는것이 아닐까?)

그는 무작정 풀덤불을 헤치고 그밑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술방울이 떨어져있는 바로 그밑에서 구들돌처럼 납작한 돌이 나졌는데 그 돌을 들어보니 맑은 물이 가득 고여있는 샘물이 나타나는것이 아니겠는가.

《샘물이다! 샘물!》

대원은 너무도 희한하고 기뻐 소리높이 환성을 질렀다.

그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보니 정말 샘물이 흰모래를 솟구쳐올리며 끝없이 솟아나고있었다.

그 물은 어찌나 맑은지 그들의 얼굴을 거울처럼 비쳐주고있었다.

그리하여 이날 그들은 맑고 시원한 물을 정히 떠서 어버이수령님께 올릴수 있었다.

샘물을 찾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듣고난 일꾼들과 호위병들은 모두 감탄하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지극한 효성이 이곳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샘물을 효자샘이라고 하자고 하였다.

그때부터 이 무수골이라고 부르던 고장에 효자샘이 생기고 꿀짜기이름을 유수골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효자샘을 가운데 놓고 한채 두채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유수골이라는 큰 마을이 생겨났는데 마을북판에는 지금도 효자샘이 흰모래를 뿜뿜 솟구쳐올리며 끝없이 솟아올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고 한다.

전화의 나날 전선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그 대원은 약속한대로 유수골에서 탄 술방울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드리였는데 그이께서는 술방울을 받으시고 그저 밝게 웃으시기만 하였다고 한다.

《가사는 시문학의 한 분야로서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예술적풍격을 완벽하게 갖추고있어야 한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준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김 정 일

위대한 업적

가사혁명의 불길속에서 (3)

몸소 종자도 잡아주시며

1981년 가을 어느날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관계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불러주시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게 된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이께로 달려갔다.

홍성거리던 거리도 조용해지고 밝게 웃던 창가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 사람들모두가 깊이 잠든 밤이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온 한 로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었다.

참으로 뜻깊은 화폭이었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북받치는 걱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북만원정의 간고한 길을 헤쳐온 투사가 오늘은 우리 당을 따라 또다시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간다고 감회깊게 말씀하시는데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 창작가들과 일군들의 뇌리에는 언뜻 시상과 곡상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한 일군이 창작적흥분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모두의 심정을 담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그이께서 주신 말씀대로 노래를 하나 창작하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대견하신 눈길로 창작가들을 둘러보시며 그 항일투사에 대한 이야기도 더 들려주시고 이제 써야 할 노래에 대해서도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가사의 제목까지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라고 친히 달아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가사에서는 혁명의 계승성문제를 옹계 취급

해야 한다고 하시며 구체적인 창작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순간 시인은 바로 이것 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탄성을 올렸다.

혁명의 계승성문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그대로 6개의 절에 나누어 시인은 가사를 써나갔다.

얼마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새로 창작한 가요를 무대에 올리였다.

공연무대를 통하여 노래를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가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가 잘되었다고 치하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록음하여 올린 이 노래를 여러번 거듭하여 들으시고 다시금 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형상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또다시 밝혀주시었다.

그러던 1982년 5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새로 형상한 합창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를 다시 들으시고 가사를 고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3절 가사는 직접 고쳐주기까지 하시었다.

그리하여 미흡했던 노래의 3절 가사는 다음과 같이 명가사로 완성되었다.

우리 수령님 찾아준 조국에
우리 당중앙 펼쳐준 락원에
투쟁속에 세대는 바뀌어도
성스러운 붉은기 지켜가네
수령님을 따라서 천만리
우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이 부르 게 될 한국한국의 노래를 이렇듯 친히 종자를 잡아 주시고 달과 해를 두고 한구절 한구절 탐구하시고

사색하시며 다듬어주시어 명가사, 명곡으로 완성하여 주시고계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들의 현명한 지도와 자애로운 은정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도 이 세상에 태어날수 있었다.

198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문학작품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따뜻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고 그들의 대답을 주의깊게 들으신 다음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참다운 혁명적신념이란 얻어놓아도 쇠소리가 나고 뒤집어놓아도 쇠소리가 나며 행복한 날에도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오직 한길을 가는 인간의 억센 마음이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한번 다진 맹세,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 순간의 동요도 없이 걸어나가는 사람을 두고 혁명적신념이 있는 인간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그대로 가사에 옮기면 훌륭한 작품이 될수 있다는 높은 창작적흥분을 가지고 시인은 창작을 시작하였다.

시인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잡아주신 종자를 그대로 심어 가사의 중간부분들을 1절에서는 《한번 다진 전사의 맹세 목숨보다 귀중해》로, 2절에서는 《한번 찾은 혁명의 진리 천금보다 귀중해》로, 3절에서는 《한번 택한 혁명의 길을 순간인들 멈추랴》라고 표현하면서 가사를 전개하여나갔다.

얼마후 창작가들은 새로 완성한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올리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를 심중히 들으시고 구체적인 형상방도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 주시였다.

며칠후 새로 형상한 노래를 들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창작가들의 수고를 깊이 헤아려 노래를 몇번이고 다시 들어보시고 가사도 구절구절 따져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신념은 하나》의 선률은 고착시키되 가사는 좀 세련시켜야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구절로 된 《의탁하리》라는 표현대신에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라고 하는것이 더 뜻이 깊고 좋을것이라고 깨우쳐주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튿날 또다시 이 노래를 지도해주시면서 합창곡 《우리의 신념은 하나》가 아주 잘되었다고, 명곡이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15번이나 반복하여 들었는데 웅장하고 무게있게 잘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혁명을 끝까지 하려면 그 어떤 시련과 풍파도 이겨낼수 있는 혁명적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인민들이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런 의미로 보아서도 가사를 《일편단심 우리 당과 자기 운명 함께 하리》로 고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들도 창작지도일군들도 같은 노래를 연거푸 몇번만 들어도 지루하기 마련인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념의 노래를 안겨주시기 위하여 한곡의 노래를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반복하여 들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계시니 진정 그이께서 명가사, 명곡 창작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에 대해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후 노래형상이 더욱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의 가사가 잘되었다고 하시며 1, 2절 가사도 좋지만 3절 가사가 더 좋다고, 3절 가사는 이 노래의 핵으로 볼수 있다고 하시였다. 특히 《영광의 날엔 이 길을 가고 준엄한 날엔 탄 길을 가랴》라는 대목이 좋드시며 그 가사에는 혁명의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 《우리의 신념은 하나》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널리 부르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1982년 4월 어느날이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을 부르시어 창작과 예술창조사업에서 지켜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가사를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아주 잘 썼다고 높이 평가하여 주시면서 특히 1절에서 《우리 서로 뜻을 같이하고》라는 표현은 깊은 사상이 담긴 구절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잠시 동안을 두시고 깊은 감회에 잠기셨다가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해방직후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나왔고 1970년대에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가 나왔고 1980

년대에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나왔다고 만족하시여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땅을 따라 천만리》도 그 작가가 썼다고 치하를 주시면서 그 작가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몸소 가사의 종자를 잡아주시고 초보적인 가사 문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작의 걸음걸음을 사랑어린 손길로 이끌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이께서는 가사를 잘 쓰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드렸을 때에도 엄하게 꾸짖을 대신 손수 붓을 대시

여 구절구절을 고쳐주시더니 작품이 성과작으로 완성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오늘에는 그 모든 성과를 작가에게 돌려주시며 한없는 영광을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서 수많은 명가사들이 창작되어 개화만발하는 우리의 혁명적시문학을 찬란히 꽃피우고있으며 그이의 위대한 손길 따라 우리 인민은 유일사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어머니가 순수한 모성애만을 가지고있었다면 나는 이처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를 회고하지 못할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기울인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그것은 자식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전에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진실하고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결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인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부모자식들사이에 흐르는 사랑도 맹목적인것이면 그것은 공고한 사랑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랑을 관통하는 정신이 참답고 고결해야 그 사랑은 영원하고 성스러운것으로 될수 있다. 망국의 그 시대에 나와 어머니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성을 즐기치게 관통한 녀은 애국이였다. 바로 그 애국을 위해 어머니는 모성으로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할수 있는 육친적권리마저 희생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 중에서

조선의 항로

고호길

북으로 한 끝은
항구인양 대륙에 닿아있고
남으로는 온 땅이
파도사나운 세바다에 등실 떠있구나
금수강산이 물결우에 비졌구나

조선이여
너는 정녕 원정길 떠난 함선인가
출항의 고동 은은히 울리며
눈부신 아침해살 퍼져오르는
수평선 멀리로 달려가는듯...

하늘은 청청 바람은 선들
광활한 바다길은 장쾌하여도
백성의 피눈물로 파도높던 이 바다
인민의 원한으로 폭풍일던 이 배길
지나온 굽이굽이엔 곡절도 많아

먹장처럼 어두운 봉건의 난바다우에
오랜 세월 정처없이 표류하던 너
너는 수난의 파도속에 부대끼던
불우한 망국의 작은 쪽배였건만

희망의 등대-백두의 화불따라
투쟁의 항로로 키를 잡은 그때부터
그때부터 조선이여 너는
조국광복회 10대강령 뜻으로 달고
피바다를 넘어온 혁명의 함선!...

건국의 새 봄에 씨뿌려 가꾼
행복의 꽃동산을 지키던 나날
너 그 날엔
불사조의 나라처럼 공화국이 휘날리며
불바다를 헤쳐온 영웅의 함선!...

가누나 오늘은 풍랑을 뚫고넘어
래일로 희망찬 미래에로
온 나라-거창한 혁명의 함선우에
슬기로운 민족의 대군을 싣고

가없이 펼쳐진 갑판우에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쌓으며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군악을 울리며
전세계 자주화의 노래를 날리며
달리누나 백전백승 주체의 함선!...

아 당중앙위원회 사령탑에서
망망대해를 굽어보시며
옷자락을 날리시는 **김정일**동지
만리해안의 쌍안경드시고
한손 높이 들어 가리키시는 길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의 신념이며 의지인
제국주의 반동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혁명력량 단결의 강령이며 추동력인
《평양선언》의 기치 높이 패속으로 달리누나!

세계만방의 크고작은 모든 배
부르고 이끌고 따라세우며
자주의 끈은 길 활짝 열어주고
창조의 넓은 길 환히 밝혀주며
사회주의함대의 진두에 선 우리 함

혁명과 건설의 배길을 막아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암초를 짓부시며
전속으로 만속으로 창파를 헤치누나!
그 이름 빛나는 주체사회주의호
공산주의 향하여 침로 곧바로!...

위대하여라! 장엄하여라!
마스트우에 노을로 타오르는
주체의 붉은 화불
그 화불로 동방에서 지구의 한끝까지
온 누리를 붉게붉게 물들이며

아아! 인류를 부르는 배고동높이
찬란한 공산주의태양이 눈부신
인간만세의 기슭으로 달리누나!
나의 조선이여!
세계혁명의 존엄높은 기함이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합니다.》

김 정 일

실화문학

효녀의 마음

리수덕

조상대대로 우리 인민은 《효자》, 《효녀》, 《효성》이란 낱말들을 흔히 써왔다.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수 있는 그 말들의 사전적의미는 극히 단순하며 명백하다.

하지만 그 말마디들이 오늘의 우리 시대에서처럼 깊은 뜻과 넓은 폭을 가지고 그렇듯 숭엄하고 아름답게 울려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간의 친혈육관계로 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사이의 관계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한 친형제의 관계로 맺어져 온 사회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가 펼쳐놓은 새로운 인간세계, 새로운 인정세계의 참모습의 일 단이기도 하다.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인생의 은인으로, 자애로운 아버지로 진심을 다해 모시고 따르며 효성을 바치는것이 미덕중의 미덕으로 되고있는 이 땅우에는 날에날마다 얼마나 많고많은 충신, 효자, 효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활짝 꽃피어나 그윽한 향기를 떨치는것인가.

여기 서해기슭의 한 평범한 녀성인 남포제련련합기업소 음료직장 직장장인 오의빈에 대한 이야기도 온 나라 인민들이 대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랑찬 우리 시대가 꽃피운 지극한 효성에 대한 뜻이 이야기들속의 그 하나로 된다.

1. 진귀한 뿌리

우리 나라 유색금속기지의 하나인 남포제련련합기업소가 자리잡은 항구구역에서 평양쪽으로 시원히 뻗은 도로를 따라 시오리쯤 나오느라하면 나지막한 등성이에 오봇이 앉은 신흥마을이 나진다.

큰길을 저만치 앞에 두고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선 신흥마을은 별로 풍치를 돋궈줄만한 산이나 강줄기도 없고 그렇다고 빼여지게 이채를 떨만한 그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이 있는것도 아니여서 도시를 낀 농촌지대라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수 있는 범상한 마을이다.

여기서 오의빈이 평범한 공민으로 살고있다.

대체로 사람들은 한동네에서 어느 집을 일컬을 때 그 집 세대주나 아이의 이름을 앞에 덧붙이는것이 일쑤지만 마을의 이웃들은 그의 집을 가리켜 《꽃집》이라고 즐겨 부른다.

한것은 그의 집안팎에는 1년 열두달치고 어느 하루도 꽃이 지는 날이 없기때문이다.

봄, 여름, 늦가을까지 그의 집주변에는 갖가지 꽃들이 철따라 피어나 향기를 풍기고 겨울엔 겨울대로 그가 집결에 움막으로 소박하게 만든 20여평방의 온실에서 진달래, 은방울꽃, 국화, 다리아, 튤립, 수국... 등이 제나름으로 다달이 피난다.

그는 그 술한 꽃으로 4월과 2월의 명절, 설명절때마다 정성답아 꽃바구니를 만들곤한다.

그가 것처럼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취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것이였다.

아버지 오룡섭로인은 해방후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 때는 더 말할것 없고 지날날 소작살이로 쪼게 가난한 살림을 하던 그날에조차 꽃과 약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있었다.

오의빈의 집에는 가보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오랜 세월 정히 가꾸오는 약초가 있었다.

진귀한 이 약초에는 화초와 약초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남다른 취미와 함께 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었다.

1947년 초겨울 첫눈이 내리던 어느날이였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분여받은 땅에서 한해 농사를 잘 지어서 다수확모범농민이 된 자랑을 안고 묘향산기슭으로 농민휴양을 갔던 오룡섭로인은 무엇인가 무거운것을 싸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야! 우리 아버지 맛있는거 많이 사오셨다.》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 딸은 힘겹게 받아안은 집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의 무게를 느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실망의 눈물로 변했다.

짐을 헤쳐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덧입고 갔던 두루마기에 싼 부식토와 무슨 약초뿌리였던것이다.

《아버지 거짓말쟁이야 씨, 꽃감이랑 말논깎사탕이랑 사다주겠다구 하구선...》

맥을 놓고 폭삭 방바닥에 퍼더버리고 앉아 우는 어린 딸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던 어머니가 남편을 민망스럽게 건너다보며 한마디 덧창을 놓았다.

《며칠전부터 먼데서 기적소리만 나도 동구박까지 아버지 마중을 나가군했는데 저애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수, 애생각은 꼬물만치도 없이 이건 무슨 보물단지라구 옷까지 훑투성일 만들면서… 쯤쯤.》

어머니가 허까지 차며 역성을 드는바람에 어린것은 더욱더 서럽게 울었다.

그런데 여느때같으면 울컥 성을 내며 툭 그치라고 채찍같은 호령을 내렸을 아버지가 이날만은 껍인자하고 관대했다.

아버지는 어린것에게 이제 소비조합상점에 가서 사랑, 파자도 듬뿍 사주고 고운 색고무신도 사주겠다고 일린 다음 떠엄떠엄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 이번에 장군님 덕분에 휴양을 가서 난생처음 호강을 했소구려. 해방전야야 우리 9 형제에 머느리 넷, 15명 대식술이 단칸방에 오구구 모여살면서 밤마다 잠잘 때는 어떻게 했댔소. 다리들을 건사하기가 배좁아 방 한복판을 가로질러 굽직한 바줄을 서너뿔 높이로 띄워 매놓은데다 주런이 발들을 걸치고 자던 우리가 아니요.

이젠 땅을 받고 집들을 새로 짓고 저마끔 세간을 내서 복락을 누리는데다가 이번에 휴양까지 가게 되니 글썄… 꾸짖힌 식탁을 마주해도 눈물이 절로 나구, 폭신평신했던 침대에 누워두 행복에 겨워서 잠이 제대로 안오더라니. 그저 장군님 은덕에 보답할 생각뿐이었소.》

아버지의 목메이는 말에 안해의 눈곱에도 이슬이 맺혔다.

《참 당신두, 그럼 하루라도 앞당겨 돌아와서 새해 농사차비나 할것이지 그렇게 휴양날자를 꼴까 채우고 돌아올건 뭐요?》 핀잔어린 어머니의 말이였다.

《거기에 또 눈물나는 사연이 있지. 그러잖아두 같이 휴양갔던 저 룡강군 옥도리에 사는 립근상이랑 인츰 되돌아설 작정을 했댔지. 그런데 휴양소 소장이 딱 잘라매더군. 글썄 들어보우. 우리 장군님께서 휴양소에 일단 들어온 사람은 휴양기간을 다 채워서 폭 쉬고 가도록 법도를 세워주셨다는게 아니겠소. 정말 고마운 일이야. 여보, 우리 래년농사두 착실히 지어서 장군님의 이 은덕에 꼭 보답합시다.》

어머니는 눈물고인 눈가에 저고리고름을 가져가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응수하고나서 두루마기에 쓴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당신 이진 뭘하러 가져왔소? 나같은데 그 공력으루 호미, 쇠스랑자루라도 마련해왔겠수다.》

《자 이런, 이게 무엇인지 알기나 하우? 아주 귀한 약초란말이요. 잔뿌리 하나 상할세라 훑채로 떠왔지. 이걸 이제 요긴하게 쓸 때가 있어.》

그후 아버지는 그 약초를 집 뒤뜨락의 안침진곳에 정히 심고 집짐승들이 얼씬하지 못하게 따로 울타리를 둘러쳐놓았다.

그리고는 그 약초를 애기 다루듯하며 한해에 두번씩 흙을 갈아주었다.

호기심이 많은 나 어린 오의빈은 아버지가 그 약초를 극성스럽게 늘 가꾸는것을 볼 때마다 때로는 물도 같이 주고 새 흙도 날라다주면서 무슨 약초인가 어디에 쓰려는가 꼬치꼬치 캐물곤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제 네가 크면 대주겠다고, 그때엔 네 스스로도 알게 될게라고 말하곤했다.

세월은 흘렀다. 처음 심을 때는 10여년생의 어린 약초였던것이 어느덧 10년 가까운 사이에 자기식의 《년륜》을 뿌리에 새기며 실하게 자라났다. 철없던 오의빈도 외태머리를 땀아늘인 어엿한 처녀로 자라 고급중학교과정을 최우등성적으로 마치고 함흥화학공업대학으로 떠나게 되었다.

출발에 앞서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려니 그때도 뒤뜨락에서 약초를 손질하던 아버지가 그를 가까이 불렀다.

《그래 가서 공부할 준비는 다 갖췄느냐?》

《네, 학습장이랑 가서 입을 옷이랑 다…》

《물론 그런 준비 해야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이느니라.》

이렇게 말꼭지를 댔 아버지는 담배쌈지를 꺼내서 굽직하게 한대 말아 불을 붙여물더니 감회어린 어조로 말했다.

《대대로 까막눈으로 낫놓고 기웁자도 모르던 우리 가문에 첫 대학생이 났단 말이지. 정말 개천에서 룡이 났어. 좋은 세상이야. 꿈같은 세월이지. 넌 언제 어디엘 가도 이걸 잊지 말아.》

아버지는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꽃이 활짝 핀 약초의 잎과 줄기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넌 아버지가 이 약초를 떠오던 날을 기억하겠지?》

《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나한테 한가지만은 숙제로 남겨두었어요.》

아버지는 오늘따라 류달리 어른스러워보이는 딸의 모습을 대견히 지켜보다가 말을 이었다.

《내 오늘은 말해주마. 애야, 아버지는 이 약초뿌리를 몇십년이구 정히 잘 가꿔서 어버이수령님께 올리자는거다.》

아버지의 가슴속에 이런 응심깊은 마음이 깃들 어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대학입학통지서를 받고 가뜩이나 흥분된 기분속에 금시 집을 떠나려던 오의빈의 심장은 한없는 걱정으로 고동치었다.

《이웃간에 딱 한그릇을 신세져두 그 고마움을 잊지 말고 갚음을 해야 하는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터발 한뼘기 못가졌던 우리 집에 술한 땅을 거저 주시고 집을 주셨

지, 그뿐이냐? 막바지 인생을 나라의 주인으로, 마울의 첫 로동당원으로 내세워주시었구나.

게다가 오늘은 네가 대학생까지 되었으니 기쁨에 앞서 두어깨가 무거워진다. 너는 어디에 가도 어버이수령님의 이 은덕을 늘쌍 잊지 말고 꼭 갚음을 할 생각을 해라. 그래야 사람구실을 해.》

마음의 탕개를 앙큼하게 조여주는 아버지의 이 훈계속에는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었다.

지금까지 의혹속에 보아온 사연깊은 그 약초의 진귀한 뿌리가 금시 오의빈의 가슴속에도 깊숙이 자리를 잡는것 같았다.

과연 그러했다. 꿈많은 대학시절의 그 보람찬 나날, 그는 해방전 소작농의 딸로 태어나 거지나 다름없이 살던 자신을 행복의 절정우에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효성다할 드림없는 일념을 안고 과학탐구에 심혼을 쏟아부었다.

때로는 깊은 한밤, 졸음에 겨워 기숙사방의 전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불현듯 그가 대학으로 떠나오던 날 아버지가 하던 그 말이 떠올라 자리를 차고 강의실로 달려가 책장을 번지며 새날을 맞기도 했고 또 어떤 날엔 고향집 뒤뜰의 약초가 손에 잡힐듯 꿈속에 방불히 안겨와서 꼭두새벽에 서둘러 깨어나 대학도서관의 층계길을 남먼저 뚫아오르기도 했다.

억센 뿌리는 실한 줄기를 자래우고 실한 줄기는 무성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마련이다.

마침내 오의빈은 대학과정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식료공학기사의 자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1961년 10월에는 26살 처녀의 몸으로 어느 한 나라 수도에서 열린 국제과학토론회에서 자기의 과학연구론문을 발표하여 특별상을 받는 자랑을 떨치게 되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서는 특별비행기까지 띄워주시었고 그가 국제과학토론에 참가하는 기간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다.

베푸시는 은정에 보답할 사이도 없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친어버이사람에 고무된 그는 중앙의 한 연구소에서 과학탐구에 더욱 정열을 기울여나갔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그에게 한장의 두툼한 등기편지가 날아왔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였다.

호기심을 안고 편지의 구절구절을 읽어나가던 그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얼마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남포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는데 체련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용광로직장의 한 작업장에 이르시어 용해공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다가 아직 그 누구도 심상히 여겨온 미세한 가스냄새를 가늠하시고 로동자들의 건강에 대하여 깊이 심려하시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러한 사연과 함께 다음과 같은 당부가 담겨져있었다.

《…의빈아!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근심하신 그 문제를 푸는데 네가 한몫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어떤 연구과제를 맡고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의견결애서는 네가 여기 체련소로 아주 왔으면 한다.》

몇번이고 편지를 곱씹어 읽는 오의빈의 심중은 사뭇 착잡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과학연구조건이 여기보다 더 좋은곳은 있을상싶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새로 꾸리고 시작해야 할 남포체련소로 가서 내가 그 일을 꽤 감당해낼가? 처녀의 몸으로…)

이 순간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모습이 안겨왔다. 역시 그가 대학으로 떠날 때 고향집 뒤마당에서 의미심장한 말로 마음속에 신념의 뿌리를 심어주던 그 모습이였다.

그러자 마치 아버지가 금시 곁에 와서 하는 질책을 받기라도 한듯 일시나마 주저했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못견디게 갈마들었다.

그는 단호한 결심을 품고 자신의 초소를 옮겼다. 당조직에서도 그를 적극 지지해주었던것이다.

그는 우리 로동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유해를 무해로 만들기 위한 물약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동물실험단계에까지 그 물약의 연구성과를 끌어올렸던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용가치를 가지자면 아직 인체 실험결과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있어야 했다.

어차피 인체실험단계를 거쳐야 하겠는데 인명과 관련된다는 이런 신중한 문제를 마음터놓고 의논할 살붙이가 곁에 없는것이 오의빈에게는 더없이 괴롭고 안타까웠다. 그가 한창 물약에 대한 연구를 하던 나날에 아버지와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의 몸가짜이에 있는 혈육이라고는 자식뿐이었는데 아들 철수는 아직 그런 문제를 놓고 의사를통을 하기엔 나이가 너무도 어리였다.

그는 생각을 거듭하던끝에 당세포비서를 찾았다. 유해를 무해로 만드는 그 물약의 인체실험을 자신이 직접 해볼 용단을 내렸던것이다.

세포비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전에 펄쩍 놀라며 만류했다. 어느때엔 당세포에서 주는 의견이나 분공을 그처럼 성근히 받아들이던 그였지만 이번만은 그럴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바재이건 결국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려는 전사로서의 신념, 과학자로서의 자기 신념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자식한테 무슨 효성이 있을수 있으며 신념이 흔들리는 과학자한테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주저하지 말고 실험에 착수하자.)

하여 그는 이튿날부터 자신이 그 약물을 먹기 시작했다. 긴장과 기대, 초조감이 엇갈려 갈마드는

속에 하루가 지나고 닷새, 열흘이 지나고 한달, 45일이 지나갔다. 날마다 작성한 실험수치와 종합된 자료는 그 약물의 완전한 성공을 담보했다.

드디어 그 약물제조업은 국가발명으로 등록되게 되었으며 다량생산된 물약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호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비길데없는 사랑과 은정엔 반드시 값음이 따라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애써온 그의 효성이 낳은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그가 아니었다.

그는 제련소 음료직장의 공정원으로서 해마다 음료생산과제를 넘쳐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서도 늘 약초관리에 깊은 주의를 돌렸다.

그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번에 걸쳐 워낙 연한 성질을 가진 그 약초의 잔뿌리 하나 상할세라 흙을 말끔히 털어내고 잘 손질해주곤하였다.

그가 이 귀중한 약초를 가꾸는데 얼마나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성과 노력을 기울여왔는가 하는것은 본래 식료공학기사인 오의빈동무가 집에도 약초와 꽃을 가꾸어가는 과정에 제약기사, 원예준기사의 자격까지 받게 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극한 효성을 바쳐가는 나날속에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 1982년 봄이 왔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충성과 효성을 다 바쳐가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조국땅 도처의 일터와 가정들마다에서 수없이 속출되고있었다.

이무렵 오의빈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4월 15일을 맞으면서 다감한 생각에 잠기였다.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환갑이나 생일 일흔돐을 맞는 부모에게 정성담아 상을 차려주고 새 옷을 지어드리는것을 미덕으로, 자식된 웅당한 도리로 여겨왔다. 그런데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에 무엇을 지성으로 드릴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그의 뇌리에 문득 번개처럼 빛을 뿜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것은 35년간 그의 가문에서 정성껏 가꾸어온 그 약초에 대한 생각이었다. 그것은 어느덧 근 50년생으로 제법 실하게 자랐던것이다.

그는 지체없이 이 진귀한 약초를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정히 캐어서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렸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오의빈은 뜻밖에도 하나의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면서 오의빈동무는 정성이 지극한 동무라고 과분한 치하와 높은 평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전달받게 된것이였다.

이날 걱정을 누를길 없어 밤늦도록 일터를 떠나지 못하던 그는 저 멀리 평양하늘을 우러러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뇌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배푸신 은정만도 효성으로 갚을길 없는데 이렇게 대를 이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니 언제면 저는 효녀된 도리를 다할수 있겠습니까!

2. 효성의 정화

이 땅우에는 예로부터 효자, 효녀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과 일화들이 전해지고있다.

그가운데는 골병이 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험한 산, 가시길을 헤치며 신비한 약초를 구해왔다는 효동에 대한 전설도 있고, 고역에 치친 아버지를 위해 엄동설한에 신선한 딸기를 한바구니나 따왔다는 착한 효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선량성과 미덕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담아 지나간 세월이 엮어온 못이야기들가운데도 자기를 안아주고 키워주며 삶을 빛내여준 어버이를 위해 수십년간이나 무진애를 쓰며 수백만마리나 되는 참새를 잡아 고르고 고른 연하고 보드라운 털만으로 두채의 이불을 지어드렸다는 그런 일화와 전설은 일찌기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전설아닌 전설이 다름아닌 우리 시대, 노동당시대에 한떨기 효성의 꽃으로 피여났다.

지난해 4월과 2월, 온 조국이 커다란 기쁨과 환희속에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이하던 때였다. 날에날마다 뜻깊은 경사의 날을 창조적로력의 열매로 장식한 놀라운 성과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효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린 지극한 효자, 효녀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전해져 사람들을 격동시키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지성담긴 새털이불에 깃든 오의빈의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류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그 사연을 듣는 사람모두가 다 그러했지만 누구보다 놀란것은 오의빈과 같이 사는 신흥마을 사람들들과 이웃들이였다.

그가 출퇴근할 때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손을 잡으며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를 했다.

《정말 장한 일을 했더구만. 눈으로 볼수 없는게 사람의 가슴속에 묻혀있는 〈보석〉이라더니...》

《이젠 〈꽃집〉이 아니라 〈효녀집〉이라구 해야겠구만.》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건너마을에 사는 배나무집할머니가 찾아왔다. 해방직후 토지개혁때엔 오의빈의 아버지와 함께 토지분여에도 참가했던 그는 한때 다수확농민으로 소문을 냈었다. 이젠 칠순을 넘긴지도 한참이지만 워낙 강단이 있어서 아직 지팡이 신세를 지지 않고도 상점출입까지 하는 그였다.

《배나무집 어머니가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거든 손주애들을 보내시지 않구...》

앞마당 여가리에 약초뿌리와 꽃씨를 심어가던 오의빈이 허리를 펴고 일어나 손에 묻은 흙을 털며 그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러자 배나무집 할머니는 대답할 념을 하지 않고 숏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는 오의빈의 얼굴빛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을 뱉었다.

《철수 에미! 임자 정말 그때 겨울에 있었던 일을 다 잊었나?》

밀도끝도 없이 불쑥 내치는 할머니의 말에 그만 영문을 몰라하던 오의빈이 이윽해서야 문득 떠오르는바가 있어 이렇게 말했다.

《원 어머니두, 별걸 다 가지구? 난 싹 잊은지 벌써 오랜데요뉘.》

《안야, 그걸 어떻게 쉽게 잊을라구? 내 오늘 손주애들한테서 철수 에미가 그동안 소문도 내지 않구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걸 죄다 들었네.》

새털 하나 보태주는는 고사하구 소중한게 짝 들어차있는 임자 가슴에다 못질을 했으니 ... ㅎㅎㅎ ... 나이값두 잇구서 내 비는것이니 용서하게...》

쭈글쭈글 주름진 로인의 랑볼을 타고내리는 진정에 겨운 눈물을 보니 불현듯 오의빈의 코마루도 매와왔다. 어느 겨울의 가슴쓰라렸던 일이 되살아났던것이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세쳤다. 아침녘만해도 바람기 없는 하늘이 함박눈을 어지간히 뿌렸는데 오후엔 그것을 어디론가 말끔히 쓸어갈듯 서풍이 터져서 기승을 부렸던것이다.

휴식의 하루를 마을에서 30 여리 떨어진 양곡리에 가서 참새잡이를 하다가 저물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오의빈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한것은 예정했던대로 참새를 흠썩 잡지 못하는데 있었지만 아까 농장원들이 자신을 곁에 놓고 하던 비난의 목소리가 자꾸 귀전에 울려왔기때문이었다.

《아니, 저 녀인은 직업두 없나? 슬슬 참새잡이 나 다니니 말이야. 팔자두 늘어졌지.》

《뭐 낮에만 잡는줄 알아? 밤에두 새잡일 해.》

《극성스럽기두 하지. 그런데 그걸 다 뭘할가?》

《닭고기, 꿩고기만 맛인줄 알아. 참새고긴 별맛인줄 몰라?》

《그런데 왜 겨울에만 잡을가?》

《캄캄하구만. 겨울 참새고긴 보약맛잡이야!》

저녁무렵이었다. 진종일 마을어구를 감돌며 혼자 새그물을 치고 새물이를 하며 여기저기 싸다니느라 어지간히 얼음덩이가 된 오의빈이 집으로 돌아올 차비를 하고 농장의 어느 작업반실 화구간에 몸을 녹이려고 들렸을 때였다.

그가 소여물이 끓는 가마곁에 앉아 젖은 솜신을 말리고있는데 하루작업총화를 지으려고 작업반실에 모여드는 농장원들이 시답잖은 눈길로 오의빈을 바라보고 방안에 들어가서 저저마다 쥘고 까불며 제나름으로 주절거렸다.

문뜬으로 새어나오는 그런 말을 더 듣기가 괴로와 화구간을 뛰쳐나온 길로 내쳐 걸어오는 그였다.

애써 잊어버리려고 해도 검질기게 갈마드는 생각을 털어버리기라도 할듯 추위도 잊고 다그친 걸음발은 어느덧 신흥마을어구에 이르렀다.

불빛이 환한 자기집 창문을 바라보는 오의빈의 가슴속엔 안도감에 앞서 다른 하나의 근심이 깃들었다. 며칠째 독감으로 앓고있는 아들 철수가 아침에 한사코 따라나서는것을 옥박아 떼놓고갔던 일이 생각났던것이다.

그가 궁금한 마음을 안고 방안에 들어서니 아들은 없고 제법 알뜰히 차려놓은 저녁밥상 한쪽귀에 있는 쪽지글이 그를 반겨주었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았겠어요. 낮에 진료소 의사선생이 검진다니다가 준 약을 먹고 감기는 다 나았으니 걱정마세요. 저는 배나무집 영남이의 수학공부를 도와주러 갔다가 오겠으니 피곤하신텐데 먼저 주무시세요. 참, 밥과 국은 가마안에 덂혀요.》

방안의 훈훈한 온기보다도 자식의 애틋한 정이 진종일 얼었던 몸을 다 녹여주는듯싶었다.

저녁을 먹고나니 피곤이 온몸을 휩쌌다. 당장 자리에 눕고싶었으나 그에겐 아직 할일이 있었다.

그날에 잡은 새의 털을 그날로 뽑지 않으면 새의 살이 굳어져 털이 잘 뽑아지지 않으므로 새털에 손상이 갔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잡은 새의 털을 당일로 처리해 건사하느라 어떤 날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날도 오의빈은 잡아온 참새의 털을 뽑으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왓지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금시 돌멩이라도 뿌리치는듯한 목소리가 방안으로 날아들었다.

《철수 에미 집에 있나?》

오의빈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 방문을 여니 배나무집 할머니가 빌썩 도도한 기상으로 퇴마루에 올라서있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배나무집은 묻는 말엔 대답하지 않고 방안에 무저놓은 참새들을 이윽도록 살펴보고 다짜고짜로 이런 말을 내뱉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구. 임자가 저런 짓을 하고있으니 지금 애가 밖에 나가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아나?》

《우리 애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걱정어린 오의빈의 말에 도리어 짜증이 덧치는 듯 로인은 년장자답지 않게 기염을 올렸다.

《정말 몰라서 묻나? 그렇다면 내 다 말해주지. 요새 동네방네 집들의 추녀를 온통 들쭈시는게 누군지 아나? 오늘두 참새잡일 한다면서 우리집 추녀의 기와장을 형클어놓은게 바로 이 집 철수란 말이

야. 게다가 우리 영남이까지 충동질해가지구 다니면서 못된짓을 하니 가만 있게 됐나?»

이때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영남이가 불쑥 나서며 짜증섞인 말투로 말했다.

《할머니, 정말 창피스레 이럴래요? 철수가 기와장 들춰놓은게 뭐예요? 또 날 충동질한건 뭐구…제 공부도 밀지면서 날 도왔는데… 자. 어서 가자요.》

손자애가 팔을 잡아당기는바람에 약간 비치덕했던 로인은 영남이를 야멸차게 꾸짖고나서 다시 오의빈을 향해 꽃꽂이 접어들며 말했다.

《내 오래동안 같이 살아온 정을 봐서 하는 말이니 잘 들어두게. 참새잡이가 이 집살림에 얼마만큼 리득을 주구 보탬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썩 그만두라구. 엘 생각해서두…》

바로 이때였다. 처마밑 어둠속에 가리워서서 이 말을 듣고있던 철수가 더는 참지 못하고 성큼 나서며 내쫓듯 말했다.

《할머니, 참새 잡아서 리득을 본다는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벌이를 하자구 새를 잡는줄 알아요? 야 이거 정말… 어머니, 좀 속시원히 말을 하랴요.》

철수는 눈물을 삼키며 방안으로 뛰어들더니 어머니의 두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어머니가 말 못하겠다면 내라도 대신 말할래요.》

《철수야!》

어머니는 그저 이렇게 이름만 불렀지만 격앙된 그 세마디 말의 억양, 어조 속에 단호히 제지하는 뜻이 어려있었다. 한동안 말없이 서있는 오의빈의 두눈에 뜨거운 이슬이 고였다가 랑불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 서슬에 배나무집로인은 손자애가 이끄는대로 제집을 향해 돌아갔다.

그밤 오의빈은 밤깊도록 잠 못들고 책상을 마주한채 일기장을 번치고있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써오는 부피가 큰 두권의 이 일기장엔 그가 인생길의 굽이굽이에서 체험하고 느낀 희로애락이 갈피갈피 깃들어있었다.

그에게는 어떤 류다른 기쁨에 접하거나 힘든 일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번져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이 있었다. 그 타성이 이날도 그로 하여금 이 일기장을 펼쳐들게 한것이였다.

한장 두장 넘겨가는 일기장속에서 문득 잊지 못할 그날이 새겨진 페이지가 펼쳐졌다.

1974년 4월 1일 (날씨 맑음)

뜻깊은 4월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직장동무들과 함께 영광의 땅 청산리를 참관했다.

한그루 나무, 풀 한포기, 하나의 논두렁에도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사적이 어려있는 력사의 땅!

정말 이곳 농민들이 말하듯이 청산리 넓은벌의 벼포기는 셀수 있어도 이 땅에 기율이신 어버이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로고와 사랑은 다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지금도 나의 눈앞엔 명석자리에 앉으시여 조합원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한장의 사진이 생생히 안겨온다. 아, 가슴이 아프다.

금방석에 모시고 꽃방석에 모셔도 효성이 모자라겠는데 우리 수령님을 명석자리에 모시다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끝없는 로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자식된 도리를 다 할까! …

1974년 5월 10일 (봄비가 내림)

나는 오늘 참으로 귀중한것을 알게 되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보아오는 의학도서에서 참새털이 사람의 몸에 아주 좋다는것을 발견한것이다.

나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이 새털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위해 낮에 밤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짧은 시간이나마 더 편히 쉬실수 있도록 무엇인가 지성담긴 선물을 마련해올릴수는 없을가 하고-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참새털이불!》

나는 저도 모르게 혼자서 환성을 올렸다. 곁에 아무도 없은게 다행이다. 이 일은 결코 소문내며 할 일은 아니니까. 참말로 오늘은 나에게 행운이 차례진 기쁜 날이다. 당장이라도 이 일에 착수하고싶다. 그런데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여간에 잡는 참새털이 제일 좋다하니 그제 참 아쉽다. 아니, 지금부터 참새잡이준비를 잘 하자…

여기까지 읽고난 오의빈은 일기장을 덮고나서 그후 지나간 나날에 있었던 일들을 더듬어보았다.

어느해 겨울, 수십리 떨어진 옥도마울로 아들과 함께 참새잡이를 갔다가 살얼음진 개울에 빠져 발을 얼쿠면서 밤길을 걷던 일이며, 어느 초봄엔 골뚝에 의지해서 참새둥지를 털다가 떨어져 의식없는 철수를 업고 허둥지둥 십여리 되는 진료소길을 달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안겨왔다.

이밤도 오의빈은 육체적인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것을 힘으로 바꾸며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었다. 그는 잠자면서도 하늘을 덮을듯한 큰 그물을 가지고 대공을 날으며 참새떼들을 한꺼번에 모조리 후려잡는 그런 통쾌한 꿈을 꾸었다. …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8년이 되도록 끄떡하지 앓구 술한 새를 잡아 소중한 선물을 마련해 드렸으니 정말 입잔 효녀일세.》

한동안 생각에 잠겨 말이 없던 오의빈의 손을 다시 뜨겁게 잡으며 배나무집할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제가 무슨 효녀겠어요. 어머니두… 저는 지금껏 받아안은 사랑이 바다라면 제가 바치는것은 작은 실개울이라구 늘 생각해요.》

진정 어린 오의빈의 말이었다.

그때로부터 몇달후인 1992년 1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지식인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뜻깊은 이 대회에 참가한 오의빈은 분에 넘치게도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가장 가까이 모신 주석단에 추천되게 되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만장의 박수와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짓는 그의 가슴속엔 이런 생각이 뜨겁게 끓어치고있었다.

-아버이사랑은 세월과 더불어 끝이 없건만 드리는 효성은 늘 시작뿐이니 아 언제면 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할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진짜배기 효녀 구실을 할수 있을까!

오늘도 준박사, 숨은 공로자인 오의빈은 자기의 혁명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며 효성을 다하고있다.

이러한 효녀, 효자의 대오가 끝이 없기에 우리 당, 우리 조국이 위대하며 우리 사회주의대가정이 날로 번영하는것이다.

안해의 얼굴

-한 영예군인이 부른 노래-

진창우

나는 아직 못보았소

안해여

당신의 고운 얼굴

당신의 정다운 모습

하지만 안해여

사랑스런 사람아

세상 그 어느 녀인보다 더 아름다운

당신의 그 얼굴

내 마음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있소

이웃에 낯익던 모습도 아닌

안해여

어머니 읽어주던 당신의 첫 편지에서

나는 보았소

농장벌에 비끼던 당신의 그윽한 눈동자

농장벌에 솟아난 달덩이같은 그 얼굴

두눈을 바쳐 조국을 사랑한 심장이라고

앞못보는 나에게 사진을 보내며

회답도 없는 편지를 쓰고 또 쓰며

그토록 이 가슴 덥혀

끝내는 나를 울리던 안해여

나는 보고있소

고마운 사람아

나에게 기쁨만 주자고

언제나 웃음쉬인 맑은 목소리

그들이 질세라 젊음을 다 기울이는

당신의 그 고운 얼굴을

평범한 녀인의 모습이 아닌

나의 안해여

사랑의 불덩이를 안고

나의 눈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준 안해여

나는 보고있소

이 가슴에 사랑으로 해빛을 채워주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당신의 얼굴로 보고있소

안해여

우리 시대의 참인간들도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참모습도

당신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도

당신의 마음에서 나는 보고있소

한영철영웅을 불러

황명성

순간

《딱!》

너무도 뜻하지 않게
격침이 퇴관을 때린
위기일발의 그 순간

폭발직전의 수류탄을 놓고
평범한 병사였던 한영철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우리는 다 모른다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은 천리를 날아
정든 고향집 트랙에 서보았는지
모교의 백양나무 설레임소리 들었는지

각일각 1 초마저도
천으로 만으로 쪼개여
숙영의 천막가에서 서로 언문을 녹여주던
못 잊을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는지

그 마음 다 몰라도
오오, 이것만은 확언하노라
정답고 귀중하고 성스러웠던
그 모든것을 겨웁도록 안아본 병사

그토록 뵈고싶어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던
최고사령관동지의 자애론 영상
마음속에 그려보았으리라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병사의 량심으로 마음은 정화되고
병사의 맹세로 가슴은 불타고
병사의 의리로 충정은 솟음쳤나니

짧았어도
무한대한 세월의 영원과 이어진 그 순간이
공화국영웅 한영철
그의 빛나는 영생의 시작점이였다!

영웅의 나이

한영철 그는 21 살
푸른 꿈이 꽃망울처럼 부풀고
아름다운 리상이 창공에 나래치던
좋은 시절 애젊은 나이였다

영웅 리수복이 그러했듯
영웅 장룡철이 그러했듯
너무나 짧게 살았어도
얼마나 값높은 청춘의 삶인가

내 따르며
내 가야 할
승고한 한생의 목표로
영웅의 그 나이를 생각하나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영웅의 심장은 고동쳤더나
영웅의 걸음은 줄기찼더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였더라
안아 고이 키워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해
가슴속 꿈도 리상도 소중했던
영웅의 빛나는 한생이어

뜨겁게 속삭여주는구나
값없이 위훈없이 백년을 살기보다
짧게 한생을 마무리해도
우리 당의 기억속에 사는것이 영생임을

영웅의 모습

남다른데가 어디 있어
류다른데가 어디 있어
한영철
그는 영웅이 되었는데

영웅의 그 모습
영웅의 그 마음
내 취재길에서 자주 만나던
술한 병사들과도 다름없지 않느냐

초소근무의 한밤이면
별처럼 총총 빛나던 그 눈빛
전호에 비물이 차올라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던 그 자세

뉘 보지 않는 훈련길에도
깨끗한 량심의 자욱을 새기고저
때로는 달려간 길 되돌아
스스로 내리던 반복구령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조차
마음속 보화의 은구슬인듯
병사의 보람을 안고
랑만에 넘치던 밝은 웃음소리

군무생활의
레사로운것으로만 생각할수 없구나
평범한 날에는 미처 몰랐던것
오늘은 그 하나하나가 다 돋보이나니

그것이 참말로 그것이
친애하는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병사와 숭고한 정신의 높이!
병사의 존엄어린 위훈의 자욱!

아 공화국영웅 한영철
빛나는 그의 모습은
참된 병사중의 병사의 모습
천만대오의 심장속에 살아있어라!

그 물음앞에

마지막숨을 뿜으며
피흐르는 입술을 열며
그는 속삭이듯 물었다
-초상화는...
동무들은...

묻는 그 말조차 끝을 못맺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도
상기도 이 가슴을 치는구나
-초상화는...
동무들은 ...

삶의 숭고한 메아리인듯
긴 여운을 남기는 그 목소리
뜨겁게 뜨겁게 가슴을 울리어
내 왜 섣뜻 말 못하는거냐

-무사하다고...
무사하다고
그대 한영철영웅에게
대답해주는게 쉬워도
지키기는 험치 않은것!

운명의 태양이신 수령을 위해
혁명의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위해
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수 있음을
심장으로 증언해야 하리라!

아, 잊지 않으리라
충신의 삶으로 빛을 뿌리는
한영철영웅의 그 나이
영원히 내 안고 살리라!

빛나는 추억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연 들려주느냐

한영철 동무는
초소의 기동감이었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였다고
심장으로 동지를 사랑할줄 알았다고

못잊어 영웅을 못잊어
그리워 영웅이 그리워
그 모습을 소중히 간직한
전우들의 뜨거운 그 마음

영웅의 병사시절
다감한 추억이 되어
시인인 내 심장도 울리나니
나도 영웅과 정답게 속삭이고싶구나

고향에서 동창들이 알던 그 이름
초소에서 전우들이 알던 그 모습

평양에 사는 나도 안다고
우리 인민이 다 안다고

-공민의 자랑인 공화국영웅
한영철동무!
부럽소, 정말 부럽소
조국의 기억속에 사는 그대가!

크나큰 영광이요
배움의 꿈나래 퍼던 모교도
위훈의 자욱 새기던 중대도
동무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소...

걱정의 내 마음속에
한영철영웅을 불러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나의 독자들이여 심장속에 새겨다오

아, 친애하는 그이 안아주시어
두번다시 태어난 영웅의 삶
빛을 뿌리는 금별과 함께
빛나는 추억으로 영원하리라

우리 나이 몇살인가

김남용

인생의 꽃망울
터쳐도 보기전에
남긴것이 너무도 값높아
조국이 못잊는
아동단원 금순이 그 나이

저 하늘의 해빛을 보며
먹고간 나이보다
두고간 나이 아득히 길어
누구나 가슴아프게 부르는
아홉살-

때늦어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아라
금순이 그 나이
몇곱절 더 살아오며
너나없이 어머니조국에

과연 그 무엇을 바쳤는가를

세월이 거저 준다고
한해두해 나이를 쉽게 먹지 말라
한일없이 백발 나이에 이른다면
그보다 구슬픈 일 또 있으랴

아홉살! 아홉살!!
금순이 그 나이를
우리 수령님 회고록에
얼마나 빛나는 영생의 삶으로 적으셨는가

세여보아라 피끓는 청년들아
금순이 나이앞에
제 모습을 비쳐보며
톡톡 맥박치는 심장으로 대답해보라
아, 나는 지금 몇살에 살고있는가를?!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문학의 생명선이다

김용부

오늘 우리 문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면서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세계를 휩쓴 반동적인 문예사조의 독소도 우리 문학의 로동계급적본성을 변질시킬수 없었으며 반동적 《자유화》의 바람도 우리 문학의 혁명적성격을 마비시킬수 없었다.

불멸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는 우리 문학의 이 자랑스런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철의 신념과 천재적인 예지로 담보되고 있으며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고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문학이 이룩한 그 모든 성과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령도의 결실이며 래일의 우리 문학의 승리적전진도 그이의 령도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말살하고 부르조아문학예술을 퍼뜨리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 대처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발표하시고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의 본질과 필요성, 문학사업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주체문학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영원히 담보하는 령도방법의 위력한 무기를 안겨주시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사업과 문학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방법문제를 주체적인 립장에서 새롭게 과학적으로 완성체제화한 여기에 바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영원불후의 업적과 빛나는 가치가 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의 《당의 령도와 문학사업》에서 무엇보다먼저 문학사업은 언제나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인류문학에서 가장 우월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문학발전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혁명문학의 건설과 그 성과를 기대할수 없으며 혁명문학의 존재 그자체도 생각할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의 령도는 곧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면 왜 당의 령도가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으로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가지로 설명할수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문제 즉 로동계급의 문학의 사명과 혁명문학건설의 력사적 경험과 교훈의 견지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동계급의 문학의 력사적사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내세운 위업이며 이 성스러운 위업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혁명적문학도 당의 령도밑에서만 자기 발전의 참다운 길을 걸어갈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문학 창작과 건설을 정책적으로 지도하며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한 문학 창작과 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며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과 문학발전의 믿음직한 원동력으로 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문학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밀어준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문학이 전투적무기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참답게 복무할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문학건설에서 그 직접적담당자인 작가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혁명적문학건설의 력사적경험으로 보아도 당의 령도는 절실한 문제로 나신다.

력사적경험은 혁명적문학을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거부하고 《자유화》하면 문학이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사조에 오염되어 자기의 혁명적이며 로동계급적인 본성을 잃게 되며 나아가서는 부르조아문학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에서 혁명적문학이 부르조아문학으로 전락되게 된 주되는 요인은 당이 문학사업에 대한 지도를 옳바로 하지 않은데 있다.

당이 사상전선의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고있는 문학을 출시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포기하면 작가, 예술인들이 서방문학에 환상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변질되어 당의 위업에 반기를 들게 되며 문학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키면 부패타락한 서방문화의 침습을 막을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가 좌절된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개혁》, 《개방》의 문을 열어놓자마자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앞장서서 썩어빠진 부르조아문화를 끌어들이고 당과 혁명에 도전해나선 사실이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 냉정하게 까뻐쳐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당의 령도가 문학의 창조적발전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완전한 허위이며 궤변이다. 그레 자본주의사회에서 아무 소리나 마음대로 말할수 있는가.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조아제도를 옹호하는 사상만이 허용된다. 부르조아계급과 작취제도를 반대하는 정의의 목소리, 양심의 목소리는 가차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떠드는자들은 레외없이 문학의 정치적복무성을 반대하고있지만 그들이 자신이 부르조아정치를 대변하고있다. 도대체 정치를 떠난 문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그자들이 말하는 《창작의 자유》란 사회주의문학을 공격하고 문학사업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거세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결코 작가들의 손발을 얹어매거나 류형과 도식을 강요하는것이 아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작가들의 창발성과 창작적개성을 마음껏 계발시키고 발양시킨다. 인간중심의 철학을 자기의 리념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작가들의 자그마한 개성의 싹도 귀중히 여기고 보호, 조장, 발전시키며 류형과 도식을 반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벌린다.

당의 적극적인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우리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은 날을 따라 활짝 꽃피나고있으며 우리 문학은 이채를 띠는 작품들로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고있다.

이처럼 혁명적문학의 사명의 견지에서 보나 혁명적문학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의 견지에서 보나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곧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의 생명선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작가들이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체계를 바로세우는데서 기본은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문학은 당의 유일적지도밑에 창작되고 건설되어야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 문예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으며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다.

당의 유일적지도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문학사업이 항방을 잃고 좌왕우왕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문학으로서의 자기의 성격을 잃게 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문학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문학의 본보기로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주체적문예리론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절대적진리로 간주하고있다. 오늘 우리에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지상의 명령으로,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집행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기풍이 확고히 서있다.

우리 문학이 세계적풍파에도 끄떡없이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 오늘과 같은 대전성기를 맞이하게 된것은 바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작가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작가들과의 사업에서 기본은 창작의 주인인 작가들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주어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성을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이끌어주는데 있다.

그러자면 일군들의 지도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문학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위대한 수령님식사업 방법과 작품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당의 존엄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이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문학예술부분에 령도의 자욱을 남기시던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시종일관 제기된 문제이다.

정책적지도란 모든 창작사업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정책적대를 바로 세우도록 장악통제하고 이끌어준다는것을 말하며 형상적으로 지도한다는것은 문학창작의 특성에 맞게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도록 작가의 창작과정을 이끌어주는것을 말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의 결합, 여기에 바로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기본열쇠가 있다.

따라서 문학부문 지도일군들은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적절하게 결합하면서 작가들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가지 편향을 극복해야 하는바 창작을 정책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작품의 특성과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주관을 내리먹여서는 안되며 반대로 형상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 정책적대를 바로 세워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창작지도일군들과 심의일군들은 작품의 정책적대를 세우고 방향을 그어주는데 그치지 말고 형상수준을 높이는데로 지향시키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 부문 일군들의 정치적식견과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창작지도일군들과 심의일군들은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정치적식견과 예술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정력을 다해야 한다.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부문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는 당조직을 통하여 전달침투되며 당조직을 통하여 관철된다. 작가들의 정치사상생활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다.

문학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예사상과 리론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작가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문학예술부분에 쌓아올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옹호고수하도록 하며 혁명문학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의 **《당의 령도와 문학사업》**에서 다음으로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사상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게 주체의 혁명문학을 건설할수 있는 중요한 담보를 마련해준 리론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문학을 건설하는데서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문학운동이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이다. 다시말하여 문학운동은 모든 창작력량을 뚜렷한 방향과 목표에로 지향시키고 꺾기시키는 사업이며 문학건설의 모든 문제를 작가들의 집체적인 노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공동작전이며 공동행동이다.

이러한 문학운동은 사회주의문학의 본성적요구에도 맞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도 부합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문학활동은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리익을 위하여 창작활동을 진행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작가의 활동은 돈벌이를 위한 상품생산자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대로 사회주의문학은 당의 령도밑에 대중의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힘에 의하여 건설되며 사회와 인민대중의 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한다. 사회주의하에서 작가의 활동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문학은 그 사회적성격으로 하여 개인주의에 기초한 직업화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대중적인 문학운동의 길로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세우기 위해서도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발전한다.

현실은 매일같이 변모되며 새로운 요구를 부단히 제기한다. 이러한 요구를 민감하게, 기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창작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작가들을 조직된 힘으로 묶어세우고 꺾기시켜 공동작전과 공동행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문학사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이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작가들의 대부대가 있다.

당의 령도밑에 문학부문 일군들이 이 모든 가능성을 옹계 리용하여 조직사업만 잘하면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문학운동은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어야 한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문학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반동적인 부르주아문예사조의 침습도 막아낼수 없게 된다. 문학부문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절대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문학운동을 벌리는데서 당, 문학예술행정기관, 문예총이 3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

당의 지도밑에 문학예술부를 비롯한 문학예술행정기관들과 문예총, 작가동맹이 일심동체가 되어 작가들을 사상미학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창작에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하며 창작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중요하다. 언제나 동원적인 계획을 세우며 일단 설정된 목표는 통이 크게 판을 벌려 대담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문학운동을 꺾어내야식으로 벌리지 말고 부단히 심화발전시켜 우리 문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내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의 **《당의 정도와 문학사업》**에서 다음으로 당의 정도밑에 문학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심오하게 밝혀주시었다.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문학운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문학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건설을 군중적지반우에서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으며 우리 문학을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문학을 대중화하여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다시말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전면적으로 발전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의 대중화는 인민대중을 문학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학의 대중화는 두가지 측면을 포괄하고있다. 그 하나는 창조자로 만드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향유자로 되게 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문학의 대중화는 인민대중을 문학창작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문학의 진정한 창조자로 만드는것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문학을 마음껏 즐기는 참다운 향유자로 만드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이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문학작품보급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작품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실효투쟁과 감상발표모임을 조직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군중문학창작사업을 활발히 벌려 모든 근로자들이 창작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당의 지도밑에 모든 작가들을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는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다.》

당의 사상전선을 지켜선 우리의 작가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 당의 충실한 방조자, 당의 훌륭한 조연자,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만이 진실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와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문학예술인이 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다.

작가들이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문학예술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먼저 모든 작가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하며 정치적식견을 높여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작가는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체험을 많이 쌓아 생활의 박식가, 창작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의 필연성과 그의 본질, 문학건설에 대한 당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을 명백하게 밝혀주시였으며 당의 정도밑에 문학운동과 문학의 대중화, 작가들의 정치사상적준비를 어떻게 실현하겠는가 하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해명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정도에 관한 리론의 새로운 정립은 그의 혁명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혁명적문예리론발전사에서 커다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여기에서도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정도라는 새로운 정식화는 로동

계급의 혁명문학의 생사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 리론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돌이켜보면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탄생된지도 100여년이 지나갔다.

빠리콤폴문학으로부터 시작된 혁명문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것을 리상으로 내세웠으나 그의 숭고한 높이에 오를수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문예리론은 당적지도와 통제에 대하여서는 강조하였으나 당적지도의 본질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데로부터 문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오늘에 와서는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이 부르조아문학으로 복귀되는 가슴아픈 비극이 초래되었다.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결합해야 한다는 리론 역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을 선행시대가 알지 못하는 최상의 사상에술적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지난날 어떤 사람들은 문학사업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쟁파리를 두드리며 좌경의 길을 걸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학사업에 대한 형상적지도라는 외피를 쓰고 정책적대를 바로 세워주지 않음으로써 우경화되어 부르조아문학의 사환군으로 되었으며 종당에는 사회주의혁명을 배반하고 부르조아문학으로 전락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날의 력사가 남긴 이 모든 오류를 천재적예지로 파악하시고 정책적지도와 형상적지도를 결합할데 대한 리론을 제기하시고 몸소 시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 문학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참답게 복무하는 혁명적문학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의 령도밑에 진행되는 문학운동에 대한 새로운 리론을 제기하심으로써 인류문예리론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인류문학사는 선행시대의 낡은 문학과 새 시대의 진보적문학이 교체되는 력사적인 전환기마다에서 새로운 사조를 반영하는 문학운동이 일어나군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중세의 암흑을 헤치고 《개성》해방의 구호를 들고 나타난 문예부흥운동이 그러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세기적인 이행의 력사적시기에 건설된 사회주의문학운동도 이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세계의 저명한 문예리론가들도 문학운동의 필연성과 그의 본질과 운동실현의 방도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으며 문예리론으로 정립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주체의 철학적리념에 기초하시어 인간의 창발성과 주인다운립장,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인 집단주의성격에 기초하고있는 문학운동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을 더 빨리 건설해나갈수 있는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가들의 지위를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창작의 주인은 작가이며 문학건설의 담당자도 작가이다. 당이 작가들을 어떤 지위에 세우고 어떻게 교양하는가에 따라 혁명적문학의 명맥이 튼튼히 이어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 있다.

지난 시기 오랜 혁명문학의 전통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자본주의문학으로 복귀된 근본리유의 하나는 바로 작가대오를 당에 끝없이 충실한 충신의 대오로 꾸리지 못한데 있다.

그들은 작가들에 대한 혁명교양을 홀시하였으며 《창작의 자유》를 달라는 그들의 지청구를 처음에는 귀맛좋은 소리로 열리다가 나중에는 타협하고말았다. 이리하여 작가들은 서방문학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심취되었으며 나중에는 당에 도전해나서면서 나라를 자본주의에로 떠밀어가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작가들을 당 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고 언제나 당과운명을 같이하는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당 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철자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당 사상전선에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적작가의 대집단,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충신의 대부대가 믿음직하게 서있게 되었으며 우리 문학은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문학의 명맥을 곳곳이 이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의 빛나는 상상봉에 치달아오를수 있게 되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는 우리 주체문학의 생명선이며 우리 작가들의 운명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가 없으면 우리 문학이 없고 우리 작가들의 생명도 없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주체문학의 자랑찬 승리가 있으며 우리 작가들의 영생하는 삶과 빛나는 영광이 있다.

우리의 모든 작가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는 필봉을 높이 들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사랑과 충성

안흥윤

올해 9월의 월력을 방금 번져놓던 날이었다.

한껏 무르익어가는 오곡백과의 향기에 폭 잠겨 있던 황해남도 땅에 별안간 세찬 폭풍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황해남도에 대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신 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연백벌에 오시였대요!...》

《수령님께서 풍년든 농사작황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대요...》

금나락이 끝없이 설레이는 연백벌에서 퍼진 그 소식은 거의 빛속도를 타고 도의 농장별로, 공장으로, 어촌으로 날아왔다. 삽시에 온 도가 들쭉해졌다.

그 세찬 감격의 파도가 일어난 다음날 나는 취재차로 해주-은빛행렬차에 몸을 싣게 되었다.

해주청년역을 떠난 열차는 곧 연백벌의 어구인 청단벌을 께질러 달리기 시작하였다. 가도가도 끝없는 벼바다며 구릉지대의 강냉이숲들이 원무를 하듯 지나가고 주렁진 배와 사과와 중량에 아지가 부러질듯싶은 과원들에서 향기가 물씬물씬 풍기어왔다.

참으로 풍요한 계절, 풍요한 대지였다.

늘쌍 보아왔고 어딜 가나 볼수 있는 풍경이건만 나는 마치 처음보는 사람마냥 모든것을 눈이 시도록 보고 또 보았다. 풍년이삭 물결치는 이 들판이 아버지수령님께 그토록 큰 기쁨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눈에 띄우는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고 정답게 느껴졌던 것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열차안의 승객들이 다 차창밖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연방 탄성을 지르곤 하였다. 더우기 열차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농장이나 벌을 지나갈 때면 누구라 할것없이 흥분은 절정에 이르곤 하였다. 그이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기뻐하시였고 무슨 가르치심을 주시였다는 등 마치도 자기들이 직접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뵙기라도 한것 같았다.

열차가 한 역을 통과할 때였다.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끼이지 않고 창밖에만 눈길을 주고있던 내 앞좌석의 풍채좋은 로인이 느닷없이 누구에게라 없이 이런 말을 꺼내었다.

《그 아낙네가 그 말씀만은 정말 잘 올렸더니! 눈곱이 다 찜해질데!》

《아낙네라니요? 누굴 두고 하는 소립니까?》

한 젊은이가 성급하게 물었다.

《누구긴 누구겠소. 여기 관리위원장말이지.》

로인은 그것도 모르느냐는듯 통을 주듯 말했다.

《아-알겠습니다. 난 또 아낙네라기에...》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허나 웃음을 인차 거두고 모두 생각이 깊어진 눈길들을 창가로 돌리었다.

나의 눈앞에는 자애로운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뜨겁게 말씀올리는 한 너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보통키에 이렇다할만한 미모나 특징을 찾아볼수 없는 중년녀인, 어느 모로 보나 그는 수수하고 평범한 농촌녀인들중의 한사람이었다.

바로 그런 《아낙네》와 위대한 수령님 사이에 천만사람의 가슴을 치는 대화가 오갔던 것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연안군 천태협동농장을 찾아 오셨을 때였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논벼 정당 9톤 300키로그램이 실리어 능실거리는 포전을 돌아보시고 수고했다시며 관리위원장의 등을 두드려주시고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순간 그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쉬지 못하고 끝없는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하여 그는 눈물을 머금고 뜨겁게 말씀올리었다.

《아버이수령님! 부탁드립니다. 더는 이렇게 험한 농촌길을 걷지 말아주시시오!》

돌이켜보면 열네살의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초가집 사립문을 나서신 그날로부터 80여성상 잡시의 휴식도 모르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엇그제만 하여도 나라의 최북단인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어 그이의 옷차락에는 아직도 북방의 찬기운이 채 가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또다시 서해기슭의 분계연선 농장벌에 와계시는 것이다. 그것도 현지에 도착하신 시간이 새벽 3시이니 로상에서 밤을 보내시고 새벽을 맞으신것이 아닌가?!

일군들이 걱정을 금치 못하는데 관리위원장은 한결음 나서며 재삼 절절히 아뢰었다.

《위대한 수령님, 수령님께서 이처럼 먼길을 오시지 않아도 저희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령도를 높이 받들고 농사를 얼마든지 잘 지을수 있습니다.》

마디마디에서 울리는 그의 뜨거운 진정은 모두의 가슴을 찼다.

관리위원장이 목메여 울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대견스럽게 눈여겨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동무들은 당의령도밑에 농사를 더 잘 지으라고, 이 연백벌이 열두삼

천리벌과 다름바가 무엇인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올해에도 백설이 뒤덮인 정초부터 연백벌농사에서 필요한 종자, 물, 비료문제를 원만히 풀어주시고 모든 영농공정을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하여 이 드넓은 서해곡창 연백벌엔 땅이 생겨 처음 보는 흐뭇한 대풍이 들지 않았던가.

일군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신듯 수령님께서 고맙다고, 모두 편히 쉬라고 하는데 자신께서는 이렇게 현지도도를 해야 더 늙지 않는다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는것이였다.

순간 녀성관리위원장은 물론 그자리에 있던 모든 일군들은 그만 눈시울을 적시고말았다...

《정말 우리 수령님 같은신분을 모시고있기에 인민의 마음도 것처럼 간절한것이겠지.》

로인의 말에 나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아마 그도 나와 같이 무심히 들을수 없는 가슴 뜨거운 그 이야기를 돌이켜본 모양이였다.

일찌기 이민위천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쉬임없이 인민행렬차를 몰아가시는 아버지 수령님!

끝없이 부유해지고 날마다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더 큰 기쁨을 보태주시려고 자신의 로고는 안중에 없으신채 사시절 현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며 거기에서 더없는 만족을 느끼시는 우리 수령님.

정녕 우리 수령님 타고가시는 인민행렬차, 이 렬차의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것인가!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노래에 동해에 솟는 해를 비로봉에 걸어놓고 서해에 지는 달을 몽금포에 세워놓고 아버지수령님 천년만년 모시고싶다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다.

인민을 위한 아버지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그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한마음 불타는 이것이 우리 조선의 숭고한 녀이 아니라.

우리가 탄 렬차는 승객들의 달아오른 흥분된 마음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 쾌속으로, 쾌속으로 달려가고있다.

어서 빨리 주인공을 만나고싶은 조급한 나의 마음을 달래이듯 풍만한 대지가 끝없이끝없이 물결쳐온다.

로병들이 돌아온다

최진이

속삭이듯 보슬비 내리는
저녁길로
로병들이 돌아온다
대회장에서 돌아온다

전쟁을 이긴 날은
어제이런듯
가슴들에 훈장 그득히 달고
가렬한 전장에서 지금 오고있는듯

길옆에 우거진 가로수들도
그들앞에 공손히 머리 숙였다
거리는 온통 눈웃음 짓고
그들 향해 미소를 보내오누나

전쟁을 이기긴
수월하지 않았구나
전쟁을 이겼다고
할 일이 없었던가

배낭끈 다 못푼채
채더미부터 털어야 했던 그들
허리띠 줄라매야 하는

건설의 장구한 길 걸어오는 사이에
전우들 몇은 또 갔구나...

조국과 생사를 같이해오며
어느덧 머리에 흰서리 불리웠구나
간고한 나날에 간고했던 걸음들은
빨강던 랑볼들에 어설픈 주름 남기였구나...

오, 한 일 많은 우리의 이 로병들
조국은 어느 하루 잊지 않고있었구나
전쟁을 이긴 귀한 이날을 플라
전국로병대회를 열어
마흔해동안 간직해온 뜨거운 감사
모두에게 빠짐없이 안겨주었구나

로병들이 돌아온다
심장은 이전처럼 활발해지며
류달리 걸음들도 빨라진 사람들
지나온 길 곰곰히 더듬어보며
이제 할 일 맘속에 환하게 그려보며
돌아온다 로병들이
다시 또 젊은 시절로 돌아온다

백두온천건설자는 말한다

서봉제

눈보라칠 때

우리
이 산상
백두에 오를 때
꽃바람 안고 오르지 않았다

우리
이 산상
장군봉에 오를 때
유람의 발걸음을 짚지 않았다

어깨우엔
돌격대원의 푸른 배낭
등에는 건설의 전투무기 무겁게 지고
우리는 여기에 왔다
백두산에 홀몰로 오르지 않았다

꽃나비 춤추는 훈풍이 아니라
백두만이 간직한 사나운 눈보라
천지를 휩쓰는 광풍을 맞받아
온천건설의 첫 천막기둥을 내린
장군봉의 이 산정

생활의 터를 닦을
전투행장은 무거웠어도
우리들속엔 누구 하나
힘에 겨웁다 생각한적 없었고

흑한에 굳어진 땅을 까며
단 한결의 천막마저
눈보라의 거센 갈기에 휘말릴 때
우리들속엔 누가 그 누가
고향집의 아래목을 생각했던가

가슴은 궁지로 부풀고
심장은 늘 함께 속삭인다
광풍속에 우리 순간이나마
고요한 안식처를 찾았다면
웃으며 날아넘던 장군봉의 저 칼벼랑도
어찌 자랑스레 바라볼수 있을것인가

멀리 가야 할 인생길에
그 어떤 고난도 시련도 넘어설수 있는
의지와 심장을 더웁혀준 너 백두
아, 설악에 올라
설악에서 내짚은 이 걸음
어찌 주저하라 주저할소나

눈보라칠 때
우리는 여기에 왔다
랑만에 찬 돌격대원 우리의 노래는
백두의 눈보라도 웃음으로 삼키었다!

그는 어디서 편지를 썼는가

절벽을 뜯으며
모진 광풍 울다가
설악에 깃드는 정적
누가 그에게 연필을 쥐여주었던가

굳어진 눈바위우에
통장갑을 깔고앉아
고향의 아릿다운 처녀에게
젊은 대원은 편지를 쓰네

창가림의 아늑한 방
꽃화분이 웃는 책상앞에서
연필아닌 잉크로 편지를 쓴다면
무슨 사연 그리도 깊을것이라

장군봉의 깊은 계곡
아슬한 돌바위에 첫발을 붙이던 너
사나운 눈사태가 머리우에서 쏟아질 때
설피는 네 한몸 하늘공중에 날렸나니

네가 달려온 일터가
수수히 걷는 땅우에만 있었다해도
너는 그 연필을 들지도 않았으리
고향처녀 마음속에 부르지도 않았으리

절벽도 눈뿌리가 아픈
천길나락의 벼랑가에 일터를 잡았어도
네가 날려보낸 얼음바위

한치한치 툇아내린 수로관굴착의 그 길이
흰김 뿜는 온천기슭에 손을 짚었나니

아, 발아래 머리우에
안개가 아니라 눈바다가 펼쳐진
산도 백두산 눈의 산악에서
마음속에 쌓아둔 자량이 있어
사랑도 고백할수 있고

사연도 깊은 그 편지

달리는 연필은 가벼워도
하늘땅 천지를 다 휘어잡은
장알 박힌 그 손으로
고향에 보내는 네 글줄
처녀의 마음을 흔들어주리
사랑의 대문을 두드려주리

해도 달도

암반을 때리는
착암기의 동음
가슴에 뛰는 맥박에 맞추어
분과 초가 바삐 흐르는 온천건설장

여기선
어느새 해가 가는지
하루는 그렇게
그렇게 빨리만 달음친다

중천에 솟은 해
우리과 함께 불을 안고 달리다가
산중의 제일봉 장군봉을 넘어
이제는 저기 서녘으로 기우는데

가는 해를 손잡아
어느새 또 솟았느냐
한하늘 푸르른 천상에
말없이 솟아오른 둥그런 달이어

울부짖는 눈보라에 묻혀
우리 말 한마디 들을수 없어도
서녘에 기울어서 멎은 해
동녘에 솟아서 웃는 달

절벽가의 용감한 돌격대원들
빨리 지머는 더 못볼가봐
서둘러 뜨지 않으면 더 못볼가봐
우리의 머리우에서 두손을 마주잡은
백두산상의 해와 달-

아, 우리 하는 일
아우성 높은 눈보라만 보고있는줄 알았더니
미더운 우리결을 못떠나
지는 해도 흐름을 멈추었구나!
정다운 우리들을 찾아서
솟는 달도 걸음을 재촉했구나!

물이 오른다!

백만년의
그 깊은 잠을 깨우며
백두계곡에
착암기의 동음 메아리치더니

동토대의
그 두터운 얼음을 깨며
빙설의 산악에
돌격대의 우등불 타오르더니

아, 오늘은
오늘은 물이 오른다
백두화산의 입김이 더웁혀준
뜨거운 온천물이 향도봉으로 오른다

물소리와 함께 솟아
이 내 가슴에도 터져오르는것은
너 진정 세상에 흔하디 흔한 물이더냐
아니면 너 정녕 우리 환희의 숨결이더냐

천막가에 쪽잠을 자며 기다리던 그 기쁨이
500 메터의 장군봉절벽으로 치달아오르고
얼싸안고 부비는 감격이
2,000 메터 관을 따라 흘러흐르는
물소리 물소리-

허리에 맨 언바줄을 풀수가 없어
절벽가에서 주먹밥을 씹으면서도
날새마져 깃들기 저어하는 광풍속에서도
언제한번 드놀지 않던 우리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적시며 흐르는 백두온천이어

너는 알리라
눈이면
백두의 눈을 우리 맞았고
바람이면 너무나도 지동치는
백두설한풍을 여기서 우리 이겨냈기에
언불을 녹이는 이 눈물은

온천물보다 더 뜨거운것 아니냐

혁명의 성산을 찾아오는 천만가슴들에
백두의 혈통을 이어주시려
백두의 온기를 안겨주시려
친애하는 그이 붉은 화살표를 그으시여
백두산상에 끌어올린 천지의 뜨거운 물줄기

둘러보면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
돌격대원들이 백설우에 찍은 그 발자국도
결사대원들이 칼벼랑 날아넘던 그 바줄도
하늘땅을 뒤흔는 눈보라를 벗삼고
바위를 두드리는 광풍 장단으로 맞추며
눈의 산악에서 보낸 그 낮과 밤들도
이미 우리에게겐 흘러간 세월로 남았거니

오오, 백두온천
위대한 우리 당의 부름 받들어
백두의 슬기와 기상을 안고
그 이름 궁지 높고 자랑 많은
돌격대원들이 향도봉으로 끌어올린
혁명의 영원한 생명수여

여기 그 어느 바위에
건설자 우리 이름 새기지 않았다면
너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
격변하는 이 시대 자기의 검은 머리에
백두의 눈보라를 엿어본 우리에게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움 모르는
위대한 인간의 힘과 숨결과 정신을
백두여, 너는 안겨주었다!

우리 인민반

송정애

하나의 지붕아래
하나의 층계를 오르내리며
한가정
한혈육처럼 정을 나누는
우리 인민반

머칠 나들이길도
이웃이 그리워 서둘러왔다고
제 고향의 특산물도 나누어주며
허물없이 하는 말에
진정이 어려와요

아침저녁 마주보는
서로의 눈빛에 사심이 없고
제집만을 위한것이
집집에 따로 없iera

어느 한 가정의 기쁨이
순간에 온 인민반의 기쁨으로 퍼지고
어느 집의 새머느리도
온 마을이 떨쳐나 맞아주고
새아기의 출생도
다같이 축하하는 우리 인민반

당이 부르는 조국보위초소로
탄전으로 건설장으로 떠나는
집집의 끝끝한 사내들을 위해
누구나 아버지, 어머니처럼 지성을 고이고

위훈 떨친 그들의 자랑 신문에 날 때면
현관의 속보판에 크게 내걸고
누구나 제자식처럼 자랑을 나누는 우리 인민반

태어난 고향은 서로 다르고
부르는 이름은 서로 달라도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사랑 다해 펼쳐준 행복의 요람에서
한가정 한혈육이 된
우리 인민반

뜨락을 쓸며
마음도 깨끗해진 이웃들
집집의 창문을 닦으며
마음의 창문도 밝아진 우리
남을 위해 목숨도 아낌없을 마음이
한지붕아래 펼치는 웃음과 진정속에
나날이 깊어지는 우리 인민반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아버이로 모시여
내 나라에만 꽃피는 참모습이예요
많은 집 많은 사람 모여살아도
남이 없는 우리 인민반은
한가정이예요

(교육위원회 교학)

밝은 저녁

박호섭

찌뿌둥한 저녁하늘이 땅을 내려다보며 살피고 있었다. 뽕 이틀간 비를 뿌려주고 어디가 빈 구석인가를 찾아내려하는 듯한 기색이다.

누런 탁류가 사품쳐흐르는 시내와 나란히 놓인 동쪽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로인의 걸음은 지친 듯 무거웠다.

이제 몇달만 있으면 생일 일흔뎡을 맞는 오유삼의 주름 덮인 얼굴은 하늘처럼 침침하였다.

다가오는 어둠과 흐린 하늘을 향해 반항이라도 하려는 듯 청을 합해 울어대는 개구리들과 귀뚜라미들의 소리도 오유삼은 듣기 싫어졌다.

여러날전부터 열이 나고 손발이 두뇌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지금처럼 그의 눈빛이 꺼지지 않는 않았다.

그의 반소매셔츠 옷주머니에는 아직 우표가 붙지 못한 편지가 만나마 뼈죽이 찢려져있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 간부과장앞으로 보내는 아들의 편지였다. 바로 이 편지가 오유삼의 마음을 온종일 무겁게 하였고 자기의 홀려간 70 인생을 가슴아프게 돌이켜보게 하였다.

오유삼은 이고장, 이 검암리에서 태어나 어디 한번 이사간 적이 없이 살아왔다. 그가 해온 일이란 농사뿐이어서 자기의 문견 경력란에는 단 몇줄밖에 써넣을 것이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더없는 긍지로 기쁨으로 삼고있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작업반 기술지도원인 아들에게 유감으로 되게 할 줄은 정말 언제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한생을 긍지롭게 평가하지 않고있었다.

물론 이제 와서 돌이켜보건대 오유삼에겐 떼떽하게 자랑할 수 없는 일도 많은 것만은 사실이다.

해방후 토지분여를 받은 그날밤에 저녁을 치른 뒤 자기 발 말뚝을 다시 보러 나갔다가 표말이 간 데온데 없이 사라진 것을 알고 그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지주아들을 붙잡아 그놈을 도리깨질하여 반죽을 만들어서 면당위원장한테 된육을 먹였었다.

전쟁때 현물세 쌀더미를 지키면서 쌀도적질하는 쥐들을 잡겠다고 쥐창을 곳곳에 놓았다가 리보위대장네 얼룩새끼강아지를 잡아 몇번이나 사죄를 해야 했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협동조합이 무어지던 때 맨 선참으로 가입신청을 하고는 망설이고 재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빨리

조합가입신청을 하라고 욕박질러 오히려 반감을 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중앙대학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아들이 이 농장에 주저앉히고 농업대학 통신에 보내여 농산기사로 되게 한 것이 아들에게는 섭섭한 일로 가끔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있는 일만 두고보더라도 손녀애가 자기대신 아버지의 편지를 부쳐달라고 한 것을 고스란히 우표를 붙이고 우편통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 그 알 속을 몰래 꺼내본 것이라던가 손녀애가 편지를 부쳤는가고 물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거짓말을 한 것도 어른으로서의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다.

하긴 한생을 살면서 사람이 어찌 위훈과 자랑만 있고 실책과 오유가 없으려만 오유삼은 자기의 그 모든 잘못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죄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고통스럽게 자인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잘 두어 행복한 령감이라는 칭찬을 받아온 것이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다.

집에 들어서니 늘 조잘대며 반기던 손녀는 어느새 잠에 들어있었고 며느리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있었다.

《아버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병이 도지면 어쩔려구 그러십니까?》

며느리는 마치 시아버지의 이마라도 짚어보는 듯한 그런 다심한 어조로 따듯이 물었다.

《이젠 걸음발이 떠져서 어쩔 수 없구나.》

오유삼은 자기 마음속은 감추고 공연히 다리땀만 하였다.

농장의 부대로력으로 떨어진 뒤 그는 아침저녁으로 작업반포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의 일과였지만 오늘처럼 늦게 들어오기는 처음이었다.

시아버지와 남편, 딸을 위해 10년 가까운 세월 말없이 헌신해온 며느리는 전순녀라는 그 이름처럼 성낼 줄도 따져 물을 줄도 모르는 성미였다. 전순녀는 오유삼이 식사를 끝내자 나비처럼 조용히 밥상을 들고 나갔고 약봉지와 송늬를 군말없이 받쳐드리었다.

《애아비가 왜 늦느냐?》

《아마 무슨 일이 있는가 봅니다.》

남새반의 세포부비서인 순녀는 자기보다 별로 키도 크지 못하고 년간 로력공수에서도 크게 앞서

지 못하는 남편에 대해 언제나 두둔하는데 습관되어 있었다.

《아버님, 텔레비존을 켜랍니까?》

《아니, 됐다. 어서 일보아라.》

오유삼이 이렇게 말해서야 전순녀는 부엌으로 내려갔고 썩썩썩 무우를 썰기 시작하였다. 칼질 숨씨가 여간 재지 않은 그는 언제나 김치를 맛있게 담그어놓고 어느 한끼도 떨구지 않는것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것이였다.

다른날같으면 오유삼은 며느리의 칼질소리를 기분 좋게 들으며 아래목에 누운 고양이와 한참 놀음을 하였겠지만 오늘은 어쩐지 담배가 더 피우고 싶어 가치담배를 밀어놓고 씨레기를 붓대같이 길게 말아쥐었다.

그런 담배를 석대째나 피웠을 때에야 터벅터벅 아들의 발자욱소리가 울리었다.

오유삼은 아들의 어지러운 그 발길이 자기의 가슴을 디디며 걸어오는것 같아 슬며시 저려드는 가슴을 만져보기까지 하였다.

《아버지, 왜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고 해롭다는 담뭍 피우고계십니까?》

아들 오진백은 무슨 만족스러운 일을 치르고 들어왔을 때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어서 저녁 주어라!》

오유삼은 전에없이 큰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지시했다.

《아니, 전 먹고 왔는데...》

오진백은 모자며 작업복 옷도리를 벗으면서 아버지에게인지 안해에게인지 명백치 않은 상대방에게 대답했다.

《더 드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사이문을 열고 전순녀가 안심치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기장동무네 집에 갔었는데 토끼를 잡았더군. 부탁하려는걸 듣더니 걱정말라면서 토끼고기 온반이나 들라구 해서 잘 대접받았소. 이제 상차리는것만 물려놓으면 되오.》

오진백은 작업반적으로 로력공수를 제일 많이 번 가정으로 선발되어 재봉침을 우대상품으로 받아왔던 그날처럼 우쭐해하였다.

아들이 지금 무엇을 두고 기분이 좋았는지 오유삼은 짐작할수 있었다.

올해 가을에 오유삼은 귀족빠진지 일흔번째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날을 뜻깊게 맞는다고 봄부터 서로 이마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상점에 좋은 옷감이 나오기만 하면 남편저 달려가군했다.

《너희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난 생일 일흔뉘상을 안받겠다.》

오유삼은 진심으로 생일 일흔뉘상을 받을 생각이 없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도 하듯 통명스레 단마디로 내쫓았다.

《아니? 아버님,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며느리가 불에 덴듯 놀람에 차서 물었다.

《저 순금 애비가 이 편지 쓴걸 아냐?》

《편지라니요? ...》

정말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색이였다.

《그럼 네가 이 편지 읽어라. 나도 듣고 순금 애비도 듣게!》

오유삼은 편지알속을 우둘우둘 떨리는 손으로 꺼내들고 며느리에게 내주었다.

《어서 큰소리로 읽어라!》

오유삼은 마치 어떤 죄인에게 형벌을 언도하고 그 집행권을 며느리에게 주듯이 단호히 선언했다.

아버지의 결단성과 단호한 성미를 잘 알고있는 아들은 모든 후과를 각오한듯 자세를 고쳐앉으며 자기의 편지가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게 한 그 실책도 모르고 깊이 잠자고있는 딸애의 얼굴을 쏘아보기만 하였다.

전순녀는 두번씩이나 남편의 기색을 훑쳐보고 나서야 눈을 내리깔고 떨리는 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간부과장동지에게!

안녕하십니까? 검암리에 사는 오유삼의 외아들 오진백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부탁이 있어 편지를 합니다.

과장동지가 29년 전 이고장을 떠나실 때 열세살인 저에게 어른이 되거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지를 하라고 하셨기에 주저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에서 내려온 사람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저는 우리 농장의 결원인 기사장으로 승급시키려는것이 아닌가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파분한것이고 바라던바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것은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동지가 군에다 전화 한통 해주면 될겁니다. 군당책임비서동지에게 찾아갈수도 있지만 책임비서동지는 언제나 옛선배인 아버지편이랍니다.

제가 군으로 들어가는것은 저의 아버지때문입니다.

어제 머지 않아 칠십이 되는 아버지는 아직 로인분조에서 몇시간씩 일을 하는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전쟁때 부상당한 다리가 요즈음 또 말썽을 일으켜 더욱 힘들어합니다.

제가 여기에 눌러있어서는 끝은백인 아버지를 편히 쉬울수 없다는것을 저는 명백히 알고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저는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성의껏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차례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옛지기이며 이고장의 리당부위원장이었다던 간부과장동지!

저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검암리에서 한생을 살고있는 오유삼의 외아들 오진백이 드립니다.》

며느리의 편지랑독은 끝났다.

방안에는 손녀애의 새근새근 숨소리만이 가득 차있는듯싶었다.

《그래 이 편지를 진백이 네가 썼냐?》

오유삼은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에게 묻듯하였다.

《...제가 썼어요》

아들은 이미 모든것이 드러났다는것을 알고 순순히 대답했다.

《썼다? 그런데 우리 검암리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현지도도를 받은뒤 천지개벽한데 대한건 안 썼느냐?》

《그건 그쪽에서도 다 아는건데... 아버지 제 편지를 잘못 쓴것처럼 생각하시구 말씀하시는데 이젠 제발 저를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아주시시오.

제가 하는 일이면 그저 마음 놓이지 않아서 괜한 마음을 쓰시는데 나두 이젠 자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경우에 처했는가를 충분히 알아차린 아들은 아버지보다 선손을 쓰려는 심산에서 자기의 심정을 서슴없이 죄다 쏟아놓았다.

너무도 드세찬 반격이어서 오유삼은 주도권을 잃은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해지고말았다.

《사람은 자기 실책이나 오유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대학도 그렇지요. 아버지가 기쁘고 통신학부에 가게 해서 그렇지 만약 그때 저의 요구대로 주간대학엘 갔다면 나도 얼마든지 지금쯤은 아버지 손에 흠을 묻히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직껏 나한테 강요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이 철부지 순금이까지도 <무서운 할아버지> 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초소를 끝까지 지킨다는것이 결코 처음 서있던 자리에 끝까지 서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못나가셔서 잘 모를텐데 병사가 자기 초소를 잘 지킨다는것이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십니까? 명령을 잘 집행하는것이지요. 그러나 그 명령이 어느 병사에게 차례지는가 하는것은 지휘관에게 달려있답니다.

아버지는 이고장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송별식사까지 차려주며 고향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발전해서 올라갈 경우가 생기면 마치 큰 <반동> 이라도 되는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리해할수 없구만요. 아버지, 자기가 빛이 나게 살지 못하였으면 자식이 빛이 나게 살려는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얼굴색이 류달리 붉어진 오진백은 아버지가 편지 한장을 두고 피로와하는것이 공연한 생각임을 납득할수 있게 설명한셈이다. 그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생일 일흔뽕이 다 된 아버지가 이제 다시는 인생의 실책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질책이었다.

오유삼은 자기가 불이 꺼진 담배가치를 그냥 쥐고있다는것을 의식조차 못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불의에 대결하는것을 처음 보게 되자 겁에 질려서 편지를 두사람사이에 내려놓고 어느새 부엌으로 몸을 사리고말았다. 자기의 론리가 부족할 때면 언성을 높이는것으로 맞서는 성미인 오유삼은 오늘은 어쩐지 그 습성마저 잃어버린듯 단침만 몇번 삼킬뿐이었다.

《네 생각이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그 편질네 손으로 부쳐라. 그러나 그 편지에 아버지란 말들은 모두 뽑아라! 오늘은 이만하자.》

오유삼은 옷방으로 올라가 미닫이문을 쭈르르 닫아버리었다.

옷방에는 그 혼자만이였다. 오유삼은 괴롭다가 보다 서글프고 쓸쓸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외로움도 들었다.

부엌에서는 썩썩썩 갑자기 서늘어진 며느리의 무우 썬 소리가 들려온다.

그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 장가든지 9년만에 아들을 보았고 그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온 뒤 마누라가 세상을 떠나갔다. 저 아들을 위해 랑주가 얼마나 많은 꿈을 들었던가. 다른 집들에서는 여러 자식이라 적당히 키웠지만 그의 집에서는 옷을 입혀도 밥을 먹여도 모든것을 골라가며 의식적으로 가꾸었다. 정말 귀동자를 키운 부모의 공수로 말한다면 삼간 기와집을 열채도 더 지을 품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아들들중에서 제일 훌륭한 아들로 되는것이 소원이였다. 아니 오유삼은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여직껏 자부해왔다.

아들은 군대에서 돌아와 농장에 밭을 불이였고 당에서 그렇듯 중요시하는 교육체계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통신을 나왔으며 일을 잘한다고 농장총회의때 주석단에도 올랐다.

일을 결싸게 하고 연설도 잘하여 처녀들은 또 얼마나 많이 따랐던가. 농장을 위한 설계들도 많이 그러서 그의 노력과 지혜의 결실로 이루어진 창조물도 한두개가 아니다.

그중에서도 작년 가을에는 저 앞시내에 제방뚝을 쌓은것만 보아도 그렇다. 아들은 이 아버지가 평양견학을 간 스무날사이에 마을사람들을 발동하여 단숨에 쌓아놓지 않았던가.

이것은 오유삼이 작업반장을 하는 26년동안 마음속 생각은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한것이였었다.

그는 자기가 썼던 초소에 아들을 세웠으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훌륭히 이어나간다는것으로 하여 아버지된 의무를 다한 사람으로 치부하여왔고

자기 동년배들중에서 제일 떼떈하게 삶을 빗내인 사람으로 궁지로왔다.

그러나 그 모든 자부심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내리게 될줄은 미처 생각도 짐작도 하지 못했었다.

오유삼은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인생의 과오를 저질렀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이것은 당앞에, 조국앞에 사죄해야 할 중대사였다.

그는 불을 켜고 종이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손녀의 필갑에서 원주필을 꺼내들었다.

《책임비서동지에게!-》

그는 아득한 전화의 날 방공호에서 침략자들이 《신공세》를 퍼려는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가 당원들에게 보낸 결사전을 호소하는 편지를 접수토 의하는 세포총회에 내놓을 그 결정서초안을 쓰던 때처럼 입술을 사려물고 한자 또 한자 새겨갔다.

《...저는 죄를 지은 당원이올시다. 아들을 제 자리에 세운것으로 자기의 의무를 다한것처럼 책임비서동지에게 말씀드린건 이제 보면 거짓말이였고 빈 소리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섰던 자리에 세운것을 두고 자랑스레 얘기한건 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

오유삼은 여기까지밖에 더 쓸수가 없었다.

갑자기 밤하늘에서 집을 통채로 무너뜨릴듯한 우뢰소리가 울렸다.

번쩍 창가를 밝히며 번개불도 일었다.

오유삼은 어련애처럼 놀랐고 겁이 났다.

비바람에 모든것이 다 무너지고 흐트러질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전에는 언제나 든든한 마음만이던 그는 자기의 가슴이 왜 이렇게 얇아졌는가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채 옷을 서둘러 꿰고 밖으로 나갔다.

밤소나기가 소리치며 쏟아지고있었다.

그는 문득 아들이 쌓은 그 제방둑이 걱정되어 농뿔모와 비옷을 찾아 걸쳤다.

포전도 다락밭도 그리고 작업반 축사도 다 어떻게 되는듯하여 어디로 먼저 갈지 망설이다가 그는 방둑길에 접어들었다.

번덕스러운 소나기는 어느새 멎어버렸지만 그는 방둑우에 그냥 서있었다. 새로 쌓은 이 방둑엔 아직 풀이 무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탁류는 폭과 감히 견줄수 없었다.

오유삼은 방둑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 시적시적 걸었다. 비가 몇자 풀벌레들이 좋아서 귀따갑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아직 이고장 포전들에서 정당 10톤 수확을 내지 못하는데 나는 벌써 늙었구나. 세월은 왜 붙잡을수 없단 말인가.

마누라가 떠난 뒤에는 어느 독신녀성도 나에게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의논하자는것은 물론 따듯한

미소조차 보내지 않고있지 않는가. 여기에도 나의 오유가 있다.

그는 서글퍼졌다. 방둑길의 끝에서 끝까지 오가며 이어가는 그의 생각은 참으로 끝이 없을상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던지 자기를 부르는 머느리의 목소리가 이쪽저쪽에서 울렸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결에는 아들의 모습도 어슴푸레 보였다.

《아버님, 여기 계신걸...》

머느리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아버님, 어서 들어가시자요. 날이 밝기 시작할거예요.》

《어서 들어가거라. 난 여기가 더 좋다. 잠이야 낮에 자두 되는건데...》

그것은 머느리를 돌려세우기에는 충분한 대답이였다.

그러나 아들은 그냥 서있었다.

《넌 왜 들어가지 않나?》

《저두 아버지와 함께 있고싶습니다.》

《함께? 그건 왜?》

《...》

《...》

《아버지, 이 보퉁이 걱정돼서 그러지요? 아버지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다. 폭은 넘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걸 네가 어떻게 보증할수 있느냐?》

《전 자기가 한 일을 직분상으로도 책임질수 있습니다.》

《책임...? 언제까지...? 여기에 있는동안만...?》

《...!》

《여긴 네 설자리가 아니다.》

그 말에 오진백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도 섭섭해하시면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젠 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는데...》

《뭐? 편질 안보내? 공연한 소릴... 넌 편지를 보내야 하고 또 바라는덴 가야 한다.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 사는게 아니야!》

《...》

《난 네 말처럼 인생의 실책이 많은 사람이다. 남들이 나더러 자식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혈육을 가져다 키우라는걸 난 거절했지.》

자기의 피줄이 있어야 자기의 뜻을 따를수 있다고 생각했거던. 그것도 나의 잘못이였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자기 자식으로 키우는것을 생각해두 난 실책했지.》

난 오늘 내가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 작업반장으로 있을 때 해놓은 그것들이 속빈 허물이 아닌가를 꼼꼼히 파헤쳐봐야겠다.

그래서 잘못된것은 자기 손으로 끝까지 깨끗하게 해놓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또 한가지 내가 네한테 말하고싶은건... 나에겐 혈육은 있어도 아들은 없는셈이다. 그러니 나의 뜻대로 먼 앞날까지 이 땅의 모든것을 만년대계로 가꾸어가자면 나는 내 마지막순간까지 일을 직심스레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오유삼은 거침없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고 아들의 대답도 반응도 들어볼 여유없이 돌아서서 보폭길을 걸어나갔다.

그는 정말로 자기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며 자기의 손으로 성실하게 이 땅을 가꾸어야겠다고 생각을 굳히었다.

아침끼니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선 오유삼은 비로소 자기가 간밤에 무슨 일을 하다가 미쳐 끝내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쓰던 편지지?》

《음, 그래?》

《빨리 마저 쓰라요. 내가 학교 가던 길에 부칠테니...》

손녀 순금은 그 편지에 깃든 사연을 모르고 재촉이다.

《음, 이건 후에 보내두 되는 편지다. 어서 학교 가져라. 늦겠다.》

오유삼은 조잘거리는 손녀의 등을 가볍게 밀어 떠나보내었다.

순금이가 깃듯이 인사를 하고 쪼르르 집에서 빠져나간 다음 세 식구는 함께 조반을 치르었다. 처음으로 침묵속에 진행되는 아침식사였다.

오유삼은 몇술밖에 뜨고싶지 않았지만 머느리의 걱정이 따를가봐 전에없이 많은 량을 축내었다.

그리고 잠간 나갔다 온다면서 안심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는 자기가 다루고 가꾸던 작업반의 포전들을 돌아보고싶었다.

땀이 스민 옥토포전들은 간밤에 쏟아진 소나기로 하여 더욱 푸르싱싱했다.

그는 보폭이며 포전이며 곡식들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았다.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이 깃든 이 포전들마다에서 견어들에게 될 열매들이 숙빈 쪽정이가 아닐가 하는 위구가 없지 않았다.

이 봄이 아닌 아득한 그 옛 봄에 이 땅에 허위와 가면의 씨앗을 뿌린적은 없었던가.

사람은 떠나간 다음에 그에 대해 옳은 평가를 내릴수 있고 창조물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진가를 알수 있다는 옛 사람들의 말의 마디마디를 새롭게 음미하기도 하였다.

보고싶던 곳곳을 다 돌아보고나서 그는 리당비서를 찾아 걸음을 옮기었다.

작업반장일을 그만둔후로는 리당비서가 그를 찾아온적은 있었어도 오유삼이 당비서를 찾아간 경우는 처음되는 일이다.

아직 선도 못된 젊은 리당비서는 자전거를 타고 파수반쪽으로 가다가 오유삼이와 마주쳤다.

《아니, 아버지 어딜 가십니까?》

자전거에서 내리며 리당비서는 터쳐놓았던 저고리 단추까지 채웠다.

레절이 밝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는것으로 소문이 난 상고머리 리당비서는 대뜸 《어디 편치 않으신가요?》하고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 난 비서어른을 찾아가던 길일세.》

《그래요! 그럼 어서 리당사무실로 가십시다.》

《아니, 사무실까지야 뭘... 여기서 이야기해두 돼... 그저 꼭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네!》

《무슨 부탁인데요?》

《글쎄 들어주겠나? 꼭 들어줘야 하네. 날 원로력으로 다시 받아주게!》

《원로력으로요?》

너무도 뜻밖의 제기를 받은 리당비서는 류달리 큰눈을 더 크게 떴다.

《난 다시 원로력이 돼야 하네. 아직 할 일이 있거던...》

오유삼은 손녀가 잠자리를 잡아달라고 조를 때처럼 애원을 담아 간청했다.

《아니, 지금 로인분조일을 보시는것두 아드님과 머느리가 그만두게 해달라구 만날 때마다 다짐받곤 하는데...》

《비서어른, 내 솔직히 말하네만 난 여적 당생활을 톱톡히 하지 못하였네. 당원구실을 하려면 멀었어.》

오유삼은 마치 한생의 당생활총화를 짓는 사람처럼 심중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게있게 울려했던지 리당비서는 벌리고섰던 다리를 모두기까지 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난 자식이 하나뿐이지. 난 그녀석을 열맞잡이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보니 텅 빈 늪이 아니겠나. 차라리 그녀석이 내 피줄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다 드네.》

《아버님, 좀 차근차근 말씀하셔야지 난 무슨 말인지 통 알수 없는데요.》

《글쎄 비서도 잘못봤지. 그녀석은 가짜야.》

《아버님, 무슨 오해같은데요. 갑시다. 진백동물같이 가서 만나봅시다. 난 그 동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리당비서는 오유삼의 자기비판이 곧 자기의 한당원에 대한 뜻밖의 비판일뿐아니라 리당비서의 사업전체에 대한 충고가 담겨져있다는것을 은근히 의식하면서 제먼저 자전거를 앞으로 밀었다.

상고머리 리당비서와 농장의 오랜 로당원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그럴수가 없는데...》

리당비서는 발걸음 맞추기 힘들어하는 오유삼을 위해 애써 걸음속도를 늦추며 몇번이나 중얼거렸다.

두사람이 4 작업반 구역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일시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넓게 펼쳐진 논판에서 농약분무기를 진 오진백이 팔소매와 바지가랭이를 부쩍 걷어올리고 한손으로는 농약을 분무하고 다른 손으로는 김을 잡으면서 두사람일을 하고있었다.

《저게 진백동무가 아닙니까?》

《그녀석같은...》

리당비서는 오유삼을 뒤에 떨구며 성급하게 포전쪽으로 앞서 다그쳐갔다.

《기술지도원동무!》

포전머리에서 리당비서가 큰소리를 쳐서야 오진백은 고개를 들었다.

싱싱한 팔다리는 물론 땀흐르는 얼굴까지도 이 고장 흙빛과 같이 구리색이 흐르는 오진백의 모습에선 진짜배기 농군에게서만 느낄수 있는 그런 체취가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동지, 어떻게 여기루?...》

《그래 오늘은 동무와 함께 일하려고 왔소. 그런데 기술지도원동무는 당장 어디로 떠날 사람처럼 덤벼치는것 같구만...》

갑자기 오진백은 눈길을 떨구며 변명인지 반박인지 분명치 않게 대답했다.

《전 본래 성미가 별래서... 가기가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다른고장에 가서 하루밤만 지내도 어서 오고싶은곳이 여긴데요.》

더듬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풀기가 없어진듯했다. 정말 논김을 같이 땀 심산으로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자전거를 뒤에 올려세우는 리당비서결에 뒤미처 다가선 오유삼은 결에서만 들을수 있게 나직이 속삭였다.

《정말 예서 일하러우?》

《그러문요. 저런 진짜배기 농군하구 또 하루 힘내기를 해보렵니다.》

《그럼 난 우리 로인분조로 가겠네. 그런데 내가 부탁하는걸 꼭 잊지 말게나. 난 래일 오후부터 일나갈테니 ...》

《알겠습니다.》

...

다음날부터 오유삼은 아침나절만 일하는 로인분조일을 끝낸뒤엔 점심을 먹고 작업반 방쪽으로 삼을 메고 나가곤하였다.

뚝은 일매지지 못하는데도 있고 물에 패운곳도 적지 않아 손질가야 할데가 많았다.

그는 흙을 퍼서 덧붙여 매끈하게 공구기도 하고 돌을 채운다을 흙매질을 하기도 하였다.

여러문삽 뜨고 한참씩 헐떡거리는 그의 삽질썩씨는 굵뜨기는 하지만 아직 젊은 시절의 본새가 뚜렷이 느껴졌다.

그가 이 일을 자진하여 선택한것은 뚝이 걱정되여서도 그러했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말년 행실에 대한 속죄때문이었고 뒤늦은 보상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로인분조의 주근깨백이 콕치수령감 병문안 갔다가 그를 위안한다면서 서늘한 오동나무 그늘밑에 멍석을 펴놓고 해질녘까지 장기를 두다가 손녀애의 부름을 받고서야 저녁때인줄 알고 일어섰던적이 있었고 썸골 영예군인처녀에게 장가든 덕칠령감의 아들 결혼식을 축하해준다면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고 곱새춤까지 추어서 소문까지 내지 않았던가.

이런것을 본 사람이면 누구든 충분히 남은 여생을 호강스레 보내고싶어한다고 짐작할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결국 아들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허울을 씌운것은 이 애비된 사람의 마지막 생활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오유삼은 자신의 이 자책때문에 누구의 만류도 귀담아들을수가 없었고 뒤에서 아들이 바라보곤하는것을 느끼면서도 알은체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러한 태도는 아들 오진백에게 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다. 오진백은 아버지의 일모습을 이따금 지켜보면서 논김을 함께 매던 날 리당비서가 해준 말이 자꾸 생각되었다.

《이전에 아버지 이고장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텔레비죤이나 신문에 이름이 났을 때면 그날로 달려와 농사를 더 잘하자고, 그래야 그네들이 마음놓고 일할게 아닌가고 했지. 정말 언제나 우리 발밑에 있는 흙과 같은 마음이고 말없는 두엄처럼 살려는 심정이지. 모두가 그 흙, 그 두엄에 뿌리내려 열매 맺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아버지 비록 훈장은 몇개 안되지만 이고장의 첫째가는 위훈자라고들 하지. 아버지 진짜 인간이지. 아버지 동무한테서 바로 그런 진짜를 바라는거야.》

그 말속에는 아버지된 사람의 의무뿐만아니라 아들된 사람의 의무에 대한 숭고한 요구가 담겨져있음을 그는 며칠째 폐부로 절감하고있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면 아들 역시 훌륭해야 하고 아버지의 의무로 되는것이라면 그것은 아들의 의무로도 되여야 한다는 철리! 그것은 알고보면 너무도 명백하고 정당한 리치가 아닌가!

이런 사색속에 오진백은 아버지가 동뚝을 손질하며 오가는것을 볼 때면 자꾸만 가슴에 가책되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이 뚝을 쌓을 때 만년대계로 하려면 뚝속중심에 진흙을 다져넣고 쌓아야 한다는 책에 쓰여진 그 요구대로 해나가다가 버드나무 선 대목에서는 그렇게 시공하지 못한것이였다. 어서 빨리 이뚝을 쌓아 완성하고싶은 마음이 앞섰던 그때의 오진백이였다.

어쩐지 아버지가 자기가 읽은 관개공사에 관한 책에 붉은 줄을 그어놓은 그 대목을 읽고 그것이

걱정되어 런 나흘째 동쪽길에서 떠날줄 모르는것같아 마주보기도, 말을 건네기도 급했고 바늘방석에 앉은것만 같았다.

이튿날 저녁 오진백은 개울물에 들어서서 돌을 취율리는 아버지 앞쪽의 동쪽우에 삼을 들고 우뚝 올라섰다. 그리고 말없이 동쪽 중심흙을 듬뿍 파서 었었다. 그것을 보자 오유삼은 깜짝 놀랐다.

《이녀석,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

《뚝을 어찌자는거냐. 나한테 말로 해라. 뽕풀이로 동쪽을 아예 없앨 작정이냐?》

오유삼은 아들이 실성한줄 알고 가슴이 후둑후둑 뛰기까지 하였다.

《아버지, 이 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큰 홍수만 지면 이 대목은 못건딕니다.》

《뭐?... 못건더... ?》

《그렇습니다. 이 대여섯발쭙은 진흙을 넣고 다시 쌓아야 마음을 놓을수 있습니다.》

그제야 오유삼은 아들이 무엇을 결심하였으며 아버지에게 무슨 뜻을 밝히려 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뚝우에 높이 선 아들의 모습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질은 눈썹, 억센 주걱턱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 그것은 자기가 거울앞에서 보곤하던 젊었을 때의 자기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 다시 쌓자! 생활에서의 실책은 실천으로 씻어야 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뜻있는 눈길로 서로 마주 바라보았다. 그들 두사람의 이 모습을 붉은 저녁하늘만이 빙그레 웃는듯이 내려다보고있었다.

×

며칠후 리당위원회에서는 로인분조장 오유삼을 4 작업반 고문으로 임명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한달후에는 검암리동쪽의 중심 한토막에 속을 찢고 진흙다짐을 든든하게 해넣는 보수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그 공사가 끝난 때로부터 두달후에 그토록 이고장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던 오유삼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눈을 감는 마지막순간에 아들을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며 《내 아들이!》하고 입속말로 조용히 중얼거리었다.

《아버지, 불효한 이 아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그 집에서 그때처럼 누워있는 오유삼은 입가에 갇난애기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미소를 띄우는것으로 대답하였다.

마치 그는 자기의 의무를 다한 아버지들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밝은 웃음을 지어보려고 그리도 애쓰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저녁하늘도 그날은 환히 띄어있었다.

가사

초소에 효성화 피었네

김형범

친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신 초소에
향기가득 풍기며 효성화 피었네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그 영상 우러러 그리는 마음
아-꽃속에 어려있네

동무들이 초소를 지켜섰기에
조국은 번영한다 말씀하셨네
다정하게 손잡고 반기여주시던

그날의 그 미소 꽃속에 안겨오네
아-꽃속에 안겨오네

그이를 보위하여 한목숨 바쳐갈
변치 않을 충효일심 꽃속에 비꼈네
비바람 세차도 변함이 없이
병사의 한마음 꽃으로 피리라
아-꽃으로 피리라

명제해설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은 인간관계, 갈등, 이야기줄거리를 모두 생명유기체와 같은 산 형상에 고유한 생활의 흐름에 맞게 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김 정 일

구성은 인간과 생활을 재미있고 뜻깊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의 명제에서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주시었다.

구성을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엮는다는것은 인물관계를 조직하고 심화시키며 갈등과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데서 생명유기체와 같은 산 형상이 펼쳐지도록 짜나간다는것이다.

생리는 유기체가 존재하고 활동하게 하는 합법칙적인 리치이다. 생리는 생명체에 고유하다.

문학예술작품은 그자체가 생명체는 아니다. 그러나 문학작품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의 글들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데 비하여 개성적인 형상, 생동한 형상을 창조한다. 같은 사회정치적, 역사적사건을 다루어도 문학작품은 산인간의 체험과정을 따라 펼쳐져 생동한 숨결과 정서를 느끼게 한다. 예술적형상은 무엇보다도 정서적인 화폭이다. 식물학사전에 꽃들의 모양과 특성이 상세히 서술되어있지만 구체성만으로 예술적형상이 이루어질수 없다. 산인간의 체험과 정서를 떠나서는 예술적형상으로 될수 없다. 문학은 인간의 숨결과 정서가 흐르는 생활을 펼쳐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과 생활들이 하나의 감정조직과정으로 밀착되어 생명유기체와 같은 산 형상을 창조한다.

문학작품이 하나의 생명유기체로 되어야 하는 데로부터 창작에서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의도가 형상의 요소를 싹틔워주는 종자로 탐구발견되어야 하고 화폭의 중심을 이룰 인간성격도 현실에서와 같이 살아숨쉬는 자체의 고유한 생리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예술형상의 생리는 종자나 성격에만이 아니라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구성은 곧 작품의 내용을 이루는 인물과 그들의 생활의 조직이기때문에 구성을 떠나 종자와 주제사상이 밝혀질수 없고 성격장성과정, 이야기의 발전과정을 보여줄수 없는것이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물과 사건, 생활일화와 세부들을 모두 하나의 생동한 이야기로 엮자면 반드시 작품을 산 유기체로 만드는 예술형상의 생리가 제기되는것이다.

예술형상의 생리는 일정한 논리적바탕을 가진다. 논리를 떠난 생리란 있을수 없다.

문학작품의 구성에서 논리는 형태상특성에 따르며 작품의 종자와 그에 담게 될 인간생활의 특성에도 관계된다.

구성조직에서 나서는 예술형상의 생리는 형태상특성에 따른다.

문학형태는 형상을 담는 그릇이다. 구성은 다양한 내용들로 일정한 체모를 갖추어주는 과정, 형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문학형태마다 자기의 구성원리가 있기마련이다. 소설과 시의 구성이 다르고 같은 소설이라 하여도 벽소설과 단편소설, 중편소설과 장편소설의 구성이 다른것이다.

벽소설과 단편소설을 비교해볼 때 둘은 중장편에 비하여 성격발전의 한 계기를 표현하는데서는 공통적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원리는 다르다.

단편소설은 일정한 폭을 가진 생활속에서 웅크려 하나의 전개된 이야기를 통하여 성격발전의 한 계기를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벽소설은 극적으로 야기된 하나의 생활이야기속에서 훨씬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구성을 위한 예술형상의 생리는 작품의 종자와 관계된다. 종자는 작품의 내용을 꾸리고 형식의 요소를 내용에 맞게 통일시키는 기초이다. 예술적형상의 생리는 무엇보다도 종자속에 배태되어있다. 이로부터 종자의 요구에 가장 알맞는 형식은 하나뿐이라고 하는것이다. 작가는 종자를 포착할 때 그가 안고있는 예술형상의 생리를 구성을 통하여서도 원만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구성을 위한 예술형상의 생리는 작품에 담겨질 인간생활의 특성에도 관계된다.

작품마다 서로 다른 인간생활을 취급하므로 그에 작용하는 논리도 서로 달라진다. 인간생활의 논리는 일정한 집단, 시대, 환경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적합법칙성과 개별적인 대상에 고유한 합법칙성으로 나누어진다. 문학작품의 구성은 반드시 생활과 성격의 논리를 따라 펼쳐질 때 산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이처럼 구성을 형상생리에 맞춘다는것은 결국 작품이 담고있는 구체적인 생활의 요구에 튼튼히 발을 붙이게 하는것이다.

작가의 주관에서 벗어나 예술형상의 생리에 맞게 빈틈없이 엮여진 구성은 어느 한 요소라도 들어내거나 바꾸어넣을수 없게 유기적으로 튼튼히 맞물려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는 구성을 예술형상생리에 맞게 엮을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작품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약 값

림종엽

얼마전 나는 파지를 수매하려고 집안의 휴지통을 들추다가 약봉지 세계를 발견하였다. 하루동안 감기를 앓던 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필요없는 물건으로 빈 봉지들과 함께 휴지통에 넣은 모양이었다.

약봉지 세계... 처방대로 말한다면 하루분량의 적은 량이다. 하지만 나는 손바닥에 그것을 올려놓고 오래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무상치료제의 고마운 혜택속에서 병근심을 모르고사는 아들이지만 이럴수가 있는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범상히 스쳐버릴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는 물론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 약값은 고사하고 진찰비조차 없어 병원문앞에 가보지도 못한채 죽어가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지난날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 아버지는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짧은 나이에 위병으로 사망했고 그 다음해에는 어린 동생이 죽었다.

그때에는 홍역을 비롯한 전염병이 돌면 동리마다 무리죽음이 나군하였다. 병이 생기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었던것이다.

(이녀석, 단단히 일러줘야지. 약 귀한줄 모르고 약값이 얼마인지 모르니 이런 행동을 할수밖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버르던 나는 그 어떤 충격에 몸을 흠칠하였다.

그렇다면 50 고개를 넘게 살아온 나 자신도 약값이 얼마인지 알고있는가?

약값!

이렇게 되새겨보니 지금껏 나부터 그 약을 생산하는데 투하된 로력과 그 진행공정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

더구나 얼굴이 뜨거워지는것은 약 한가지, 한봉지마다에 깃들어있는 당과 수령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가슴깊이 헤아려보지 못한것이다. 은혜로운 해빛아래 새 삶을 누리면서 알고받은 혜택보다 모르고받은 혜택이 너무도 많은 나였다.

어찌 나와 아들의 경우뿐이라! 60 청춘, 90 환갑을 노래하며 세상에 부러움없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모두의 경우가 그러할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 바쳐

오신 심려와 불면불휴의 노력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하신 사랑의 자욱이었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려약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더 많은 고려약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 건설 초기기에 어느 전람회 의학관 약초표본실을 찾으시여 우리 나라의 흔한 야생약초들에 대한 조사사업과 함께 연구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여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화학약재추세여서 우리 의학부문 일군들은 고려약에 대한 연구사업을 내밀지 못하고있었다. 천리혜안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적인 고려약탐구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심으로 해서 오늘 고려약추세로 되고있는 현실의 맨 앞장에 우리 나라 약품이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료부문에 고려약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벌써 오래전에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 도처에 이미 마련된 고려약기지들을 더 보강하고 약초채배를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온 나라의 산과 들을 효능높은 약재로 뒤덮이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 몸소 다녀가신 약초시험장과 약초원들, 사슴목장과 제약공장들... 헤아릴수 없는 현지지도의 낮과 밤을 이어 오늘 이렇듯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사회주의락원이 펼쳐진것이다.

나는 그날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휴지통에 들어갔던 고려약봉지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약에 깃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과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아는 것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하였다.

아들은 행복을 누리는데만 습관되고 귀한것을 모르고 살아온 자신을 뉘우치며 흔한 약일수록 그 가치를 크게 알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치겠노라 결의를 다지었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끝없는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차례지는 하나하나의 약봉지들에는 돈으로 셀수 없이 소중한고도 고귀한 인간만세의 철학이 있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약값은 누구나 모를수 있다. 그러나 한방울의 물에

도 온 우주가 비킨다고 약봉지 하나를 사용해도 고
마운 이 체도를 가슴뜨겁게 느끼고 실속있는 보답
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다듬는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밤은 깊어가도 아들은 그 약봉지 세개를 놓고
움직일줄 몰랐다. 그날은 온 식구가 잠처럼 잠을 이
룰수가 없었다.

어머니 모습

동명일

그 누구의 책갈피속에서 나왔는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웃는 사진을 놓고
불같은 이야기 터놓는 학급동무들
어머니 자랑이야기엔 양보를 모르는구나

우리 어머니 노래를 잘 불렀다고
우리 집엔 두툼한 가족사진첩 세권이나 있다고
어머니 자랑에 승벽을 올릴 때면
나에게도 추억을 불러주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더라

어릴적엔 나도 얼마나
어머니와 나란히 걷고싶었던가
어머니와 사진 찍기를 즐겨했던가

그러나 많지 못했어라
응석받이 막내보다 더 귀여운이 있는듯
늘쌍 비어있던 가정의 어머니자리여서
휴식일도 별로 없이
밤도 따로 없이
탁상등아래 교수안을 펼치던
어머니 모습이어서

아이들을 책임진 큰 학교의 교장보다
이 막내의 응석을 즐겁게 받아주는
어머니 모습이 더 그리웠노라
그래서 남들이 어머니 사진 펼칠 때면
이 어린 가슴에 야속하던
어머니 모습

허나 단발머리 날리던 처녀시절부터
40 여년 교단을 지켜선
어머니의 그 모습 영원토록
내 가슴에 새겨진 날이 있었거니

어머니의 모습 새롭던 그날은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동지
어머니 학교에 찾아오시여
손수 대의원투표함에 찬성의 한표를 넣어주시며
변함없이 당을 받든 로당원이라고
이런 동무들 있어 조국이 강한것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고무해주시던
10 월의 가을날이었어라

그이와 함께 찍은 어머니 모습
세대를 이어갈 가보로 집안에 모시던 날
투정질하던 소년시절은 그자리에 멈춰섰어라
심장이 뜨겁던 그 시각에
나는 철이 들었어라

누구나 다 줄수 있는 어머니 모습이던가
열매 따듯 쉽게 얻는 어머니의 사랑이던가
머리에 백발을 엮는 먼 후날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어머니 모습

오늘도 이 가슴 올려주는구나
가야 할 삶의 먼 길에
순간이라도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그런 시각 끼여들세라
삶의 걸음새 이끌어주는 어머니 사진이여

아, 어머니 자랑이야기 할 때면
나도 긍지높이 말하노라
우리 집엔 친애하는 그이와 함께 찍은
어머니의 사진이 있다고
어머니의 그 모습 심장에 새긴
이 아들의 맹세도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사랑하는 나의 수도여 외 1 편

송재하

탓하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나의 수도여
초소로 떠나는 이 시각
잘 있으라는
이 아들의 말 한마디도 없다고

날 바래워주는듯
은빛모래 펼쳐진 반월도우로
희디흰 비둘기떼 무리져 날아도
섬섬해 말아다오
작별의 손 흔들지 않는다고

해빛이 웃는 문수거리창가의
한떨기 향기로운 꽃송이
붉은넥타이를 날리며
《옥류교》를 넘나드는 아이들
대동강 맑은 물결우에
노래실고 떠가는 유람선...

아 어제까지만 하여도
손에 책가방을 들고
무심히 보아오던 그 모든것
군복입은 병사의 이 가슴에
더없이 소중한
더없이 귀중하게 안겨와

살맹이를 따려 툴아오르던
저 청류벽의 한그루 나무도
너의 모습으로 간직됐노라
향오동나무 곱게 드리운
청년공원의 하늘색 수지의자도

동무들과 함께 승엄히 오르던
전승기념관의 대리석층계도...

이제 폭양이 쉽없이 내려쬐이는
강행군의 나날이면
저 보통강반의 푸르른 수양버들
이 가슴에 흐느적이며 드리우고
추위 땀땀 전초선의 밤이면
저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
못잊을 학창시절 불러주리니

수도여 너를 떠나
순간이나마 살수 있으랴
이 땅의 어느 한끝
이름모를 섬초소에 간대도
너는 이 가슴에 살아 고동치리라

하기에 내 천길 벼랑끝이라도
너의 향기 풍기며
한떨기 호함진 꽃으로 피리라
불길만리 폭풍만리라도
수도여 너와 함께
내 앞장서 달려가리라

아 사랑하는 나의 수도여
심장과 심장이 합쳐진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떼어놓을수 없거니
너와의 작별이란 있을수 없으리라
조국에 바친 뜨거운 사랑으로
너와 나의 심장
언제나 하나되어 불타오르기에-

평양의 아들이라고

땀 젖은 어깨우에
총과 배낭을 메고 달려야 하는
힘겨운 행군길에 지쳐
잠시나마 주저앉는다면
수도여 나를 꾸짖어다오

새벽녘 울리는 비상소집나팔소리에
채 뜨지 못한 눈을 비비며
신발끈도 제대로 매지 못해
대오의 맨 마지막자릴 차지한다면
수도여 나를 매질해다오

나는 대동강 맑은 물을
어머니의 젖처럼 달게 마시며
뼈를 굳힌 너의 아들
전승기념관의 총계를 오르며
걸음새를 익힌 너의 아들

잠시나마 이것을 잊는다면
나의 눈빛은
그 순간에 흐려지고
한점 두점
가슴속엔 치욕의 먼지 앉으리니

때없이 깨우쳐다오 수도여
붉은기 날리는
당중앙청사 가까이에서
아들아 너는
젊음을 맞이한 세대라고

그러면 불비속을 헤쳐도

대오의 맨 앞장에 서서
기발되어 나뭇기고
총탄이 가슴으로 날아와도
한결음도 멈추지 않으리니

수도여 언제나 속삭여다오
너는 평양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모습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군상들앞에서-

전복순

포연에 끄슬리고
총탄에 찢긴 옷자락이
그날의 준엄한 결사전을 다 말하는
조국의 고지와 바다...
그날의 후방과 전선이
여기 다 있어

내 송엄히
40 여년전 그날의 병사들
내 태어나기도전에 이 땅을 수호한
영웅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누구는 아버지같아
누구는 오빠같아
낯선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
이름조차
다 알지 못해도

그러나 내 너무도 잘 아노라
내 생활의 매 순간마다
이 심장에 익혔던 그들이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책을 퍼들면 책에서
전설속의 장수들처럼 그랬던
그 모습들이어서,

저기 저 화점을 향해 달려가는
저 애젊은 분대장은
영웅 리수복이 아닌가
저기 불뿔은 해안포결의 처녀병사는
월미도의 영육이가 아닌가

중기의 압철을 턱으로 누르는

저 병사는 조군실영웅
팔다리가 부상당한 몸으로
수류탄을 입에 물고 나가는
저 병사는 강호영영웅

하나같이
순간에 이름이 떠오르는 영웅들이다
그들처럼 살리라고 내 자주
교정에서 일터에서 외워보던
그들의 산 모습이 여기 있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세워주신
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여기에선 만날수 있구나
어느때든 내 눈으로 볼수 있구나
그렇듯 부럽던 영웅들의 모습
그렇게 살리라던 위훈의 순간을
책이나 영화도 아닌 산 모습으로

자기 한목숨 바쳐
조국을 지킨 병사는 죽지 않는다
영웅들의 삶은 이렇듯
영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라
후대들의 가슴에 빛나게 남아라

한시대에
함께 살아보지 않았어도
이렇듯 영웅들의 모습은
후대들의 선망어린 눈길앞에
영원히 낮설지 않으리

(평양종합인쇄공장 노동자)

로시인의 열도높은 정신생활을 들여다보게 하는 주옥같은 시편들

-박산운시집 《내가 사는 나라》에 올리는 심장의 목소리-

방연승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대오, 시인부대에는 다재다능한 시인들이 적지 않다.

시인 박산운은 우리 혁명의 2세에 속하는 로세대이다. 그는 고향을 남녘땅에 둔 전사로서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가슴을 단방에 쏘아맞히는 이름난 타격수, 저격수로 우리 시인부대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오늘도 패기와 정열에 넘쳐 활동하고있다. 최근에 출판된 《내가 사는 나라》는 그의 여덟번째 개인시집으로서 그것을 말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혁명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한 훌륭한 시를 더 많이 창작해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시인 박산운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한 시를 쓰기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는 로전사로 오늘도 우리의 전투서열에서 제대됨이 없이 백발의 청춘다운 투지와 기백에 넘쳐 전사의 본분을 다하고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번 시집에 수록된 극히 최근작부터 먼저 훑어보는것이 순서일것이다. 서정시들인 《해를 이고 살기에, 별을 이고살기에》, 리인모영웅을 노래한 시초, 시초《고향에 대한 민요시편들》, 《수경이가 쓴 책》, 서정서사시《10월의 불길》 등은 최근 한두해 사이에 쓴 작품들이다. 이 시편들을 읽어보면 70고희를 훨씬 넘긴 백발이 성성한 시인의 높은 정신생활의 불꽃튀는 불도가니, 폭포치는 가락이 울리는 소용돌이를 그대로 들여다볼수 있다.

이번 시집《내가 사는 나라》를 읽으면서 제일 감명깊게 찾아볼수 있는 특징적인 면모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생을 즐기는 로인의 최잔한 모습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문제, 조국통일의 숙원을 안고 높은 요구성으로 일관된 정신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는것이다.

두보는 호기장구 5, 6년에
떠나온 집을 두고 가슴을 찢었건만
미군 강점 장장 45년
대동강반에서 보낸 내 나이 70 고희-

그러나 백발이 성성하다 하라
나는 더 늙지 않을것이다
나는 더 앓지도 않을것이다
내 얼굴 알아볼 마지막 사람인
아우의 나이가 환갑을 넘었음에

초목이 몇번을 더 시들고 변해도

내 눈은 언제나 맑게 빛나고

내 귀는 맑게 열려있을것이다

고향 뒀산에도 비쳐비쳐갈

해를 이고 살기에 별을 이고 살기에

살아서 통일렬차 타고 돌아가야 할

나를 기다리는 고향이 있기에-

(서정시 《해를 이고 살기에, 별을 이고 살기에》)

시인은 우리 공화국의 품, 당과 수령의 품에 안긴 이래 줄곧 풍치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을 떠나지 않고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에서 처자들과 행복하게 살며 생일 일흔뉘를 맞이했지만 결코 안일하게 살 자기가 아님을 투철하게 알고있을뿐아니라 여생의 하루하루를 참된 삶으로 가꾸어나가고있다.

그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과 위대한 백두광명성의 광망을 안고 남녘의 고향으로 찾아가고야말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열도높은 삶으로 창작을 이어가고있다.

시인이 조선민족의 영원한 삶의 모체인 우리 당과 우리 수령앞에 다하여야 할 도리, 남녘의 고향사람들에게 다하여야 할 책임감에 얼마나 투철한가 하는것은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영웅을 노래한 그의 시초에서 찾아볼수 있다.

시인은 시초의 《축배》에서 술하에 아들딸들과 손자들을 거느리고 함께 늙어온 안해와 나란히 앉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일흔뉘상을 받던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가 겪은 체험을 그대로 피력하고있다.

어느덧 너나없이 백발이 되고 더러는 앞머리가 벗어진 나이든 벗들은 잔을 쥘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늙어온 안해와 술하의 자손들이 보도록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상을 받은 크나큰 영광, 행복에 대하여, 많은 자손들에게 예뻐싸인 로년의 더없는 기쁨에 대하여 말하였던것이다. 화제는 그자리에 빠진 남녘에 사는 옛벗들에게 옮겨가기도 했다.

벗들과 즐겁게 담소하던 서정적주인공은 남녘에 두고온 벗들속에 있는 리인모로인을 본듯싶다고 하면서 다음같이 노래하였다.

서른네해... 길고도 모진 옥고를 치르며
불구가 된 한쪽다리
늙은 몸에 걸친 물들인 수인복
그러나 준엄한 시련을 파감히 헤쳐온

치켜들린 어깨...

그 어떤 고통도 그늘을 던질수 없었던
강의하고 로숙한 눈길에 미소를 지으며
정겹게 우리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렇다 환갑날도 일흔뉘살날도
남녘의 옥중에서 보낸 투사여
나는 당신이 부여준 축배도 들었다!
당신이 내민 잔도 쥘었다!
당신과도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긴세월 당신을 기다리고있는
당신의 안해와 딸이 살고있는 나라
당신이 심장의 피로 쓴 옥중시에 나오는
그지없이 아름답고 눈부신 《북쪽나라》

40 여년 그리움에 젖은 그 눈길에 와닿던
이 땅, 이 세상의 빛남을 지킨 당신이
하나인 조국의 이름으로 우리모두를 고무하며
철철 넘치게 부여준 잔을 나눈 들었다!

이 주정은 시인의 환상이 낳은 시형상이 아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이 베푸는 사람과 신임을 가슴뜨
거이 받아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토로할수 있는 진
정에 넘친 량심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성심, 의리와 도리를
량심으로 간직하지 않고서는 느낄수 없는 진실한
체협세계의 토로이다.

이 시세계는 우리 당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으로
내세워준 리인모로인이나 받을수 있는 배려임,
그 일흔뉘살의 진가를 아는 높은 의식성, 과분함과
송구함을 아는 뚫어넘치는 심장의 충격과 양양된
정신적불길만이 펼쳐보일수 있는 높이 승화된 경지
의것이다. 결단고 꾸며낼수 없는 진정한 소산이다.

이것은 자기가 누리는 행복의 진가를 알며 그것
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려는 도리와 량심, 높
은 사상과 지성,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높은 요구성
으로 일관된 정신생활을 목적의식적으로 영위해나
가는 전사만이 참된 삶을 진지하게 체험시키는 뜻
깊은 인생송가를 쓸수 있다는것을 말한다. 참으로
이 시초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의 기
둥으로 간직함으로써 34 년 옥중생활을 이겨내며
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신념과 의지의 화신 리
인모로인에게 자기를 비추어보면서 자기의 내면정
신생활을 의식적으로 가꾸어나가고있는 시인의 모
습을 그대로 감수하게 한다.

시초의 서정시 《그의 승리》에서 보는바와 같
이 시인이 《내리치는 몽둥이엔 깨여지기도 하는,
두개골이 감싸고있는 예민한 뇌수와 무쇠가 아닌
특골들이 보호하는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비전
향장기수로 참고 이겨낸 낮과 밤을 비교적 깊이 헤
아릴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것인가.

서정시 《그의 시》에서 확인할수 있는바와 같
이 자신의 경우 《빛나는 시를 쓰기 위해 붓을 버
리다가》 《어느새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면》

혹 남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리인모로인의 옥중시
《봉화》와 《개나리》 그리고 《진달래의 마음》
을 읽은 다음에는 《그 빛나는 시를 위해》 《그 처
절한 죽음의 막바지에서》 《기적처럼 그가 살아남
았던것이라고》 《그 빛나는 시를 위해》 《그 무서
운 서른네해를 아니》 《파란만장의 일흔다섯해를
고스란히 바친것이 아니었던가고》 하며 리인모로
인에게 마땅한 시를 찾기 어려움을 고백하며 이미
자기 머리에 인 백발을 한탄했다는 량심을 토로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서정시 《영원한 종군기자》에서 보는바와 같이
리인모로인이 전한 비전향장기수들의 이야기에서
필승불패의 《우리 민족의 깊이깊은 정신적중심》
과 그 영원한 모체, 중심의 위대성을 가슴뜨겁게 읽
을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것인가?

그것은 시인이 마음속으로 비전향장기수 리인
모동지와 함께 살면서 그와 정신적대화할 나눌수
있을만큼 고도로 의식화된 정신생활을 영위해나가
고 있는데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모두가 고도로 긴장된
정신생활을 하며 헌신분투할 때이다. 세계평전체제
가 허물어진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말살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적인 책동을 다하고있다. 이런 준엄한 환
경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우리 혁명의 3
세, 4 세들이 우리 혁명의 1 세, 2 세들의 산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지키는 총폭탄이 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백방으로 강화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총진군속도》를 창조하면서 온 사회에 공
산주의미풍을 꽃피워나가고있는 우리의 장엄한 현
실은 우리 문학, 우리 작가들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 특히 혁명의 3 세, 4 세들이
우리 혁명의 1 세, 2 세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효
일심으로,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조선민족제일
주의정신으로 살며 혁명의 1 세, 2 세들의 본보기에
자신을 견주어보며 높은 정신생활을 가꾸며 혁명적
으로 일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사람들에게 좋
은 정신적량식을 주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혁명적작
품들을 많이 쓸것을 요구하고있다. 이 요구를 구현
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리인모영웅을 노래한 좋은
시초를 내놓을수 있었던것은 시인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치신 시창작의 철리대로 심장
으로 시를 쓸수 있게 높은 요구성으로 관통된 정신
생활을 해나가는 참된 삶의 길을 진지하게 걸어나
가고있기때문이다. 시야말로 심장으로 체험된 진정
을 주정으로 뜻깊게 토로한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시인, 서정적주인공이 참된 삶을 가꾸어나가는 길
이야말로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는 훌륭한 시를 써
내는 가장 곧바르고 믿음직한 길이다.

시인이 높은 요구성으로 가꾸어나가는 성실한
정신생활은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서정
시 《안영애영웅》을 보면 그것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다.

혁명동지와 조국을 지쳐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친
 처녀간호원 안영애영웅이며
 그대가 남기고 간
 깨끗하고 귀중한 삶의 여백을
 내 딸과 손자들이 누리며 살고있구나
 나도 이토록 오래 살고있었구나

우리 당이 높이 내세워준 안영애영웅을 그리며 그와 정신적담화를 나누는 시인이 결구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선렬의 고귀한 피값을 알뿐아니라 그 앞에 부끄럼없도록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검토해보는 량심의 금선을 뜯는 시적여운으로 하여 시는 높은 요구성으로 가꾸어나가는 시인의 성실한 내면정신생활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성실한 정신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시인의 삶의 자세는 진정 어제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님을 그의 이번 시집 《내가 사는 나라》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시인은 언제나 고향사람들과, 남녘겨레들과 함께 살며 숨쉬고있다. 남녘겨레들의 자주성이 담보되는 조국통일의 성취를 떠나서 시인의 삶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는것을 시집은 말해주고있다. 그가 고향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시집의 《버드나무》편과 《내가 안고 사는 남녘고향》만 보아도 감명깊게 읽을수 있다.

시인의 정신생활을 지배하며 추동하는 지평점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민족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원수님의 품에 고향사람들, 남녘겨레들이 안기고야만한다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조국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시인은 살며 일하는 것이다. 그가 시를 쓰기 시작하고 원썬을 치는 타격수, 저격수로 된것은 그때문이다.

시인은 예리한 정론과 풍자의 총검으로 원썬들을 가차없이 치는 서정시들을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그것은 시인이 관문점에서 본 침략자에 대한 형상에서 잘 나타난다. 그 시형상은 분노에 치를 떨면서도 고도의 리성을 발휘하여 뎅소를 머금으며 붓이 아까워 비수를 들어 칼끝으로 유화안료를 듬뿍 묻혀 화판에다 매닥질하듯 문대가며 단숨에 그려낸 《칼끝화》라고 비유적으로 명명할수 있을것이다. 인류의 암종과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무지몽매와 악덕으로 빚어진 식인종그대로의 정체를 세계의 면전에서 일격에 발가낸 정론과 풍자의 번쩍이는 창검의 날카로움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민족의 모든 불행과 비극의 화근인 제국주의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더는 살수 없다는 투철한 자각과 멸적의 투지에 불씨를 더해주는 시인의 예리한 정론과 풍자는 짓밟히는 남녘고향을 안고사는 시인의 사랑과 증오의 발현이다. 시인의 마를줄 모르는 서정의 샘은 잇을수 없고 잇어서도 안되는 남녘의 고향과 련결되어있다.

시인은 남녘의 고향사람들과 고향산천을 사랑하는것만큼 원썬을 극도로 미워한다. 그는 남녘의 부모형제, 남녘겨레와 남녘땅을 사랑하는것만큼 원썬을 치는 총검을 휘두르는 타격수, 저격수시인으로 되여야 하였다. 《버드나무》시편들과 《내가 안고 사는 남녘고향》시편들을 보면 이 태력을 생활적으로 리해할수 있다.

일제침략자들의 억압과 약탈, 생사여탈권과 학살만행의 총칼, 징병과 징용의 멍에아래에서 학대받고 피흘리며 가난에 신음하는 고향의 버드나무아래에서 맨발 벗고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시인은 체비새끼처럼 입이 노란 자손들의 까만 눈알을 외면할수 없어 등집도 지고 늦그릇장사도 해보고 돌밭을 취 논으로 풀어부치고 살아온 고향집할아버지의 고역을 익히여야 하였다. (《집》) 그는 또한 가물거리는 호롱불밑에서 밤깊도록 무명천을 짜던 할머니의 시름겨운 물레소리와 처량한 풀벌레소리를 어린 몸의 맑은 피줄에 간직하여야 하였다. (《할머니》) 그는 추야장치는 다듬이소리, 할머니가 치고 어머니가 치고 다 큰 누나가 치는 다듬이소리를 들으면서 밝은 달같은 고운 누나의 모습이 시집가서 지지리 쪼들린 할머니나 어머니처럼 늙지 말고 가난과 고역에 시달리지 말기를 어른스레 밝은 달에 기원도 해보았고(《다듬이》) 고향의 여름나무들이 짙은 황토바닥에 한치한치 뿌리내리며 비를 기다리는 모습이 구원을 기다리는 고향사람들의 운명 그대로임을 가슴타들게 느끼기도 했다. (《여름나무들》)

고향의 아들딸들이 일제의 강제징집을 피해서 깊은 밤 바람같이 몸을 피하여 달아난것처럼 그도 어머니가 실을 낚아 밤을 도와 꾸며준 숨이불 한채를 지고 이역땅으로 흘러가야 했고 그 이불과 함께 고향, 조국에 대한 상념에 목매여야 했으며(《이불》)그리움에 못이겨 명상속의 산길을 걸어가며 자기를 반기는 작은 새의 울음도 하늘가에 가는 님의 목소리도 혼자 귀에만 들어야 했었다. (《산길》)

그가 익힌것은 이 모든 그리움과 바램, 슬픔과 눈물, 고통과 애달픔만 아니였다. 고향은 학대받고 가난한 산촌이지만 사람도 산천도 하나의 혈연으로 엮힌 정으로 아들딸들을 깨끗한 감정과 인간된 도리를 아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요람이었을뿐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지향, 꿈을 심어주며 키워주는 요람이기도 하였다. 그것이 바로 별과 같은 눈동자들을 간직한 송아지동무들과 함께 가슴속에 전설처럼 고이 간직한 백두산의 령장, 왜적을 축지법으로 치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였으며 끝없이 이끌리는 기대였으며 조선사람의 조국에 대한 지울수 없는 표상이였다.

캄캄한 세상 고향 뒤산에서 아이들이 서로 소곤소곤 주고받은 희망과 광명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삼천리강산 그 어디에서나 전설처럼 돌고돌던 귀속말로 전해지는 이야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축지법을 쓰시며 왜놈들을 삼단처럼 베여넘기

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광복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희한한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즐겨 마을 뒤산에 오른 소년들은 뽕뽕 묶은 바지가 랭이에 모래를 가득 넣고 산마루로 달리기도 했으며 나무에 기여올라 앞을 다투어 뛰어내리기도 했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건너가기도 했다. 그 래야 축지법도 배울수 있고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싸워 빼앗긴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어린 마음에도 믿었던것이다. 그랬기에 어디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갔지만 그들의 눈앞에 언제나 백두산이 솟아있었으며 거기 진을 치고 왜적을 치시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셨던것이다. 진정 그이의 존함속에 조국이 있었던것이다. (《별과 같은 눈동자들》) 《버드나무》편에 수록된 서정시편들은 이처럼 일체시기 조선사람이면 보통 누구나 겪어야 했던 망국노의 생활갈피를 정서적으로 펼쳐져 가슴 젖어들게 전해주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정시 《별과 같은 눈동자들》과 서정시 《버드나무》는 아주 감명깊은데가 있으며 특히 《별과 같은 눈동자들》은 망국의 식민지 노예살이와 가난의 고통속에서도 꺼꾸러지지 않고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전설같은 항일 무장투쟁소식을 들으며 외우는 속에서 조국에 대한 표상을 간직하며 그이를 우러르는 흠모가 삶의 지평력으로 되었던 역사적체험을 그날의 동심 그대로 아주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감명깊게 안겨주는 것으로 하여 짧고 수수하면서도 민족의 잊을수 없는 역사를 안고있는 큰 서정시로 빛을 뿌리고있다.

《내가 안고 사는 남녘고향》편에 수록된 서정시들, 그중에서 전쟁전에 남에서 쓴 서정시들인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남의 나라》, 《소》, 《산하여!》, 《무우밭》, 《내 고향 처녀총각들》, 《가자 총을 잡고!》, 《항쟁의 어머니》, 《38 선을 넘으며》 등은 해방된 남녘땅이 다시 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된 준엄한 환경속에서 고향의 시인, 버드나무의 시인이 고향사람들, 남녘겨레들에게 무자비하게 강요되는 비극과 참상을 체험하며 침략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전투적인 시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동기와 계기를 원수들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와 멸적의 투지로 체험하게 하는 정론성이 강한 시편들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인의 청소년시절과 련결된 서정시편들을 일일이 훑어보며 렬거한것은 시인이 겪은 과거지사를 단순히 알기 위해서만 아니다. 그것은 우리 혁명의 3세, 4세들이 혁명의 1세, 2세들이 겪은 수난의 일제시기의 생활, 전쟁전 제국주의 강점하의 남조선의 비참상을 시로 체험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기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2세들이면 누구나 체험한 평범한 사람들의 동심시절의 학대받고 천대받던 고통과 눈물, 가난과 수난의 아픔과 슬픔을 시로 새겨두며 더우기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이 계시여 조선사람의 필승불패한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것을 생활정서적으로 체험시키는 시를 정신

적량식으로 간직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고향사람들과 고향산천을 위하는 혈연적인 사랑과 인정과 도리를 간직한 고향의 참된 아들딸, 조국의 참된 아들딸이 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작가, 참다운 체험의 주정적인 예술을 하는 시인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한 시인의 성장을 두고 다시금 확인하는데 필요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앞에서 서두를 댔 이야기, 내면정신생활을 줄곧 높은 요구성으로 영위해나가는 시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편들에 대한 본이아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면 그의 시편들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그의 내면정신생활에서 감명깊은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시집에서 자기의 행복을 어떻게 느끼며 사는가 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며 감명깊은것을 받아안게 되는데서 찾아보게 된다. 그것은 서두에서 본바와 같이 시인이 자기 행복의 진가를 아는 데서 확인할수 있을뿐아니라 행복할수록 자기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분발하는 모습에서 읽을수 있다.

시인은 자기가 받아안고 누리는 행복과 영광을 웅당한것으로 여기지 않을뿐아니라 행복과 아울러 그런 행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남녘의 부모형제들, 남녘의 겨레와 인민들에 대한 아픔을 목메이게 느끼며 자기를 채찍질한다.

서정시 《아들에게》가 이것을 감명깊게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들에게 행복과 영광에 대해서만 가르치고있는것이 아니라 행복과 영광과 아울러 그것을 아직 받아안을수 없는 남녘고향사람들과 겨레를 가진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다 하여야 할 도리에 대하여 시의 여운으로 말하고있다. 시인은 그 아픔과 도리를 시에 보이게 형상하지 않고있다. 그러면서도 시인은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된 아픔과 도리를 충분히 느낄수 있도록 지난날 아버지와 자기가 겪은 수난을 생활적인 시형상으로 시의 전반부에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시의 결구에 잇달려 울려오는 시의 여운으로 안겨오게 할수 있었다.

시의 결속뒤에 말밖의 말로 안겨오게 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서정시 《기러기》에서 달밝은 가을밤에 날아가는 기러기더러 《락동강 보겨들랑》 내 목소리대로 《-엄마야 아들 낳고, 나는 평양에 사노라! ...》 고 울어달라는 부탁은 자기의 행복을 알려주기 위한 절박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이 아니며 더우기는 그 그리움이 사무치다 못해 한으로 된 눈물만이 아니다.

시전체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절박성의 표현이면서 행복에 물젖지 않게 자기에게 안기는 채찍같은 주정적인 독백이다. 이것은 행복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안겨야 할 채찍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된다.

시인이 평양대극장에서 열렸던 공화국영웅 최영도동지의 추모회에서 읊은 추도시의 몇구절을 여기에 인용하면 그것을 누구나 스스로 알수 있다.

남녘땅 겨레의 가슴가슴에
 그대가 나누어준 그 모든것
 그 모든것을 누리며 사는 북녘땅의 우리들
 저 화려한 다층주택들을 두고 가슴치노라
 저 풍요한 협동벌을 두고 가슴치노라
 그대의 안해와 어린 아들딸들이
 손잡고 거닐어보지 못한
 저 드넓은 대토로를 두고 가슴치노라
 그대가 그리도 사랑하던 다도해기슭의 어린
 이들이
 아직은 노래하며 뛰어다니지 못하는
 저 해빛 찬란한 꽃동산을 두고 가슴치노라
 동지여! 이 모든것을 두고
 그렇듯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리면서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간
 그대를 두고 가슴치노라!

남녘땅에 고향을 둔 시인뿐아니라 우리모두가
 이 책에 가슴을 내대여야 할것이 아닌가. 당과
 수령,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베푸는 행복과 영광
 을 누릴줄 아는 시인의 내면정신생활이 얼마나 뜨
 겁고 또한 자기 요구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의 내면정신생활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편들
 에서 감명깊은것은 또한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사
 는 모습이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바람대로 성실하게 일하게 되며 일하지 않을수도,
 로쇠할수도 없다는 시인의 심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들 역시 그의 높은 정신세계를 인상깊게 엿보게
 한다.

어머니없이 태어난 자식이 어디에 있으며 기저
 귀를 갈아주고 젖을 빨리며 자식이 곱게만 자라기
 를 바라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것인가.

어머니가 살아계시건 작고하셨건 아들은 언제
 나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언제 어디서나 어머니를 의
 식하면서 산다. 이것은 자식의 생리이다. 우리 혁명
 의 1 세, 2 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들에 대한 생
 각이 더욱 간절한데가 있는것 같다. 망국노의 아픔
 과 한 가정의 수난을 다 받아안은 헤아릴길 없는
 고생속에서도 피줄을 이어주기 위하여 모든 중하를
 묵묵히 이기고 기울인 사랑과 정성, 자식의 밝은 앞
 날에 대한 기원 하나로 모든것을 다하신 어머니들
 을 어떻게 잊는단말인가.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쓰러져가는 초가마가리의
 내굴을 마시며 눈물속의 바람을 안고 험한 생활의
 고초를 이악하게 이어나가던 고향집어머니가 있다.
 그이들은 가셨지만 우리들 가슴에 고이 간직되어
 함께 살고있다. 하나로 어울려 안겨오는 우리 어머
 니들의 념원을 다 풀어주시었으며 또 풀어주고계시
 는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사랑의 품이 있다. 그 품이
 바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영원무궁한 생명력의 모체
 이신 어버이 **김일성**대원수님과 민족의 향도성이신
김정일원수님의 품이다.

이 위대한 어버이품에 안기여 충효일심을 다하
 는것이 우리 겨레, 우리 인민의 삶의 생리로 되고있
 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과
 정 의 고비마다, 갈피마다에서 어머니를 의식하며
 어머니의 바람대로 발을 헛디디지 않고 겨레와 인
 민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으로 살며 일해야 어머니
 의 자식이라고 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
 할수 있다.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나가는 로년기에까지 어
 느 하루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가슴을 죄이며 몽클
 하게 안겨오는 어머니의 목소리 《내가 이것의 어
 미요!》를 의식하며 어머니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시인의 모습을 감명깊게 엿보게
 하는 서정시 《어머니》는 의심할바없이 마음의 벗
 으로, 양식으로 삼을수 있는 참다운 시이다.

내 얼굴이 언제나 젊고 등굣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내 머리가 이리
 도 빨리 희여졌음은 하루에도 몇차례 꿈결에도 몇
 차례 남녘땅 어머니 만나러 오가기때문이라고 노래
 하고있는 서정시 《어느 벗에게 대답하여》, 홍안의
 아들이 북에 있기에 세상을 버리고도 어머니는 비
 가 오나 눈이 오나 고향의 동구앞 느티나무아래 서
 계신다고 노래하고있는 서정시 《비가 오나 눈이 오
 나》, 통일의 날을 못보고 간 어매도 할매도 더는
 늙지 말리고 나를 부른다고 노래하고있는 서정시
 《분단의 아픔》 등도 다 단순한 신변적인 정서가 아
 니라 어머니 아들로서 남녘의 고향과 겨레앞에 지
 닌 책임감에 대한 자각의 주정적인 총격의 표시이
 며 로쇠와 안일을 극복하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려
 는 높은 요구성을 스스로 제기하는 정신적양양, 시
 적폭발의 표현이다.

시인의 내면정신생활을 들여다보게 하는 시편
 들에서 감명깊은것은 또한 반드시 통일되고야말 그
 날의 감격, 랑만을 안고 필승의 의지로 지칠줄 모르
 게 전진하는 모습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과 친애하는 **김정일**
 원수님을 7 천만겨레가 환호하는 통일의 광장에 높
 이 모실 조국통일의 그날을 주정적인 시적화폭으로
 혁명적랑만이 넘치게 그려보인 서정시 《긴긴세월
 물도 불도 헤치며》, 침략자들과 반동들을 반대하
 는 싸움에서 장렬하게 간 선렬들과 비명에 간 사람
 들의 부름을 들으며 위대한신 두분을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드는 한 언제나 잊지 못한 고향마을에
 몇몇이 돌아갈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격
 동적으로 노래한 서정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를 찾아》만 보아도 시인의 열도높은 삶의 모습을
 인상깊게 볼수 있다.

시인은 자기의 념원과 소원을 로인의 불로소득
 으로 앉아서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이 서
 정시들을 포함하여 우에 펼쳐한 모든 시편들이 말
 하고있다. 랑만의 시편들인 《고향길》과 《정다운
 고향 찾아가노라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랑만
 이 로년기의 향수와 추억에 젖은 꿈이거나 자기 위
 안이 아니라 높은 요구성으로 투쟁이 동반되는 내

면정신생활을 의식적으로 영위해나감으로써 자기 창작생활, 혁명사업의 전진을 안받침하는 힘의 의욕적인 표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시인은 《새벽마다 가다듬는》 《새로운 마음의 신선한 설레임은》 《그리움이 앞당기는 세월의 고통소리》라고 노래하고있으며 《높이 고동치는 가슴을 안고》 그리운 고향길을 찾아가기때문에 자기는 《하나로 열려오는 하늘과 땅을 사노라》고 굴함없는 주정의 북받침을 토로할수 있었던것이다. 하기에 시인은 《정다운 고향 찾아가노라면》, 《내 얼굴은 어느덧 홍안을 되찾고》 《팔다리엔 젊은 기운 약동》하며 《고향사람들에게 들려줄》 《밝고 아름다운 새 노래》 《내 입술에서 절로 흘러나오네》라고 노래하고있으며 《나라를 동강낸 외세로 하여》, 《통일의 원썬들로 하여 빼앗긴》 《그것을 위해 고향을 그렸기에》 《그것을 위해 긴긴세월 울기도 했기에》 《그것을 위해 오늘도》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며 가기에》 《밝고 힘찬 노래 절로 흘러 나오네》라고 사실그대로의 심장의 진정을 토로할수 있었던것이다.

우에서 멀거한 시편들이 시인의 내면정신생활을 들여다보게 양양된 심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묻어나게 소리를 길게 내어 깊은 정과 회포를 토로한 서정시들이라면 《고향에 대한 민요시편들》은 그의 내면정신생활을 여러모로 인상깊게 비쳐낼수 있도록 고향에 대한 노래들이 전통적으로 익숙된 생활풍습세태와 결부되어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민요조로 노래되고있을뿐아니라 또한 그 노래들이 서로 각기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잇달려 하나로 맥이 통하고 이어지게 하는 편지형식으로 노래되고 있는 독특한 서정시편들이다.

《고향에 대한 민요시편들》은 민족의 태양과 백두광명성의 빛발을 안고 남녘의 고향으로 가고야 말 필승의 신념과 투지를 버리며 자기의 내면정신생활을 높은 요구성으로 가꾸어나가면서 로쇠와 침체가 없이 계속 전진하는 시인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주옥같은 민요풍의 생활락천적인 시라면 1946년 남조선 10월 인민항쟁의 주인공들을 노래한 서정서사시 《10월의 노래》 역시 조국통일의 성취에 기울이는 시인의 열도높은 삶을 그대로 읽게 하는 불굴의 열정과 기백의 시이다. 서정서사시 《10월의 노래》는 10여편의 서사시를 써낸 시인의 로숙한 모습을 엿보게 하는 만만치 않는 작품으로서 주목을 끝만하다. 시집의 모든 시편들은 한결같이 열도높은 삶의 참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게 생실하게 살며 쓴 시라는것이 한눈에 안겨온다. 시는 하나같이 화려한 시적전개는 없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양양된 심장의 진정이 그대로 안겨오게 소박

하면서도 절절하고 뜨겁고 인상깊은 인민적풍모를 갖추고있다. 진정 남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만들어내는 가식이란 표물만큼도 없다.

끝으로 참고가 되게 굳이 한마디 한다면 시상을 펼치는 사고방식과 시전개에서 어느덧 틀에 매이고론리적인 도식에 흐를수 있을것 같은 감을 벗어났으면 한다. 그리고 인민적시가의 서정적본성을 더 풍부하게 살리면서 생활적인 정서를 뜻깊게 승화시키는 철학적 구현에서 보다 참신한 탐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렇게 하자면 앞으로도 계속 로쇠와 침체를 모르는 의욕적인 내면정신생활을 더욱 즐기치게 이어나가면서 조선민족의 불타는 통일지향을 보다 다양한 제재와 계기로 보다 뜻깊게 파고들어 다양화하여 노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은 그 어느때보다 양양되고 풍부화되고있다. 시집은 의식할바없이 이런 우리 인민의 정신생활에서 좋은 벗으로 될수 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2대분야의 하나를 이루는 사상정신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고 풍부화하는데서 일상적인 내면정신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가 하는것이 중요한 고리로 나선다. 그것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하자면 일상적인 내면정신생활을 높은 요구성으로 가꾸어나가야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내면정신생활은 누구의 통제에 의해서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영위되는것이며 자기 투쟁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것이다. 자기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인 삶의 목표와 지향, 깨끗한 량심과 스스로 요구성을 높여나가는 의지가 없이는 높은 내면정신생활이 영위될수 없다. 이런 높은 내면정신생활을 일상적으로 가꾸어나가면서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튼튼히 안받침하지 않고서는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드는 혁명가다운 삶을 꽃피워나갈수 없다.

시대와 혁명이 발전할수록,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수록, 물질생활과 생활조건이 좋아질수록 일상적인 내면정신생활을 더욱 높이 목적의식적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작가는 높은 요구성으로 인생을 걸어나가는 량심과 성의의 대변자이며 시대의 선각자인것만큼 작가 자신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다운 내면정신생활을 가꾸어나가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내면정신생활에 자극과 추동력을 주는 좋은 작품을 쓸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집이 거둔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열도높은 삶을 가꾸어나가는데 량식을 보태주는 그런 높은 내면생활의 아름답고 고상한 면모를 담은 훌륭한 시작품들을 더 많이 써내야 할것이다.

잠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박영

저녁노을빛에 물들었던
우리 집 창가에
하나, 둘...별이 내리니
이 하루도 다 저물었는가

들국화 소담히 핀 고향의 언덕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못잇을 그밤처럼
안해와 나는 나란히 앉았노라
잠들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불수록 정이 묻어나는 자식들...
갓 달은 생활의 창가를 울리며
첫째가 태어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복받은 생활의 년륜이
커가는 자식들에게 다 감졌구나

음악에 취미가 있는 맏딸을
어떻게 키울것인가
엉뚱한 둘째는...
한줄기 위구도 없이
자식들의 장래를 그려보는 마음
절로 부풀어지는구나

한해, 두해
자식들이 커가니
부모로서 언행도 더 생각깊어야 되리
막내의 응석이라면
그저 어자어자한다는 안해의 충고도
달게 받게 되는구나

세상시름이란 모르고 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니
귀전에 울려오누나
사회주의를 버리어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가정의 행복도 미래도
자본의 찬서리에 얼어가는 그 소식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회주의를 버린다면
이것이 어찌 남의 일로만 되랴
레사로운 이밤에
잠들은 자식들을 바라봄이
이처럼 환희로울수 있으랴

소중하여라
사회주의 내 조국
버려선 안되리
우리의 이 생활
커가는 자식들의 장래일을
시름없이 펴보는 행복의 밤이여

아, 자식들을 위하여 있는것이
부부의 사랑이고 생활이라면
이 행복 꽃피주시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아버이 친애하는 그이를 위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할것인가

레사롭게 맞을수 없는 래일의 하루가
서둘러야 할 새 아침이
뜨거운 생활의 노래를 안고
이 맘속에 먼저 밝아오누나

버스에서

조근

시내중심에서 산업지구까지는 바다쪽으로 이십리길이다. 이 구간의 버드나무가 우거진 도로량옆으로 방직공장, 기계공장, 고무공장이 있고 크고작은 기업소들이 있다. 그에 맞게 중간정류소가 세개 있고 출퇴근용버스 《집삼》호가 손님들을 실어나른다. 손님의 태반은 산업지구로 가는 도시로동자들이다.

이 버스를 리용하는 손님들에게는 일정한 자기의 질서, 자기류의 도덕이 형성되어있다.

가령 처녀들은 버스에 오르면 좀처럼 앉을념을 안한다. 매끈하게 다려입은 치마나 코트자락이 구겨질까봐 그러는지, 앉았다가는 또 나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수고를 덜렘에서인지...

버스에서 특이한 점은 손님이 아무리 많은 때에도 앞쪽으로부터 왼쪽 두번째좌석은 늘 비어있는것이다. 누구도 그자리에는 앉으려 하지 않는다. 할머니나 아이들도 그렇다. 만일 앉아야 할 사람이 앉았다면 존경의 대상으로 되지만 다른 누가 앉았다가는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더우기 그자리에는 누가 언제 만든것인지 알수 없는 꽃방석까지 놓여있다. 꽃방석은 울긋불긋한 홍단에 흰깃을 해씩우고 네귀에 꽃무늬를 수놓은 아주 이채로운것이었다. 그것은 보는 손님들로 하여금 자연 따듯하고 즐거운 기분을 갖게 한다.

요즘 초여름에 접하면서 버스손님이 부쩍 늘었다. 마감정류소에서 멀지 않은 바다가 송림속에 천석짜리 국수집이 일떠서기 시작한것이다. 지원자들이 매일같이 불어났다. 버스는 부지런히 뛰고있었으나 사람들은 자리가 모자라 서가는 때가 많았다.

어느날 키가 크고 수척해보이는 늙수그레한 남자가 버스에 올랐다. 그는 회색빛 단긴양복을 입고 손에는 큼직한 비닐가방을 들었다. 목수일을 하는지 가방아구리로 톱자루가 비죽 내밀었다. 얼굴은 기름기가 빠져 누르끼레하고 눈빛은 침침하였다.

이미 자리는 다 찼고 차내방송에서는 《조여줍시다. 조금만 더요》하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운전사는 장가나 갓는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목소리가 점잖고 친절하여 출근길에 조바심치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라 고분고분 움직이고있었다. 늙은 남자도 앞사람을 따라 주춤주춤 걸어나왔는데 마침 빈자리옆에 멎어서게 되었다. 그는 물끄러미 꽃방석을 내려다보았다. 차츰 얼굴에 희색이 떠올랐다. 그러더니 무엇인가 말하고싶

은 충동을 느꼈던지 아니면 이자리 주인이 없나 해서인지 앞뒤를 휘둘러보았다.

그앞에는 젊고 건강하고 탄력있는 몸매를 가진 아기어머니가 서있었다. 잔등에 애기를 업었달뿐이지 처녀때의 순결을 그대로 간직한듯 싱싱한 체취가 풍겨났다. 그 녀자는 미처 어쩔새없이 어머니가 된것이 믿어지지 않아 조금 어리둥절해하고있는듯이 보였다. 방석도 살펴보고 거리도 내다보면서 모성의 첫 기쁨을 어떻게 감수할지 몰라하였다.

버스가 떠나자 늙은 남자가 아기어머니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건설장에 가느냐고 은근히 물었다.

《아닙니다. 전 고무공장에 다녀요.》

《힘들겠구만. 서있기가.》

《전 이것이 좋습니다.》

아기어머니는 무척 맑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라구. 자리가 있는데.》

《제가요?!》

아기어머니는 사뭇 놀라와했다. 자기로서는 전혀 뜻밖인 모양이다. 하긴 처녀때 서가던 버릇이 굳어져 지금도 그것을 웅당한 일로 여기는터이지만 더우기 그자리에야 어떻게? 하고 그 녀자의 눈은 말하고있었다.

《뭐 이자리에 앉을만한 손님이 있는것 같질 않구만.》하고 늙은 남자는 손님들이 자기를 쳐다보자 변명비슷이 중얼거렸다. 그는 나이로보아 자기에게 그만한 권리는 있다고 차처하는것 같았다.

《전 일없습니다. 체육을 했거든요. 서가는편이 오히려 편하답니다.》

늙은 남자는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그야 동무생각이구. 애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기라는 말에 그 녀자는 몹시 감동되었다.

《고마워요 아버지님. 하지만...》하고 그 녀자는 안타까운듯 미간을 찌프리고 생각에 잠겼다가 흠칫머리를 흔들었다.

《정말이에요. 서가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늙은이의 호의를 받아들일수 없는 자기 심정을 리해해달라는듯 생긋 웃어보였다. 늙은 남자는 할수 없다는듯 입을 다물고 차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버스는 꽃방석이 놓인 자리를 비워둔채로 경쾌하게 달렸다. 밖에서 흘러드는 유난히 맑고 청신한

아침햇빛이 꽃방석에 쏟아져내렸다. 그것은 다시
 평온한 빛을 발산하며 주위를 환하게 물들였다. 가
 끔 가로수의 그늘이 그것을 시샘하듯 언뜻언뜻 지
 나갔다. 그때마다 늙은 남자와 애기어머니의 얼굴
 이며 앞자리에 앉아 책에 여념이 없는 안경쓴 남자
 의 뒤머리와 주변손님들의 모습이 무대조명속에 드
 러나듯 부각되곤하였다.

빠스가 두번째 정류소에 멎자 자리는 더 좁아졌
 다. 내리는 사람은 없고 오르는 사람만 있었기때문
 이다. 몸집이 뚱뚱하고 얼굴이 넓은 중년녀인이 딸
 애인듯한 여라문살되는 소녀와 함께 커다란 보자기
 에 싼 바غه뜨를 맞들고 빠스에 올랐다. 얼굴이 어머
 니처럼 동그랗고 귀염성스러운 소녀는 왼손에 자기
 키만한 기타까지 들고있었다.

《좀 비켜주세요.》하고 중년녀인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손님들사이를 조심스럽게 빠져 앞쪽
 으로 다가왔다. 모녀는 늙은 남자와 애기어머니가
 서있는 사이의 공간이 그중 넓어보였던지 거기에
 바غه뜨를 내려놓고 숨을 돌리었다.

중년녀인은 빈자리에 얼핏 시선을 던졌다가 다시
 주위사람들을 둘러보고는 무표정하게 서있었다.
 그러나 빠스가 떠나느라 흠칠-했고 그통에 바غه뜨
 밑굽 한쪽이 찢다떨어지며 소리를 내자 자못 걱정을
 표시했다.

《어쩌나... 애야.》

중년녀인은 소녀애한테 뭔가 이르러다말고 늙
 은 남자를 송구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바이 여기 좀... 앉아도 될가요?》

《어서 그러시우. 그러잖아도 자리좁은데.》

늙은 남자는 자기의 동의를 얻는것이 기쁜듯 선
 뜻 응했다.

《아니 그래서가 아니예요. 바غه뜨에 뭐 좀 있어
 놔서.》하고 녀인은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아가
 며 조심히 자리에 앉았다. 앉기전에 방석을 어쩔가
 하고 바غه이드너 두겹으로 접어 옆구리에 끼고 무
 료우에 바غه뜨를 올려놓았다. 그래도 바غه뜨가 그
 냥 흔들거리자 두팔로 가슴에 그러안았다. 그 사
 품에 꽃방석이 바닥에 떨어졌다. 당황한 녀인은 얼른
 그것을 주어 무료우에 놓고 그우에 바غه뜨를 올려
 놓았다. 폭신평신했 꽃방석은 무거운 바غه뜨밑굽이
 동그랗게 움푹 가운데를 파고들어가 볼모양없이 되
 어버렸다.

녀인의 행동을 지켜보던 애기어머니가 안색을
 흐리었다. 그 녀자는 꽃방석에 몹시 신경을 썼던지
 바غه뜨안에서 물소리까지 출렁-나자 아연해지며
 《어머니, 방석은 제가 들겠어요. 주세요.》했다.

녀인은 낮이 뜨거워졌으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대꾸가 없었다. 곁에서 보건대도 사람이 앉는 꽃방
 석에 바غه뜨를 놓은것은 좀 밋한감이 있었다. 그렇
 지만 바غه뜨도 꽃보자기로 싼것이어서 방석이 덮겨
 나 굽히울 넘려는 없는것 같았다.

앞에 앉아있던 안경쟁이가 슬그머니 뒤를 돌아
 보았다. 서론땀나보이는 안경쟁이는 아까부터 무슨
 외국문으로 된 기술사전에 움혀서 주위를 감감 잊
 고있다가 《방석》이라는 소리에 귀가 열렸던 모양
 이다. 녀인을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차거워졌는지
 번쩍거리는 흰 안경알때문인지 하여튼 그한테서는
 언짢아하는 기색이 풍겼다. 안경쟁이는 돌아앉으며
 책을 탁-덮었는데 역시 얇고 빨각거리는 책갈피들
 이 센타격에 후드득-날리는 소리는 손님들의 귀를
 야릇하게 자극했다.

안경쟁이는 아예 일어서고말았다. 그는 소녀애
 와 애기어머니사이를 비집고나와 중년녀인옆에 장
 승처럼 버티고섰다. 녀인이 아닌보살하며 차창에
 얼굴을 돌려대자 안경쟁이는 애기어머니를 돌아보
 았다.

《동무! 내 자리에 가서 앉소.》

목소리는 거칠고 통명스러웠다.

《예?!》

《그렇소. 동무가 말이요. 그렇게 서가자니 좀 힘
 들겠소.》

《전 힘들지 않아요.》

애기어머니는 어정쩡한 기분으로 대답했다. 대
 뜸 중년녀인의 귀부리가 빨강게 달아올랐다. 비로
 소 뭔가 깨달은듯 애기어머니가 할곳 눈을 흘기고
 나서 중년녀인에게 죄송한듯 말했다.

《어머니, 앞자리에 앉으세요.》

안경쟁이는 차창밖을 내다보며 판전을 피웠다.

《날씨는 좋은데...》

《어머니!》

애기어머니가 또 재촉했다. 그래도 응대가 없자
 안경쟁이는 안되겠는지 제가 면전에 나섰다.

《아주머니, 그렇게 합시다.》

중년녀인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는듯 안경쟁이
 를 훑어보고나서

《아저씨, 중요한건 서로 이해하는거예요. 그게
 미덕이 아닐가요.》하고는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누이가 동생을 타이르듯하는 말에 안경쟁이는 어색
 하게 물러나며 괜히 곁에 서있는 소녀애를 건드렸
 다.

《너희 어머니냐?》

《그래요!》

소녀애는 뽀로통해서 내쏘았다. 거기에는 자기
 어머니의 행위에 대한 정정당당성이 깔려있었다.

《너의 어머니는 좋은분이시다. 그러니 네가 좀 여
 켜어라. 이자린 영예군인자리가 아니냐.》

《알아요. 그렇지만...》

소녀애는 억울한듯 뺨-바람을 일구며 꽃방석을
 덥석 잡았다. 그애 눈에도 그것만은 거슬렸던 모양
 이다. 녀인은 바غه뜨를 조금 들어주었고 소녀애는
 방석을 꺼내 가슴에 정히 안았다. 그것으로 일단 방
 석문제는 해결된듯싶었으나 일은 끝난것이 아니었

다. 안경쟁이는 여전히 우뚝 버티고서서 소녀애를 구슬리는 것이었다.

《네가 참 용구나. 몇 살이지?... 이름은 뭐구...》

소녀애는 제머미를 닦았는지 통 입을 열지 않았다. 안경쟁이는 그만 무안해져서 늙은 남자에게 구원을 청했다.

《아바이!》

《안경 쓴 동무. 그만 하라구. 자리 하나가 뭐라구... 자리라든지야 앉으라구 있는 거구 또 빈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앉아가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거야 없지 않겠나.》

《그럼 아바이까지?!》

안경쟁이는 락심하여 어깨를 처뜨렸다. 애기 어머니의 눈에도 실망의 그늘이 비졌다.

《아버님, 아저씨 심정이 오죽했으면...》

《그야 그렇지. 하지만》 하고 늙은 남자는 어성을 높였다.

《그자리가 무슨 통상인가. 특별좌석인가 말일세. 우리 사회에 특수라고는 없네. 앉아야 할 사람이 오르면 내주면 되질 않겠나. 젊은이들이 그러니 뻘스안이 소란스럽거든.》

《아이 참! 아버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애기 어머니는 금방 눈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안경쟁이도 피로운 듯 안색을 흐리었다.

《아바이, 섭섭합니다. 설사 이자리가 빈 자리로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쁠 거야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느라 앉은 것보다도 기쁘구 즐겁구 궁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라구 자랑하고 싶지 않은가 말입니다.》

늙은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묵묵히 서 있었다. 애기 어머니는 분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고 소녀애는 안타까워 제머미만 바라보았다.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아 하던 중년녀인이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들어 엉거주춤 일어났다. 안경쟁이는 기다렸던 것처럼 얼른 바깥쪽을 마주잡았다.

《바깥쪽은 제가 들지요.》

《고맙군요.》

중년녀인은 상관치 말라는 태도로 두어자국 걸어나와 그들 틈에 끼여섰다.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어서요.》

안경쟁이는 자기 앞을 막아선 녀인의 등을 떠밀어 주었으나 녀인은 귀찮다는 듯 몸집을 흔들었다.

《성났습니까?》

《성이야 무슨...》

《그럼 앉으셔야죠. 내가 웅색해서 견디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저씨야 웅당 정당하구 떼뻬해야죠. 아저씨 훌륭한 분이예요.》

《헛참! 대단히 노하셨는걸.》

안경쟁이는 험거분히 잡고 있던 바깥쪽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망스럽게 그냥 같이 쥐

고 있을 수도 없어 슬그머니 힘을 주어 당겨보았다. 녀인은 한두번 자기 쪽으로 채는 것 같더니 마음이 돌아서는지 놓아주었다. 과연 바깥쪽은 녀자힘으로 장시간 들고서 있기는 힘에 부친 것이었다. 안경쟁이는 소녀애한테 은근히 물었다.

《여기 뭐가 있냐?》

《국수랑 옥수물, 닭알...》

《응-잔치를 하니?》

《오빠한테 가요.》

《오빠?》

《예. 건설장에서 소대장을 해요.》

소녀애는 기본이 좋아서 대답했다.

《응-오빠를 지원할러구?》

《아니예요. 오빠네 소대에 영예군인 아바이가 있대요. 공구도 수리해주구 창고도 봐주구. 오늘은 전투 이야기 모임을 한대요.》

《응-그런데 음식은...》

《영예군인 아바이가 몸을 아끼지 않는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하-》 안경쟁이의 입에서 감탄인지 자책인지 모를 소리가 가늘게 새어나왔다.

《공연두 하구?》

《예.》

소녀애는 자랑스럽게 머리를 툭 떨어뜨렸다. 늙은 남자는 덤덤히 말이 없었고 애기 어머니는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너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손님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시선을 중년녀인에게 던졌다. 불현듯 안경쟁이가 격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주머니 두 참! 앉으십시오!》

그제야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앉으라고 권했다. 녀인은 눈길을 어디 돌지 몰라 허둥거렸다. 방금 요지부동으로 앉아 있을 때 같아서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니 손님들의 그런 칭찬과 호의 앞에서는 안절부절 못하였다. 공연히 곁에 있는 애기의 흰 고깔모자를 바로잡아 주며 물었다.

《복스럽기 두. 몇 달 잡혔어요?》

《여덟 달이에요.》

《온-아들인가? 이젠 겹겠다구 하겠구만요?》

《네. 어제 겨우 한말자국 뻬어요.》

《호- 그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첫자국을 뻬으니 걱정은 이제부터예요. 잘 키워요.》

그러는 사이에 뻬스는 어느덧 세 번째 정류소에 와 닿았다. 내리고 오르느라 봄비는 속에서도 앞쪽 손님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고무공장에서 일한다는 애기 어머니를 내놓으면 다들 건설장으로 가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뻬스가 떠나려는 무렵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미색여름샤썬에 자주빛 넥타이를 맨 웬 사나이가 뻬스문으로 뛰어오르더니 운전사더러 세우고 소리를 쳤다. 운전사는 물론이고 모든 손님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쳐다보아야 팔에

《검열》 완장을 두른것도 아니요, 정복을 입은것도 아닌 그 사나이에겐 그럴만한 권리는 도무지 있어 보질 않았다. 손님들을 훑어보며 바삐 앞으로 걸어나오는 그의 몸에서는 약냄새가 물씬 풍겼다. 사나이는 늙은 남자가 눈에 띄이자 대뜸 그의 팔을 짹 잡았다. 늙은 남자는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흠칠 놀라더니 헛식은 웃음을 지었다.

《안녕하시우?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그러나 사나이는 운전사와 손님들에게 랑해부터 구하느라 급급했다.

《운전사동무, 손님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분은 영예군인 리승구아바입니다. 전 담당의사구요. 지금 내리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갑자기 빠스는 충격의 바다에 침범 빠져버린듯 했다. 손님들은 경악을 했다.

《아바이 어서요.》

의사가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삽시에 늙은 남자는 피가 빠져나간듯 얼굴이 해색하게 질렸다. 그러나 의자가름대만은 짹 틀어쥐고있었다.

《아바이, 이러시겠습니까, 예?》

《하-이런...》

늙은 남자는 신음소리를 냈다.

《선생, 오늘만은 좀 봐주시요. 부탁이요. 젊은이들과... 아니 그 사로청조직과 약속을 한것이 있니다.》

늙은 남자가 빌었으나 의사는 단호했다.

《안됩니다. 내가 아바이때문에 비판받았다고 이러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건강이지요.》

그때까지 어안이 병병하여 서있던 안경쟁이가 정신을 차린듯 의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선생! 아바이몸이 어느 정도요?》

《부상자리에 파편이 박혀있소. 그걸 수술하자고 한달동안 안정치료를기간을 주었는데 보시오! 매일 같이 병원문을 피해 건설장출입을 하셨소. 십년공부나무아미타불이란 말이요!》

손님들이 드디어 외곽 떠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무도 이외의 일에 부딪쳐 출근시간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본인의 요구대로 건설장으로 보내는것이 옳으나, 빠스에서 내리우는것이 옳으나 어느것이 아바이를 위한 길이나를 가지고 선사람 앞은사람, 앞과 뒤, 곳곳에서 론쟁이 일어났다. 대세는 점차 의사의 말이 옳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갔다. 그럴수록 가슴을 아프게 하는것은 늙은 남자의 슬픈 정상이었다. 그는 귀중한 그 무엇을 빼앗기기라도 하는것처럼 상심하여 의자가름대에 겨우 지탱하고있었다. 만일 중년녀인이 제때에 그를 부축하지 않았더라면 쓰러졌을수도 있었다. 녀인은 그의 팔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아바이, 힘을 내세요. 예? 왜 이러세요?》

늙은 남자는 물끄러미 의미심장한 눈길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아바이! 아바이가 바로...?!》

늙은 남자의 얼굴에 가냘픈 미소가 피어났다.

《영철이 어머니시우? 참 좋은 아들을 두었수다.》

《아바이!》

녀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제 미쳐 아바이를 알아뵈지 못하구...》 하고 녀인은 손님들을 향하여 절절히 호소했다.

《여러분, 아바이의 신색을 좀 보세요. 아바이가 무엇을 바라겠나요 예? 소원을 풀어드리자요.》

《웁습니다!》 안경쟁이가 선참으로 지지했다.

《그러자요.》

애기어머니도 흥분하여 응수했다. 손님들이 또 다시 웅성대는속에서 안경쟁이는 의사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다.

《선생! 아바이는 오늘 청년들과 중대한 모임을 약속했다오. 그러니 선생도 함께 가는데 어떻겠소. 모임이 끝난다음 병원으로 모셔갑시다.》

《웁소! 묘안이요!》

손님들이 떠들었다. 대세는 대번에 역전되었다. 중년녀인은 너무 기뻐서 앞자리에 의사를 무작정 주저앉혔다. 의사는 리승구를 《잡으려》 왔다가 《잡힌》 몸이 되고말았다. 운전사는 병실 웃으며 벌써 가속답판을 밟아대고있었다. 의사는 어이없어 허허거리며 손을 들고말았다. 늙은 남자는 희색이 만면하여 거듭 사례를 표시했다.

《고맙소. 여러분! 정말 고맙소.》

《아버님. 앉으세요.》

애기어머니가 자리를 권했다. 소녀애는 날렵하게 들고있던 꽃방석을 곱게 펴놓았다.

《이러지들 말라구. 이러지들...》

늙은 남자가 손을 내저었다.

《아바이, 앉으십시오!》

손님들이 즐거워서 합창하듯 웨쳐댔다. 앞쪽에서 웨치면 뒤편에서 또 소리를 모아 웨쳤다.

《아바이, 앉으십시오!》

늙은 남자는 어쩔바를 몰라 찢찢매다가 애기어머니잔등에서 자고있는 애기를 쑥 뽑아안고 자리에 앉았다. 놀라서 깨어난 애기는 주위를 두릿두릿 살피더니 알겠다는듯 벌쭉 웃으며 《아- 아-》 소리를 질러댔다. 손님들이 싱글벙글거렸다. 애기어머니는 시아버지손에 손주를 맡긴 며느리처럼 행복에 휩싸여있었다. 온 빠스안이 한집안처럼 흥성흥성해졌다. 문득 안경쟁이가 웃음을 겨두며 늙은 남자에게 고개를 수그렸다.

《아바이, 아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안경꾼 동무. 난 정말 고맙소. 뭐라고 할말이 없소. 애기어머니랑... 아주머니랑... 정말 힘이 생기고. 사는 보람이 나오.》

《아닙니다. 아바이, 사실은 내가 부끄럽습니다. 아바이같은분들이 서계시여 이자리가 있다는걸 몰랐지요. 그저 나라에서 정해놓은 자리니 있으려니 했습니다. 며칠전에야 난》하고 안경쟁이는 저으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기계공장에서 일하는 외국기술전습생과 함께 이 뺨스를 탔다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여기는 무슨 특별좌석인가고 물기에 말해주었더니 그가 글썽 눈물을 떨구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2 차대전에서 다리잃은 로병인데 이젠 거지신세가 되었다며 나의 손을 잡고 <당신들이 옳다, 이 자리를 지켜달라>며 당부하는것이었습니다. 그후부터 난 이자리에 원심을 써온다는것이 그만... 아바이까지 몰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 그러니 선생.》하고 늙은 남자는 앞에 앉아있는 의사를 불렀다.

《누가 이자리를 앞장에서 지켜야겠소. 나같은 로병들이지. 그래서 선뜻 앉게 되지 않는거라우...》

그리고는 추운 빛을 띄었다. 의사도 안경쟁이도, 중년녀인과 애기어머니, 소녀애까지도 손님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숨엄한 정적이 그들을 휩쌌다. 고르로운 발동소리... 유난히 따사롭게 비쳐드는 햇빛... 늘 보던 거리-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정겹고 살뜰하게 안겨오는 고층살림집, 가로수, 하늘... 손님들은 여태 레사롭게 보아오던 꽃방석자

리가, 누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정도로 생각해오던 그 소박한 자리가 왜 그리도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으로 가슴찌릿이 안겨오는것인지 사뭇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이였다. 다만 미래의 용사- 우리의 애기만이 몽글몽글한 손가락으로 늙은 남자의 주름진 볼을 그 무슨 보물인듯 움켜잡고 《아-아-》소리를 질러대고있었다....

손님들이 다 내린후에도 뺨스안에는 애기어머니가 남아있었다. 그 녀자는 애기를 고쳐업고 손님들의 뒤모습을 내다보다가 방석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운전사한테 다가가 말했다.

《여보, 치울가요?》

《그건 왜?!》

《못보셨어요? 아바이가 앉기 뒹해하시는걸.》

《열매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지 않소. 그럴수록 우린 더 위해롭시다.》

뺨스종점의 구내확성기에서는 경쾌한 보천보전 자음악에 맞추어 귀익은 가수의 노래가 울려나오고 있었다.

...

사람들 모두다 하나로 뭉치여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따르네
라라라라라 노래를 라라라라라 부르자
행복한 내 나라 하나의 대가정

가사

승리는 우리의 전통

김석래

눈보라 사납던 백두의 행군길
승리로 헤쳐온 영광의 대오다
그날의 붉은기 더높이 날리며
나가는 앞길엔 언제나 승리뿐
승리 승리 승리는 우리의 전통
김정일 동지를 모신 우리의 전통

불구름 타래치던 전화의 고지에
피로써 사수한 그 기발 날렸네
그날의 기발을 오늘도 날리며

나가는 앞길엔 언제나 승리뿐
승리 승리 승리는 우리의 전통
김정일 동지를 모신 우리의 전통

백전백승 한길로 나가는 우리
조국은 언제나 그 영광 떨치리
우리의 진두엔 최고사령관
그이를 모시여 언제나 승리뿐
승리 승리 승리는 우리의 전통
김정일 동지를 모신 우리의 전통

내 시를 쓸 때면

박양

투사의 심장은
시와 함께 끓는가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순간에조차
열정의 시를 남기니

그처럼 뜨겁게
내 시를 쓰는가
그처럼 온 넋을 불태워
영생의 시를 남길수 있을가

혁명의 첫 가슴에서
한별의 노래 높이 부르던
김혁동지는 나에게 가르치네
시란 무엇인가를

내 시를 두고 생각할 때면
동트는 러명기 그 아침에
태양의 송가를 높이 부르며
누리에 불는 불이 된
그 청년전위가 말하노라

그처럼 심장의 뜨거움을
옹조릴수 있는가
내 때로 생각에 잠길 때면
또다른 모습이 떠오르나니
원췌의 불구멍 몸으로 덮은
리수복영웅이 웨치는 시의 글발이

목숨처럼 지키며
심장으로 쓴 시
너는 그처럼 쓸수 있는가
너는 그처럼 쓰고있는가

역사철사로 결박되고
해빛 한점 없는 속에서도
진달래를 피우던 신념과 의지
그것이 시라고
리인모영웅이 남긴 그처럼...

투사들의 인생길에
너는 그들의 심장을 꿰여준 피방울
시여, 너는 모진 시련과 불길을 이긴
신념과 의지의 맥박이며 숨결이 아니었더냐

시여 너는 정녕
애국에 불타는 마음속에
마를줄 모르던 사랑의 샘물
껼이지 않는 투사의 심장속에서
분출하는 충정의 용암이 아니었더냐

그처럼
그처럼 나도 시를 쓰고있는가
심장을 다해
온넋을 다해
한목숨 바쳐 그 뜻을 지킬
그런 시를!

가 사

주체의 배길

박향희

과도를 헤쳐가는 머나먼 배길에
자주의 닻을 올린 우리의 배는 간다
아 불테면 불어라 사나운 폭풍이여
키를 잡은 당을 따라 조선은 나간다

력사에 다시없는 광풍이 불어와도
신념의 노를 저어 곧바로 배는 간다

아 불테면 불어라 사나운 폭풍이여
키를 잡은 당을 따라 조선은 나간다

인류가 바라보는 희망의 가슴으로
달리는 우리 배길 막을자 그 누구냐
아, 불테면 불어라 사나운 폭풍이여
키를 잡은 당을 따라 조선은 나간다

사신행차

유성희

1. 길가에서

제술관 리정이 고달픈 나날을 보낸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물론 그는 웅심깊은 사람이어서 아직까지 자기의 고충을 내색한적은 한번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초조해하는 눈빛과 굳어진 표정 그리고 가끔 듣게 되는 한숨소리에서 얼마간 그의 심중을 짐작하였을뿐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한양성중에서 풍류객으로 널리 알려진 이 호방한 사나이가 홀지에 고독을 느끼고 쓸쓸해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리정자신은 일이 하도 다망한 까닭에 일신의 피로에 전념할 짬이 없이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밤늦게 일해도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고 일감은 쌓여 돌아갔다. 제술관이란 사신을 도와 나라의 문예를 이웃나라에 펼쳐야 하는 소임이니만치 결코 가벼운 직무가 아니었다.

그를 보좌하는 서기나 역관도 일에 다쫓기기는 마찬가지였다. 잡다한 문서처리는 그만두고라도 찾아오는 객들을 맞아들이고 배려해주는 일만으로도 그들은 출창 뛰여다녀야 했다.

한번은 두사람이 객실에 마주앉아 한담을 주고받다가 사행(사신행차)중에 저희들만큼 바쁜 사람이 없다느니, 만날 밤을 꽤니 무쇠로 부은 몸인들 견디겠느냐느니 하고 수군덕거렸는데 그 귀속말의 밑바닥에는 제술관에 대한 불만이 진하게 깔려있었다. 누가 이 말을 엿듣고 리정에게 전해주었다. 천둥같이 화가 난 그는 그놈들을 당장 불러들이라고 호령하였다. 어찌도 노발대발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 지경이었다. 성품이 결백하고 강직한 리정의 눈에 한번 거슬리고보면 영악없이 줄경을 치르게 된다는것을 그들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서기와 역관이 장하에 부복한채 죄를 청하는것을 보고는 놀랍게도 끝은 목이 휘여지더니 한숨을 후 내쉬는 것이었다.

《옛말에 <나라밥을 먹는자는 나라일로 죽어야 한다> 고 했다. 한데 너희들이 나를 원망할줄이야! 돌아들 가거라. 서문짜리 제물이 그리도 중하거들랑 행장을 걸머지고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란 말이다!》

조용하면서도 엄한 질책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뒤 사람들속에서는 일체 그와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조정의 신하로서 지켜야

할 대의명분이 리정의 마음속에는 물과 불처럼 한계가 명백히 그어져있었다. 만약 그가 좀더 자중할 줄 아는 원만한 성격이었던들 지금보다 훨씬 벼슬이 높아졌을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것도 실은 공연한 소리가 아니었다.

사신행차가 일본땅에 들어선 이 몇달동안 그는 누구보다도 지치고 수척해졌지만 언제한번 타발하거나 긴장을 늦춘적이 없었다. 일! 시종 일밖에 몰랐다.

리정은 오늘도 흔들리는 교자에 몸을 내어맡긴채 책을 읽고있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간다. 멀고가까운 산들은 연보라빛 운무에 휩싸이고 무연한 들엔 곡식이 무르익었다. 사신행차는 락엽이 널린 행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여름한철 무더위에 시달린 사람들은 건듯 불어오는 바람에도 한결 기분이 들떠저마다 웃고떠들었다. 사신을 따라가는 수백명의 사람들중에 일에 파묻힌것은 유독 리정밖에 없었다. 그는 휘장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아랑곳없는듯 두눈을 쪼프린채 연방 책장을 번치고있었다. 이런때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일이야 어찌되든 공자맹자밖에 모르는 서당의 글쟁님처럼 보였다. 그가 난생처음인 이국의 특이한 산수조차 즐기지 못하는것은 단지 학문을 귀중히 여기는 타고난 성품때문만도 아니었다.

하루는 사신을 안내하는 미즈노란 중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품속에서 책 한권을 꺼내놓고 변변한 글은 못되나 서문이라도 잘 써달라고 부탁하는것이였다. 모리 마레스께라는 문인이 쓴 시와 잡문을 모아 최근에 간행한 문집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이 나라에 돌아가는 문집을 구할수 없을가 하고 탐문해오던 리정은 기쁨을 누릴수 없었다. 그는 미즈노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는 의미에서 서문을 써주마고 선선히 약속하였다. 했으나 그보다 중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들이닥치는통에 그는 종시 문집을 읽지 못했다. 미즈노의 부탁을 어길것 같아 마음이 조급하여진 그는 마침내 로상에서 책을 펴게 되었던 것이다.

그가 모리 마레스께의 문집을 거의 읽었을 때였다.

《아니 저놈이?! -》

별안간 박이 소란해지면서 한가하게 흘러가던 교자가 흠칫 멈춰섰다. 뒤이어 호위무관 박유손의 우렁우렁한 호통소리가 행길을 쟁 올렸다.

《뭇들 하느냐? 저놈을 몰아내라!》

(?!)

리정은 군사들의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멀어지자 휘장을 걷어올렸다. 교자와 멀지 않은곳에서 한무리의 사람들이 외딴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는 호위군사들한테 잡혀 길너으로 끌려가는 웬 사나이를 띄어보고 두눈을 크게 떴다.

《저게 왜인이 아니요?》

《아니 글썄 저 배라먹을 오랑캐놈이 행차를 범하지 않았겠소. 원 제길-》

박유손이 하는 말에 리정은 입을 다물며 미간을 찌프렸다. 연연 수천리를 이어오지만 이와 같은 봉변은 오늘이 처음이었던것이다. 왕명을 받고가는 사신들인데 어떤 잡놈이 무엄하게 앞길을 막는단말인가. 그리하여 심사가 뒤틀린 리정의 눈에는 노여운 빛이 번뜩이고 지나갔다.

《대체 군사들은 뭘하고있었던 말ियो, 응?》

《하참, 어디 손쓸 겨를이나 있었소.》

《이러나저러나간에 행차를 세웠으니 이게 어디 뭇법이나 한 일ियो?》

《허허, 공은 마음놓고 글이나 읽소그려. 아무렴 호랑이가 쥐 한마리에 놀라겠소?》

리정은 박유손한테서 이런 익살을 종종 듣군한다. 무인인 이 장골의 사나이에게는 만사를 여유작작하게 대하는 대범한데가 있었다. 리정은 그러한 성품을 내심 무인다운것으로 여기고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크나작으나 모든 일은 나라를 위한것이니만큼 《그게 무슨 말ियो? 만일 이게 나라의 욕으로 된다면 그때는 어쩔셈ियो?》하고 한마디 나무리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행길가에서는 여전히 악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위군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발밑에 엎드려 굽임없이 늘어놓는 왜상투의 장광설을 듣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않은 일이 리정을 놀라게 하였다. 어디서 불쑥 나타난 미즈노가 다짜고짜로 왜상투의 덤미를 잡아 일켜세우며 함부로 주먹질을 하는것이다.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것 같았다. 아니나다를가 왜상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길가에 쓰러졌다.

원 저런? 리정은 저으기 불쾌하였다. 착한 업을 닦으려고 불문에 몸이 매인 사람이 저렇게 악할수 있나 하는 놀람도 놀람이거니와 무작정 매질을 하는 그의 행동이 여간만 잔악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쓴입을 다시며 박유손을 돌아보았다.

《나한테 데려오라구 이르게.》

더그레를 걸친 군졸이 그쪽으로 달려갔다. 조금 뒤에 왜상투는 미즈노에게 끌려왔다. 그는 얼굴이 조막만한 불뚝같은 사나이로서 피골이 상접한 물골

로 보아 남의 옷자락에 매달려 구차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하였다.

리정은 미즈노가 왜상투의 덤미를 눌러 교자앞에 꿇어앉히는 양을 덤덤히 지켜보았다. 무거운 침묵이 길가에 깃들었다. 그 순간이 지나가자 군사들은 또다시 왁자지껄하였다. 그것은 이 불청객의 망동으로 자기들의 체면이 깎인데서 오는 분개였다. 어서 이실직고하라고 저마다 꼭달이다. 잔뜩 겁에 질리고 주눅이 든 왜상투는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쥘금쥘금 눈물을 짜기 시작하였다. 리정은 그가 하도 슬퍼하는바람에 잠시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미즈노는 두손을 합장하고 허리를 굽실거리며 용서를 비는듯한 웃음을 얼굴에 발랐다.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이건 전수 소송의 허물이오이다.》

《저게 웬놈ियो?》 하고 박유손은 호기심에 못이겨 이렇게 물었다. 《혹시 실성한놈이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도적질이라도 하는...》

《아니, 그런게 아니올시다.》

《그럼 무슨 바람이 불어 행차에 뛰어들었던말ियो?》

《저... 황송하오나 학사어른을...》

미즈노는 괜히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다. 왜인들은 제술관의 문장과 풍채를 흠모하여 《학사어른》이라고 부르고있었다.

박유손은 더러 의심이라도 생긴듯 경계하는 눈초리로 왜상투를 쏘아보았다.

《흥, 저런 주제에 학사어른을?!》 하고 드디어 그는 픽 웃었다. 날카로와진 그의 눈표정으로 보아 왜상투가 무사치 못하리라것을 누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리정이 말뚝에 끼여들어 분위기는 다소 가벼워졌다.

《대관절 내가 저놈에게 무슨 상관이겠소. 일자 무식할건 뻔하구. 그러니 먹고살아갈 걱정만으로도 판눈을 팔새가 없을거란 말ियो.》

《주인의 분부를 받고왔사온데...》

《뭘 그렇게 주저하는거요? 주인의 분부라면야 고작 글귀를 얻어오라는것밖에 더 있겠소.》

《소승도 그렇게 생각했소이다. 한데 알고보니 인장을 받아오라는 분부라질 않겠소이까?》

《인장이라니?! 그럼...》

《아마 학사어른을 뵈온것 같소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때문에 하인을 떠나보내면서 <소생이지은 죄는 하늘갈사오나 부디 용서해주시사고 네가 내대신 빌어라> 하는 부탁을 하였겠소이까.》

(이건 또 웬말인고?! ...)

리정은 두눈에 의혹을 실으며 왜상투를 굽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을 들춰봐도 주인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낼수 없었다. 인장을 찍어달라고 내미는 서화를 펼쳐들고 거기에 씌워진 시구를 보았을 때에야 아하! -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였

다. 틀림없이 그 늙은객이었다. 참대삿갓을 꼭 눌러 쓰고 밤중에 찾아왔던 늙은이... 그가 때를 만나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노라고 탄식하던 말도 불시에 떠올랐다. 그러자 리정은 갑자기 북받치는 분노를 느꼈다. 제가 찾아와도 부족할터인데 하인더러 잘못을 빌게 하다니? 게다가 인장까지 찍어달라는 것이다. 그는 한바탕 왜상투를 꾸짖고싶었으나 그 한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분기를 눌러 참았다.

《용서구 뭐구 함께 있소. 쫓아버리면 그만인걸.》하고 박유손은 두덜거렸다.

《공은 잠자코 있소.》리정은 나직이 대꾸하고 역관에게 서화를 넘겨주었다. 문득 그의 눈길은 자기앞에 엎드려 하회를 기다리는 왜상투의 잔등에 가 멎었다. 찢어진 옷짍으로 멍이 든 어깨살이 뚜렷이 바라보였던것이다. 인장을 받아가지 못하면 또 매를 맞게 될테지- 이런 생각이 들자 그는 련민의 정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것을 느꼈다.

《어서 인장을 돌려주게.》이윽고 리정은 서기에 게 분부하였다. 그리고는 생각난듯 말을 덧달았다. 《옷주제가 말이 아닐세그러. 무명이라도 몇자 주어 보내라구.》

왜상투는 금시 어리벙벙해졌다. 뜻하지 않는 인정의 말을 믿기가 자못 의심스러웠던 모양이다. 얼마쯤 지나서야 속을 다잡은 그는 두손을 이마우에 곧추 올리고 연거퍼 절을 하였다.

《고맙소이다... 고맙소이다...》

교자는 다시 움직이었다.

리정은 책을 퍼들었으나 왜상투의 주인이 자꾸 떠올라 도무지 글을 읽을수 없었다. 그는 수천리로 상에서 술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으므로 왜인들의 성정과 인습을 얼마간 알고있었다. 그러나 왜상투의 주인만은 여느 왜인들과 같지 않았다. 내가 공연히 그를 노엽게 생각하는것이 아닐가?...

리정은 교자에 기대앉으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2. 밤에 찾아온 늙은이

고려말과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일본에 파견된 사신을 《통신사》라고 부른다. 바다건너 섬나라에서 사절을 보내여 막부의 우두머리인 관백의 취임이나 또는 그밖의 일을 알리여오면 그 답례로 통신사를 보내는것이다.

금년(17××년)초에도 일본에서는 동래부에 사람을 보내여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것은 새로 국정을 계승한 관백이 조선사신의 도움을 받아 막부의 존엄을 높이고 겸하여 대륙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싶었기때문이었다.

조정에서 관례에 따라 통신사를 보내기로 의논을 정하였다는 소문이 한양성중에 좌악 퍼졌다.

리정도 그 말을 들었지만 자신이 제술관으로 일본에 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벼슬길에 오르지도 얼마 되지 않거니와 가문도 별로 지체가 높은편이 아니였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조야의 못공론이 그에게로 쏠리더니 하루아침에 제술관으로 천거될줄이야!

며칠후 통신사는 한양을 떠났다. 부산진에 이르러 순풍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좋은 날을 골라 일제히 승선한 사신일행은 쓰시마와 이끼섬을 거쳐 세도내해의 파도를 헤쳐나갔다. 오사카부터는 룡로였다. 왜인들은 정사, 부사, 종사관(3 사신이라고 부른다)이하의 수백명이나 되는 일행을 《오꼬시》라는 가마에 태워가지고 막부가 있는 에도(도쿄의 옛이름)로 향하였다. 수륙으로 5 천리를 헤아리는 멀고먼 려정이었다.

일행은 교포에서 달포가량 머물렀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도 리정은 꿀개에 벌이 달라붙듯 하는 왜인들의 단련에 그만 녹초가 되고말았다. 그리하여 자리를 막 돌리려던 참인데 역관이 들어오더니 손님이 왔다고 알리는것이였다. 과연 참대삿갓을 꼭 눌러 쓴 사람이 하인의 부축을 받으며 사관뜨락을 걸어오고있었다. 그는 마루에 올라서야 삿갓머리를 약간 들어올리며 몸가짐을 정중히 하였다.

《학사어른을 뵈고저 찾아왔소이다.》

《어서 편안히 앉으시오.》하고 리정은 환한 초불에 시린듯 눈을 쏘프린 객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가 제술관 리정입니다.》

《아니, 이렇게 젊으신분이! ...》

늙은객은 짐짓 놀라는 기색이더니 앉은 자리에서 다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학사어른의 존명을 익히 들어 소생의 귀에 젖은지 오래되었소이다. 한테 병든 몸이라 찾아뵈기가 이렇듯 늦었소이다. 부디 허물치 마십시오.》

《존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존함이라니요? 초야에 묻혀 덧없이 세월을 보내는 소생에게 그제 어디 당한 말이오니까. 청컨대 많은 가르치심을 주십시오.》

그는 기껏해야 선뎃살쭉 나보이는 사람이었다.

부한 몸집을 두폭으로 된 알룩적삼과 알룩바지로 가리우고 왼쪽 옆구리에 두자루의 보검을 꽂았는데 이따금 손이 칼자루에 가서 더듬군하는 괴이한 버릇이 있었다. 얼굴의 주름살은 나이에 비해 많아보였다. 그러나 너그러운 미소와 정중한 태도는 푸수한 늙은이의 티를 엿보게 하였다. 리정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것이 있다면 남을 넘보는듯한 눈표정과 어딘가 지어내는듯한 웃음이라고 하겠는지. 하지만 그는 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국의 문인치고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것은 그가 우리 나라의 말을 능히 알아들을뿐 아니라 세상물정에도 퍼그나 밝았기때문이었다.

삼경을 알리는 경종소리가 울리자 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품속에서 종이말이를 하나 꺼내며 간곡한 어조로 말하였다.

《황공하오나 생의 평생소원을 들어주겠소이까?》

《어서 말씀하십시오.》

《언젠가 소생이 서화 한폭을 얻었사오나 재주가 용렬하여 글 한수 써넣지 못했소이다. 바라옵건대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모처럼 하는 말을 안들어줄수가 없군요.》

리정은 웃으며 시동더러 어서 먹을 갈라고 하였다. 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장차 이 서화로 병장을 꾸려놓고 학사어른의 뜻다운 이름을 사모하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슬쩍 꺼내는 것이었다.

《외람된 말 같사오나 학사어른은 과거를 늦게 보셨다면서요?》

《네, 서른살을 넘기고서야 겨우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군요. 문장으로 천하를 울리는 좋은 재주를 가지고계신데 왜 일찍 벼슬길에 오르지 않으셨던가요?》

객은 소심해진 듯한 어조로 조용히 물었다. 그것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에 혹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가하고 주저하는 듯한 그런 태도였다.

리정은 빙그레 웃었다.

《벼슬살이는 제가 원하는바가 아니올시다.》

《그렇리가 있겠소이까? 그럼 뭇때문에 학문을 닦았던 말씀이오니까?》

《허허! 공은 마치도 벼슬을 바라고 글공부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구려. 옛날 고려때에 이름난 문인인 로봉선생(김극기)은 충명과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과거시험에서 장원으로 뽑혔으나 권문세가에 출입하지 않고 유유히 산수를 즐기면서 시를 지었고, 또 예산선생(최해)은 벼슬이 능히 사람들의 우에 이르렀으나 조정에서 물러나 사자산아래 살면서 〈예산은자전〉이란 책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비다운 성품이요 지조가 아니겠습니까?》

《웁은 말씀입니다만... 소생이 듣자하니 학사어른은 몹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더군요. 조석도 변변히 굶이지 못했다면서요? 설을 설음중에 배고픔보다 더 큰 설음이 어디 있겠소이까. 한데 주린 배를 쥐고 초당에 앉아 등불을 밝혀가면서 글을 읽을 때 진실로 부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말씀이신가요?》

늙은객의 말에는 은근한 도전과 야유가 숨길수 없이 풍겼다.

그가 한 말은 사실이였다. 리정은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났다. 한양성밖 벼랑에 의지하여 세운 그의 집은 작은 오막살이였다. 세간살이라고는 고추장단지만 있을뿐이였다.

한때 지봉 리수광의 문하에서 수학한 아버지는 학식이 넉넉하고 성품이 강직하여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되리라고들 했었다. 그런데 곧은 나무가 쉬 꺾인다고 청운의 뜻도 꺾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날줄이야! 립종의 시각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앉히고 《사람이란 뜻을 잃고보면 살아있는 고기덩이나 다름없거늘 아무쪼록 너는 권세를 멀리하고 학문으로 성공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당부하였다. 리정은 아버지의 유언을 좌우명으로 삼고 어느 하루도 글공부를 게을리한적이 없었다. 그의 친구들중에는 벼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리정을 보고 그만큼 도를 닦았으면 과거에 응해 영화를 도모하라고 권고하곤하였다. 리정은 그때마다 《열흘 붉은 꽃 없고 십년견세 없다고들 하오. 난 학문의 부자가 되고싶소그려.》 하고 단호히 거절하곤하였다. 그때문에 향간에서는 성격이 피벽하다니 주제넘게 청렴강직한채 한다니 하고 말들이 많았다. 리정은 그 모든것을 개의치 않고 글공부에만 열중하였다. 그가 학문을 닦기까지 어머니는 또한 얼마나 몸에 부치는 가난을 이겨왔던가. 그는 량반집 부녀자답지 않게 샅빨래도 하고 샅바느질도 하였는데 그것으로 하여 량반가문의 체면을 깎는다고 이웃들의 수모와 업신을 받았다. 한즉 아들 몰래 눈물인들 오죽 흘렸겠는가.

리정은 스물다섯살 되는 해에 과거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차마 고생하는 어머니의 정상을 볼수 없었던것이다.

《네가 과거를 보겠다면서?》

어느날 어머니는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 너의 학문이 아버지에 비해 어떠하냐?》

리정은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알릴듯말듯 한숨을 내쉬었다.

《애오라지 내가 바라는건 권세도 아니요, 부귀도 아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네가 학문의 부자가 되는거다. 그런데 어쩌면 네가 구복을 채울 생각이나 하면서 뜻을 굽힌단말이나?》

《어머니! -》

리정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숙이였다. 어머니의 그 심정을 늦게야 알게 된것이 한스러웠다. 학문을 락으로 삼고 권세와 거만의 재부를 가지고 향락에 도취한 시정배들을 천성적으로 멀리하는 그의 성품은 사실상 어머니가 키워준것이였다. 어찌 학문을 취하는 뜻이 부귀공명에만 있다고 하겠는가.

리정은 마음이 격해졌다. 노여움이 술기운마냥 전신에 짙 퍼졌으나 그는 꼭 참았다. 찾아온 객에게 화를 내는것은 주인의 도리가 아닌것이다.

《바다를 메워도 사람의 욕심만은 메우지 못하는 법이지요.》 하고 세상살이에는 아무래도 년장자가

더 경험이 있다는듯한 어조로 객은 다시 말머리를 떴었다.

《사람이 천지간에 나서 누가 부귀하고 환락하기를 바라지 않겠소이까.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해 욕망을 이루지 못할뿐이지요.》

《공은 왜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리정이 묻자 객의 입에서는 부지중 탄식에 가까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지요.》 그는 시무룩한 어조로 말하였다. 《뭐니뭐니해도 세월만큼 무정하게 없소이다. 어느사이에 머리털이 허영게 되었으니… 한데도 벼슬을 마다할 생각은 없거든요. 벼슬은 세도요, 세도는 곧 재물이 아니오이까. 늙어버린 지금에 와서도 소생이 감히 그걸 바라는 까닭은 모름지기 그때문이겠지요…》

(?! …)

리정은 다시한번 부각부각 속이 괴여올랐다. 추악한 속물이다! 이런 쓸개빠진자를 상대로 참된 학문을 론하는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짓인가.

리정에게는 불현듯 최치원의 시가 떠올랐다. 그것은 짧은 문장속에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있었다. 그는 시구절이 음미되자 이끌린듯 붓을 잡았다. 웬 일인지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자자구구 살아움직이는듯한 글발이 서화에 꿈틀꿈틀 새겨졌다.

결모양 변화기는
어렵지 않으나
속마음 바로 가짐은
진정 어려우니라

리정은 글쓰기를 마치자 소매자락을 너푼 떨치며 서화를 집어던졌다. 그리고는 아연실색하는 객을 노려보며 추상같이 꾸짖었다.

《자고로 때를 만나면 벼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퇴하는게 선비들의 떳떳한 도리이지가 어찌 그런 말로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한단 말이고?》

《아, 아니 …》

객의 얼굴은 단박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노기에 불타는 리정의 눈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떨구었다.

《어서 물러가지 못할가?》

리정은 재차 호통을 뽑았다. 깜짝 놀란 객은 《네네.》 하고 서화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말도 비취보지 못한채 황황히 꼬리를 사리였던것이다. 그게 바로 한달전에 있던 일이다. …

《두둥! 두둥둥…》

의병장들이 아뢰는 북소리에 리정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가을답게 좋은 날씨다. 들관 여기저기에는 돌부처들이 서있는데 검은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친 알머리중들이 그앞에 꿇어앉아 경쇠(작은종)를 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넘불을 외

우고있었다. 죽은 다음에라도 부귀를 누려보려고 저렇게 극성스레 넘불을 외우는것일가?

사신행차는 그걸을 지나 앞으로 나간다. 국서를 응위하고 사절의 표식인 절월(월단 기와 긴도끼)을 받쳐든 선두대렬은 벌써 강기슭에 접어들고있었다. 그뒤로 오륙백명이나 되는 일행이 혹은 교자를 타고 혹은 역마에 올라 구슬을 꿇듯 십리나마 늘어섰는데 울긋불긋한 행장이 볼수록 장관이다.

서기가 달려오더니 강에 배를 띄우고 즐기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오, 그래?!》

리정은 반색을 하였다. 지루하고 따분한 때에 그런 좌석이 마련된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크고작은 루선(다락배)들이 사신행행을 기다리고있었다.

정오무렵이었다.

3. 풍악소리는 흥겹건만…

《물오리다!-》

누군가 웨치자 배칸이 들썩해졌다.

리정이 바라보니 과연 한무리의 물오리떼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있었다. 활 한바탕에는 아주 MATCH한 거리였다. 박유손이 각지킨 손을 슬쩍 떼자 피잉-시위줄이 울고 뒤이어 야-하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화살을 맞은 물오리 한마리가 돌맹이처럼 기슭으로 떨어졌던것이다.

《공의 활재주는 여전하오그려.》

리정은 마음이 흡족하였다. 박유손을 칭찬하는 말들이 연이어 울렸다. 서너명의 왜인들은 물오리를 주으려고 부리나케 기슭쪽으로 배를 몰아갔다.

때를 같이하여 풍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기인(예술인)들이 갑판우에서 악공들의 음률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은 말그대로 고운 꽃 한아름을 꺾어다가 뿌려놓은듯하였다. 웃음소리, 말소리, 잔이 부딪치는 소리… 오찬은 바야흐로 절정에 이르고있었다.

리정은 한두잔 술에 얼근해지자 루선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강 건너 기슭쪽에 하얀 모래불이 바라보인다. 그너머 산비탈에는 단풍이 한창이어서 붉고 푸른 빛이 한데 어울려 잔잔한 수면에 꽃수를 놓았다. 높게 들린 새파란 하늘과 서늘한 강바람, 배전을 치는 물소리! 그것은 무척 아름다움을 자아냈지만 나서자란 고향의 강반보다는 못해보였다. 어릴적에 그는 자주 글을 읽다말고 수려한 강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하였다. 보고 또 보아도 싫지 않은 천진하고 수줍은듯한, 그러면서도 희망과 꿈을 주는 모습이었다. 벼들숲에서 우짖는 새들의 노래소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는 고향의 푸른 하늘에 날아에는 새들처럼 자신도 훨훨 나래치고싶은 엉뚱한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글속에 파묻히곤하였던것이다…

(글이라도 한수 지어볼까?)

리정은 시흥에 잠기는것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옛사람들의 본을 받아 시라도 한수 지어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울적한 심사를 위로하고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먹고마시는것밖에 모르는 왜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에 도무지 생각을 가다들올수 없었다.

《난 원래 그런 말을 믿어본적이 없소이다.》 하고 주어섬기는 미즈노의 혀꼬부라진 음성이 들렸다. 《자비란 말은 사람들이 지어낸것에 불과하지요. 글썄 이 세상에 누가... 누가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단말이오니까? 부처님이?... 흥!...》

《공은 부처를 믿지 않으시오?》 박유손이 묻는 말이었다. 미즈노는 또 한번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부처님을 믿어 덕을 본게 뭐란 말이오니까? 그저 가사를 걸쳤을뿐이지요... 그러나 공들만은 믿고 싶소이다. 부처님처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 부처님보다 더 믿고싶소이다. 무슨 말인가구요?... 그 망할놈이 행차에 뛰어들었을 때에 소승은 눈앞이 아찔하였소이다. 글썄 그런 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소이까. 그 죄로 말하면 관음보살두가만두지 않을겁니다. 한데 공들은... 그놈의 청을 들어주시구 또 무명까지 주어보냈으니...》

《공은 왜 자꾸 그런 말을 꺼내시오. 학사어른은 그런걸 좋아하지 않는단말이요.》

《난 그 누구에 대해 말하는게 아니올시다. 조선이... 조선사람들이 부러워서...》

노래가락이 바뀌어졌다. 갑판에서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왜인들이 춤을 추고있었다. 미즈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계속하였다.

《어쨌든 우리 일본의 문인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지요. 남의 존경을 살만한 재주가 없으면서도 그걸 아이들처럼 바라거든요. 서화를 보내온 늙은 객의 경우만 봐도... 제길혈, 글이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학사어른의 이름을 빌어 제삿을 내려구 하인까지 쫓아보내지 않았소이까. 그게 비루하고 너절한 소위관걸 모르니 한심한 일이지요. 모르긴 하겠으되 그런 점에서는 모리 마레스께라는 사람도 다를바 없을테지요. 소승이 듣자니 그는...》

(모리 마레스께라니?!-)

리정은 교자안에서 읽었던 문집이 생각되어 실눈을 지었다. 쓰시마에서부터 오사까, 교토를 거쳐 오는 역로 각 참마다에서 그는 그러루한 왜인들을 수없이 만나보았다. 대개 글깨나 한다고 자처하는 문인들이었다. 그들은 사신행차가 행장을 풀기도전에 사관으로 밀려와 서화 한폭을 내여달라느니 시를 써달라느니 하고 성화를 먹이곤하였다. 이 나라 습속에 조선사신들의 시나 서화를 얻으면 벼슬하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삼고 선비들은 이름 얻을 길

로 여기며 지어 천인들까지도 남의 부러움을 사게 된다. 늙은 객이 하인을 시켜 서화에 도장을 받아가는것도 글귀가 진실로 조선사람들의것이라는것을 남이 알게 하자는것이다.

외로운 섬구석에서 세상의 문물을 볼 기회가 너무도 적었던 왜인들이고보면 심분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그게 무슨 비루하고 어리석은 것이겠는가. 아니 그보다도 리정은 미즈노가 모리 마레스께의 이름을 들으란듯이 화제에 올리고 횡설수설하는것이 놀라웠다. 그자신이 문집을 들고 찾아와 이름난 사람이니 서문이나 하나 잘 써주면 고맙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 사람이 한입으로 두말을 하다니?!

《학사어른은 왜 잔을 들지 않소이까?》

리정은 문득 이렇게 묻는 말을 들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미즈노가 주전자를 들고 덧잔을 붓고 있었다. 리정은 취기가 오른 그의 얼굴에서 야릇하게 번들거리는 두눈을 쳐다보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난 벌써 취했소그려.》

《술은 붓지 말게.》

박유손이 웃으면서 미즈노에게 말하였다.

《눈치 빠른 고양이 밤눈이 어둡다더니 공은 그 예 모르는구려. 제술관은 지금 글귀를 생각하고계신단 말이요.》

《아, 그런걸 난 또...》

미즈노는 주전자에서 손을 떼며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리정은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참이라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하였다.

《이 좋은 날에 술만 마시겠습니까. 글이나 한수 씌지읍시다.》

《지당하신 말씀이외다.》

미즈노는 두손을 마주잡고 고개를 조아리더니 갑자기 활기를 띠며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마침 좋은 지필묵이 있으니 그걸 학사어른께 드리구 시문을 청하는게 어떻소이까?》

좌중에서 일시에 박수갈채가 일었다. 미즈노는 문쪽을 바라보고 소리를 친다.

《너희들은 뭇들 하고 있느냐?》

대답소리가 길게 울렸다. 휘장이 반쯤 들린 사이로 흰모시장삼에 쌍상투를 틀어올린 분딱지같은 왜계집이 요염하게 웃으며 아기작아기작 들어온다. 향긋한 분내가 장내에 날렸다. 왜계집은 런꽃무늬를 새기고 옷칠을 하여 청동거울처럼 반들거리는 자그마한 함을 쌍수로 받들어 상우에 올려놓고 나부시 절을 한다음 할곳 추파를 던지면서 물러났다.

함속에는 희귀한 연적(벼루집)과 벼루, 황금을 입힌 붓과 질 좋은 먹들, 왜선(일본부채), 손칼따위들이 들어있었다.

《음-》

리정은 얼굴을 흐렸다. 사신행차가 경내에 들어오면 관가의 벼슬아치들은 물론 향간의 이름없는 선비들도 의례히 제술관에게 지방특산물을 올려 저

들의 성의를 표하는 판례가 있었다. 리정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서 나무람할것은 못된다. 그런데 사관도 아니요, 로상에서 이런 물건이 버젓이 앞에 나타나다니?! 그는 엄한 기색으로 물었다.

《도대체 어디서 난 물건들이요?》

《...》

《누가 이 물건을 받았느냐 말이요?》

미즈노는 주춤거리며 리정을 쳐다보았다. 노기 어린 그 얼굴은 당장이라도 불호령을 내릴듯싶다.

《진작 말씀을 올리지 못했소이다.》

그의 얼굴은 해쓱해지고 어깨가 축 처졌다.

《하인이란놈이 울면서 사정을 하지 않겠소이까. 이 물건을 도루 가져가면 주인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거라구 해서...》

(그럼 그 늙은객이?!)

리정의 검은 눈썹이 한번 푸들쩍 뛰었다.

박유손이 말뚝에 끼여들었다.

《이왕 일이 그렇게 된걸 시야비아해선 뭘 하겠소. 늙은객의 성의를 받아두는수밖에-》

《공도 이 사실을 알고있었던 말이요?》

《미즈노공이 부탁을 하더구만. 공이 알게 되면 화를 낼건 뻔한데 잘 말씀을 올려달라구.》

《잘은 하는구만.》

리정의 머리속엔 불현듯 서운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박유손은 사신을 호위할 중한 소임을 맡고있다. 그런 사람이 왜인들과 한짜이 되여 놀아나다니?! 다음순간 이제 만일 늙은객의 진정이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면 괜히 사람을 무시하

는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나 리정은 마음을 사려 먹었다. 설사 그가 좋은 사람이라해도 지금 이 좌석에서 레물을 받아들이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한나라 조정의 량반이요, 어명을 받들고 온 신하인데 일본왕도 아니고 한갓 초야에 묻힌 일개 선비의 레물을 명목없이 받아들일수 없지 않는가.

리정은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판례야 어떻든 이 물건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구 내가 늙은객이 미심쩍어 그런다고는 생각지 마시오. 글은 학문의 꽃이요, 시는 사람의 녀트로 일러웁니다. 한데 공들은 나더러 몇가지 레물에 녀을 팔라구 하니 그게 어디 될 말입니까?》

《아, 아니 전혀 그런게 아니올시다.》

미즈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폐일언하구 이 알량한 물건을 주인한테 돌려보내오.》

좌중의 흥취는 다 깨지고말았다.

미즈노는 더 권고해봤자 그를 격하게 할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입을 봉했다. 그는 슬그머니 배칸에서 나왔다. 강바람은 시원했으나 오강뚜껑으로 뜨물을 마신 기분이다. 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울분을 삭일수 없어 들고온 함을 물속에 처넣었다.

《에라 빌어먹을!-》

첨병!-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 유유히 흐른다. 강상에 두둥실 뜬 루선들에서는 여전히 풍악소리가 높아가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삶에 대한 처방

림공식

아지랑이 피어나면
봄날이 오듯
산과 들에 눈이 오면
겨울이 오듯

인생아
인생아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리면
생의 황혼기런가

함부로 내리지 말라
삶에 대한 처방
두터운 백설밀에서도
아는가 시내물이 흐르는줄

흰서리밀에 가리워진
열정의 눈빛을 보아라
당과 함께 숨쉬는 사람은
영원한 청춘에 사노라

영원한 스승

송두희

그대는 묻더라
내 당생활수첩을 펼쳐놓고
조직에 보고할 당생활정형을 더듬을 때
분공수행정형을 마음속으로 총화해볼 때

묻고묻더라 그대는
착암기 억세게 틀어잡고
헤쳐나가는 암반속에서
삼단같은 석수가 터져
내 잠시 주춤거릴 때

아, 퇴성벽력처럼 심장에 울려오는 그대의 목소리
입당할 때 다진 맹세
구절구절을 생각해보았는가
나는 입당할 때 맹세를 지켜 전향하지 않고
34년 옥고를 치르었다고

엄하게 부르짖더라 그대는
잘못을 타일러주고 일깨워줄 동지도

엄한 비판을 줄 조직도 곁에 없었던만
마음속으로 당적분공을 받고
고문대를 향해 나갔고
감방안에 홀로 앉아
분공수행정형을 마음속으로 준렬히 총화하며
신념과 의지를 키웠다고

오, 리인모동지
그대는 말 한마디 없어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꺼이지 않는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우리들을 충성과 위훈으로 이끌어주고있나니

아 그대는 나의 넘
나의 의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영원한 스승이여라
마음속의 거울이여라

나는 로동자

리형국

돌이켜보노라 그 시절을
배움의 열망으로 불타던 그 시절을

그 시절
나는 학생이었고
책은 나의 스승이었나니
나는 많은것을 책에서 배웠다
책은 나에게 많은것을 가르쳤다

허나 이제는
성장한 오늘은
로동이 오 로동이
나의 스승이 되었거니

로동은 나의 엄격한 스승
로동은 나에게 많은것을 가르친다
책이 배워준것보다 더 많은것을...
하여 나는 로동을 따르다
로동을 나는 더없이 사랑한다!

나는 아노라
무르고 연약하던 그 손이
넓고 소심하던 이 마음이
로동-
그것으로 두터워지고
그것으로 억세고 튼튼해졌음을...

나는 로동자
로동속에 어느덧 대장부로 자란 나
시대의 한복판에 우뚝 서서
땀의 열매를 받아들여올리나니

그러면 청춘의 후더운 가슴열고
심장이 터치는 귀중한 말
-너는 단지 이 세상에서
보통 인간으로 태어났을뿐
로동의 마치를 휘두르는 창조와 투쟁 속에서
너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억세여졌노라!
(평양연극영화대학 학생)

어머니의 편지

강인철

버리지 못하노라
고향 떠나 내 이날껏 살면서
술한 편지들을 받아보았건만
어머니의 편지만은

소박한 종이우에
익지 못한 철필글로
한자한자 박아쓴 그 글발
한통한통 쌓인 그 사연
왜 이다지도 가슴을 치는것인가

철자법도 띄여쓰기도 잘 맞지 않아
두번세번
덧쓰기도 지우기도 한 그 글발
어쩌면 이러이도 진정이 넘치는것인가

그 한자한자
어머니 저에게 바치시는
심혼인듯 숨결인듯
이 몸에 더하여주는
피방울인듯 영양소인듯

별일없는가고, 때식은 건느지 않는가고
요사인 네 이름 잘 나지 않는다고
남에게 뒤지거나 않는지
근심뿐이라는,

그저 입고사는 은혜앞에
배은망덕 말라고
나라에 빚지지 말고 짐이 되지 말고
효자가 되라는

아, 그것이
그것이 전부라면 전부인
어머니의 편지여

약간 굵힌 손등의 자리를 보고서도
열번은 더 약탈라 쳐매주던 그 사랑이길래
이 편지에 글자가 백이라면
어찌 백방울의 피가 아니고

백개의 세포가 아니라

아무때나
한폐지를 더 넘기지 않는 짙막한 글이여도
온밤 베개를 고이고
처음인듯 읽고 또 읽고 다시 새기느라면
나에게 가장 사심없이
가장 가깝게 진정을 속삭이는것은
어미니뿐인가싶어라

가식이란 애당초 어울리지 않고
생활의 미사려구란 것들일 여백이 없는
이 고마운 사랑
아,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은 곧
진심이라는 말! 진정이라는 말!

때없이 이 마음속에 찾아와
사는 법을 가르치는 엄정한 교사처럼
생을 준 인간앞에 진정만을 안고 서있는
아, 어머니
생활의 스승인 나의 어머니

버리지 못하노라
어머니를 잊지 못하듯이
이 편지를 잊지 않으리
하나뿐인 어머니를 놓지 못하듯이
이 사랑 저버리지 못하리

내 어디선가
남의 덕에 어부지리를 얻어 꽃다발 받은 일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앞에 죄되는 일일것이고
내 그 누구보다 불구멍 먼저 막았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당부를 고이 지켰음이라

돈 주고도 살수 없고
그 어떤 보상으로든 대신 못하는 크나큰 정이여
집안에, 나라에 효자 되라고
품어주고
매도 드는 어머니의 사랑
나는 한생의 가보처럼 잃지 않으리라

위원장어머니

제 2 부

문병의

(전화에서 계속)

려관식당

식당 한쪽 구석에 간소하게 차린 음식상.

치삼이가 주방간에서 남비를 들고 급히 나와 식탁우에 얼른 놓고 귀를 잡는다.

《엇 뜨거워 …》

여기로 은정이가 낫익은 인수원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자 어서들 앉으세요.》

인수원들이 황송해하며 저마끔 한마디씩 한다.

《야, 이거 우리가 위원장동질 대접해야겠는데 주객이 바뀌었군요.》

《위원장동지, 이거 안됐습니다.》

은정이 그들을 안내하여 일일이 의자에 앉힌다.

《뭘들 그래요. 변변히 차린건 없어요. 우리 이지도원동무가 강에서 잡은 물고기가 있더라니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는 동무들과 저녁식사나 한끼 같이 나누고싶어서 찾았어요.》 하며 은정은 그들의 앞에 놓인 술잔에 술을 붓는다.

인수원 1 이 황급히 그의 손을 잡는다.

《위원장동지,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위원장동지한테서 술까지야 받아먹겠습니까?》

《일없어요. 옛날부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데 고향의 어머니가 부어주는 술로 알구 마세요.》

《위원장동지,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뜨거움을 삼키며 잔을 비운다.

《위원장동지, 내 쪽 이 신셀 잊지 않구 갓겠습니까.》 하며 인수원 2 가 동무들을 둘러보며 다짐한다.

《우리모두 잊지 말자구.》

《아 그야 물론…》 하며 모두 긍정한다.

은정이 웃으며 그들에게 묻는다.

《정말 신세값음을 하겠어요?》

《하지 않구요, 우리 자재일군들이 신용과 의리 하난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부탁할가요?》

《하십시오. 원목상차로력이 걸립니까?》

《아니요.》

《그럼 기차방통인가요? 그건 내가 철도관리국에 전화 한통이면 제격 풀립니다.》

은정은 여전히 머리를 가로 젖는다.

인수원 1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위원장동지,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동지가 우리한테 목재만 받을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외의것은 우리가 다 맡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동지…》

은정이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동무들,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동무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고싶어한건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싶어서였습니다.》

인수원들이 기대어린 눈길로 은정을 본다.

은정이 몸가짐을 바로하며 말을 계속한다.

《전 오늘 이곳 구분대 지휘관동무로부터 며칠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들이 말아하고있는 발전소 건설을 장마철전으로 완공할데 대한 교시가 제시였다는걸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이곳 구분대 군인동무들은 어려운 전투를 벌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무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곳 군인건설자 동무들을 지원하는 립장에서 모두 그냥 돌아들 가자는것을 제기합니다.》

인수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술렁댄다.

은정의 말이 계속된다.

《나나 동무들이나 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의도를 받들고 일하는 일군들인데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동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끼쳐서야 안되지 않겠어요. 물론 사정들은 다 각이하겠지만 우리야 그리 많은 량의 목재가 필요한것도 아닌데 돌아가서 예비를 탐구하면 해결방도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은 웅당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무들에게 하고싶었던 말은 이게 답니다.》 은정이 자리에 앉는다.

인수원 1 이 생각깊이 머리를 끄덕인다.

《위원장동무의 말을 듣고보니 생각되는게 정말 많습니다. 전 오늘밤차로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우린 다른 립산사업소에서 목재를 받으라는 지령을 받았는데 행어나 요행수를 바래서 있었지요.》

《그야 우리두 다 같지뭘… 일을 쉽게 해먹자는 요놈의 낡은 사상이 언제 가면 없어지겠는지…》 하며 인수원 2 가 이마를 친다.

《хах하…》

이튿날 아침

박철이가 자기 사무실에서 편지를 읽고있다.

편지의 내용은 은정의 목소리로 울린다.

《대좌동무, 인사도 없이 밤중에 이렇게 떠나는 저를 용서하세요. 이곳 실정을 미처 모르다나니 어

제는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아버지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대로 장마철전으로 발전소건설을 완공하여 당에 기쁨을 드리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주영준동무에게도 인사를 전해주세요. 리은정 씬.»

편지를 든 박철의 얼굴우에 펼쳐지는 회상화면.

눈덮인 들길

눈보라를 일쿠며 달리는 마차. 그우에 신바람이 나서 말을 몰아대는 박철과 군복을 단정히 입은 주영준이 별로 시무룩해서 앉아있다.

육아원 앞마당

박철과 주영준이 탄 마차가 마당에 들어선다.

박철이 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면서 소리친다.

《탄실이... 탄실동무... 체 어델 갔나?》하며 박철이 스스럼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나온다.

《중위동지, 모두 나무하러 갔다누만요. 우리두 산으로 갑시다. 눈이 이렇게 강산같이 왔는데 멀리 야 갔겠습니까...》

멀지 않은곳에서 울리는 도끼질소리.

《아, 저기 있습니다. 갑시다, 중위동지.》

주영준과 박철이 눈우에 찍힌 발자국자리를 따라 골짜기로 향한다.

산골짜기

평퍼짐한곳에서 우등불이 타고있다. 그옆에서 나무단을 묶느라 공공거리는 은정과 탄실.

땀을 흘치던 탄실이가 골짜기 아래쪽을 보며 환성을 지른다.

《어마나, 언니, 군대아저씨들 와요!》

《엉?! ...》

박철과 주영준이 다가온다.

《수고들합니다. 야, 이거 내 동생 탄실이가 정말 용쿠만. 눈이 강산같이 덮였는데 나무를 다하구.》

《피... 내가 수고하나뉘, 우리 언니가 수고하지.》

은정이 서둘러 우등불을 들춰놓는다.

《아이 추운데 여기 와서 불쪼이세요. ... 그런데 무슨 일로들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나무하는걸 좀 도와주려구 왔는데 벌써 다 해치웠군요. 중위동지, 오십시오. 불이나 좀 쪼입시다.》하며 박철이 우등불가에 털썩 주저앉는다.

은정이 불속에서 군갑자를 꺼내놓는다.

《야, 군갑자. 이거 내가 먹을복 있는데...》

박철이 환성을 지르며 군갑자를 덥석 잡는다.

한쪽에 서서 별로 어색해하는 주영준에게 은정이 자리를 권한다.

《아이 중위동진 왜 거기 서있어요? 어서 여기와 앉으세요.》

《예... 전 춥지 않습니다.》

《춥지 않아두 여기 와서 군갑자라두 잡수세요.》하며 탄실이이 뿌르르 가서 주영준을 끌어다 은정의 옆에 앉힌다.

《중위동지, 하나 드십시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두 모르겠습니다.》

《어마나 껌질을 그렇게 벗기면 안돼요.》탄실이가 박철의 손에서 감자를 빼앗아 꼬챙이로 탁탁 털어서 껌질을 벗겨준다.

《야 이거 내 동생이 벗겨주는 따끈따끈한 감자를 꿀꺽 삼키니 가슴이 다 찡하구나. 잉?》

《피, 그저 내 동생, 내 동생...》

《왜? ... 내 동생 싫어?》

《아니 좋아요. 호호...》

《좋지? 하하... 여 탄실이, 그럼 나하구 저쪽으로 가서 쫓새기나 좀 하자.》

《싫어요.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지뉘.》

《자 요거 땀뽀이같은거... 우리 중위동지가 있어서 그래.》하며 눈을 꾹꾹하는 박철.

주영준이 얼굴이 벌개진다.

《내가 들으면 뉘라나. 여기서 말을 하지뉘.》

박철이 노는것이 우스운듯 은정이 한마디 한다.

《놔두세요, 저희들끼리 쫓새기하게.》

그러자 탄실이이 냉큼 일어선다.

《가자요. 오빠, 호호...》

서로 손을 잡고 산굽인돌이를 돌아가는 박철과 탄실을 보며 은정이 말한다.

《정말 꼭 오누이 같지요?》

《예...》주영준이 건성으로 대답하며 담배만 피운다.

《아이 왜 자꾸 담배만 피우세요. 이 감자가 포실 포실한게 맛있겠어요. 자요.》

《아니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두 있었어요?》

《아... 아니 아무것두 아닙니다. ...저 다르게 아니라...》

《아이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예, 말하지요. 저 은정동무... 사실은...》

《야, 답답하다. 저한테야 뉘 주저할게 있어요. 부탁할게 있으면 어서 말씀하세요.》

《에익 그럼 내 죄다 말하지요, 은정동무. 난. 난 동무를 사랑합니다.》

《네?? ...》

산굽인돌이 양지쪽

《어마나 그제 정말이에요?》박철과 꼬깔불을 마주하고 앉은 탄실이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우리 중위동지 정말 괜찮아. 사내답구 씨원씨원하구 권투는 또 얼마나 잘한다구. 한마디로 말해서 팔방미인이지. 처녀들이 그냥 줄줄 따라!》

《흥, 우리 언닌 뉘 그만 못한줄 알아요?》

《체. 그러니 천상배필이란 말이야, 좋지?》

발딱했던 탄실이이 금시 풀이 죽는다.

《그런데 우리 언닌 불행한 사람이예요...》

《다 알고있어, 흥 우리 중위동진 시시껄렁하게 그따위나 따지는 쪼쪼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사랑이면 다시 뭐야. 바로 그런 불행을 안은 사람이 부모잃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눈보라치는 200 리 밤길을 걸을수 있었는가? 우리 중위동진 바로 여기에 반했단말이야. 알겠어?》

탄실이 감격하여 두손을 마주잡는다.

《야, 어찌면... 중위아저씨 정말 좋은 아저씨예요.》

《그럼 동문 찬성이지?》

《응!》

다시 골짜기 우등불가

머리를 꼭 숙인채 꼬챙이로 땅바닥을 긋고있는 은정을 내려다보며 주영준이 재촉한다.

《아니 싫다든가 좋다든가 말을 해야 알게 아니요?... 내 이미 말했지만 난 동무에 대해선 들을만큼은 다 들었소. 그러니 내 결심은 최종적이지요. 동무가 반대한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설 그런 사람이 아니란말이지!》

《...》

《야. 이거야 가슴에 불이 일어서... 종소, 그럼 난 승인한걸로 알고 돌아가겠소.》 하며 주영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다.

《가만... 전... 전, 나를 친엄마처럼 따르는 우리 아이들을 두고 그 어데로두 떠날수 없어요.》

《아니 동문 그것때문에 여적 대답을 못했소? 결혼을 하구두 동문 여기에 계속 남아있으란말이지요.》

《그리구 또...》

《그리구 또 뭐요? 어서 말을 하오. 내 다 풀어주겠소.》

《저...》 은정은 얼결에 말꼭지를 떼였으나 피로웠다. 그의 심중의 목소리가 울린다.

《아 어찌면 좋은가... 내 이런 훌륭한 남자를 어데 가서 두번다시 만날수 있을가... 하지만 안돼,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아이가 생긴다면 저 스물세명의 고아들은 지금처럼 나를 친엄마로 따르지 않을거야... 아니 난 난 절대 그애들의 이붓어미가 되어서는 안돼.》

《어서 말을 하오.》

《저... 저에겐 이미 약속한 동무가 있어요.》

은정이 얼굴을 찌푸리고 골짜기를 내려 달려간다.

《뭐요? ...》

산비탈 양지쪽

박철과 탄실이 의아해서 육아원으로 달려가는 은정을 보고섰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그러게 말이지요.》

군부대 병실

머리를 깎치고 침상에 누워있는 주영준. 그는 멍하니 천정을 바라보며 착잡한 생각에 잠겨있다.

이윽고 방문이 벌컥 열리며 박철이 급히 들어선다.

《중위동지, 우리가 속았습니다. 내가 다 알아봤는데 대상자가 있다는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아니 왜 가만 누워있습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당장 가서 들이대잔 말입니다. 제가 뭐길래 중위동지를 속이는가 말입니다. 이건 인민군대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자 빨리요. 중위동지!》

박철이 풀떡거리며 주영준을 일으켜세운다.

주영준이 그의 어깨를 잡아 옆에 앉힌다.

《여, 박철이 진정하라구. 지금 그 동무의 가슴속엔 부모잃은 스물세명의 원아들밖에 없소.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들어앉을 자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 그 동무를 더는 괴롭히지 말자구.》

《예?》

다시 군인숙박소

박철이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섰다.

멀리에서 울리는 렬차의 기적소리.

달리는 렬차안

은정이가 차창가에 앉아있다.

이른 새벽의 대가속에 우렛이 자태를 드러내는 풍요한 논밭들과 마을들이 언뜻언뜻 흘러간다.

《치삼동무, 침대에 좀 누우세요. 한참 자는걸 깨워서 피곤할텐데...》

은정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치삼이가 말한다.

《일없습니다. 누운들 잠이 오겠습니까... 제길 직승기가 있었으면 구천산 꼭대기 나무라두 찍어다 쓰겠는데... 예라 죄없는 담배나 또 태우자.》 하며 주머니에서 담배팩을 꺼내던 치삼이 그것을 꾸겨 휴지통에 던진다.

《제길 이것두 다로구나.》

《치삼동문 그 당반에 내 가방을 좀 내려와요.》

은정은 치삼이 내려다주는 가방에서 고급담배 한팩을 꺼내놓는다.

《아니 위원장동지가 어떻게 담배를 다...》

《피워요. 이렇게 요긴한 때 쓰자구 한갑 넣었었어요... 그런데 치삼동문 구천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다는건 어떻게 알아요?》

《들었지요 뭐. 나무가 있으면 뭘합니까. 짐승두 오르질 못한다는곳인데 그럼에 떡이지요. 참 무슨 소린지, 량부위원장동지가 전쟁시기 소년빨찌산 할때 한번 올라가보았다는것 같습니다.》

《량부위원장동무가요?》

《예,...세 동무가 련락임무를 받구 가다가 길을 헛들어서 밤낮 열흘동안을 산속에서 헤맸는데 갑자기 함정속에 빠진것처럼 사방이 캄캄하드라나요.》

아름드리 원시림이 콧 들어차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열매며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한달동안을 고생하다 겨우 빠져나와서보니 그제 바로 구천산 암사자봉이었다느만요. 두 동무는 끝내 그 암사자봉에서 돌아오질 못했답니다. 진짜소린지…》

치삼이 벌쭉 웃는다.

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선듯 서서히 멎는다.

《아니 벌써 평양이구만요!… 가만 저게 우리 삼일군 선생들 아니야?!… 여 옥금선생?》 치삼이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그래요, 우리 선생들이면 나가서 데려와요.》

《예…》 치삼은 밖으로 나간다.

이윽고 려행가방이며 종이로 포장한 짐들을 안고 든 처녀들이 떠들썩하며 들어온다.

《위원장어머니!》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된거예요?》

《아이 위원장어머니 앓아계십시오. 이군 교구비품들이 돼서 무겁지 않습니다.》

《교구비품?》

《예, 군당책임비서동지가 새로 개축한 멋있는 학교에 어떻게 낡은 교구비품들을 놓겠는가 하고 하면서 군에서 자체로 만들건 만들구 그렇지 못한건 평양에 가서 제일 좋은걸로 사오라고 해서 왔답니다.》

《책임비서동지가?! …》

《그런데 글썽 이 영애언니 삼촌이 평양문화기차재공장 부지배인이 아니겠습니까.》

은정은 그제야 처녀 1의 뒤에 선 영애를 알아본다.

《아니 엇그제 잔치를 한 구룡리산림보호원 색시로구만.》

처녀들이 깔깔대며 웃는다.

처녀 2가 은정에게 묻는다.

《저 목재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혀 해결될 가망이 없습니까?》

《왜? 이제 다 해결되지.》

《그럼 위원장어머니가 가서 다 풀었나요?》

《음…》 은정은 그들의 기대어린 밝은 얼굴에 그늘이 질것이 두려운듯 머리를 끄덕인다.

《야 됐구나!》

처녀들이 환성을 올린다.

《잉 광포쟁이.》

처녀 2가 치삼의 등을 친다.

《글썽 지도원동무가 우릴 놀리느라구 목재가 튀었다고 그러질 않겠나요. 가슴이 다 철렁했네.》

《체… 체, 이 선생들이…》

치삼이 어이없어하는데 처녀 2가 그에게 과거봉지를 안겨준다.

《자요. 수고했어요 지도원동무》

《이것두!》

《여기두 있어요!》

처녀들이 저마끔 과자, 사탕, 과일구역을 안겨준다.

《헛… 허허…》

처녀들은 치삼의 어색해하는 꼴이 더욱 우습다는듯 차안이 들썩하게 웃어댄다.

은정의 마음의 소리.

《아… 어떤 일이 있어두 저들과 어린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할텐데…》

비내리는 삼일역хоз

렬차가 들어와 몇자 봄비는 려객들속에 끼워 은정과 처녀들이 차에서 내린다.

《위원장동무!》

《아니 책임비서동지가?!》 은정이 놀라 주춤하는데 우산을 받쳐쓴 책임비서가 다가온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동무. 허허… 내 어쩐지 오늘은 꼭 위원장동무가 돌아올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니까요. 우산밑에 바싹 들어서십시오. 비맞겠습니다.》

뜨거움을 삼키며 책임비서를 쳐다보는 은정.

《책임비서동지, 빈손으로 왔습니다.》

《제 물건을 찾으려 간것두 아닌데 그렇게 쉽게야 되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함께 가십시오.》

달리는 승용차안

책임비서가 뒤좌석에 앉은 은정에게 도토리나무가지를 넘겨주며 말한다.

《자. 이걸 좀 보십시오. 레년에 없는 도토리대풍입니다.》

시무룩해있던 은정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진다.

《아이구나! 정말 다닥다닥 맺혔구만요.》

《원료기지작업반장이 뭐라고 흰소릴 치는지 압니까? 군내의 고기문제는 자기들이 다 맡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동무들이 올가을엔 한 3년분 사료는 넉근히 장만할겁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반가운 소식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방인철연구사동무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방인철연구사가요?! 언제 왔습니까?》

《굴뚝으로 날아나는 제진장치까지 만들어가지구 어제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방인철연구사동무가 돌아오게 된데는 아마 평양서 온 그 식료연구사동무가 크게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연희동무가요?》

《허허… 그 처녀 보통내기가 아니던데요…》

회상하면.

량곡가공시험소의 어느 한 사무실

방인철을 비롯한 네댓명의 연구사들이 각기 자기 책상을 마주하고 일하고있다.

한 연구사청년이 히죽벌죽하며 들어온다.

《여 방동무, 애인이 찾아왔네.》

방인철이 무슨 소리난듯 돌아본다.

《뭐 애인?》

《빨리 나가보라구. 지 앞공원 세번째 버드나무 밑에서 기다리고있네. 야. 거 보통 미인이 아니던데.》

《흥 사람 놀리지 말라구.》

하며 방인철이 돌아앉자 그 청년이 엮어댄다.

《소속은 과학원 식료연구사, 이름은 주연희, 나이는 스물넷, 키는 보통, 생긴건 음... 방동무와 나란히 거리에 나서면 못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함.》

《히야!》 방안의 연구사들이 일제히 환성을 지르며 저마끔 한마디씩 한다.

《드디어 우리 로총각이 결단을 내렸구만. 응?》

《빨리 국수나 먹읍세!》

《방동문 역시 과학탐구에서도 특색이 있지만 장가드는데서도 우리하군 방법이 달라. 소문도 없이 미인을 낚아챘거든. 핫하...》

《핫하...》

《차 이 친구들...》

어이가 없어 난감해하는 방인철.

공원

유보도의 세번째 버드나무아래서 연희가 소설책을 펼쳐들고 장의자에 앉아있다.

여기로 방인철이 다가온다.

《동무가 과학원 식료연구소에서 왔소?》

《네. 그래요...》

랭랭하게 대답하며 연희가 일어선다.

《그러니 동무가 바로 삼일군에서 버겨보이라를 중도에서 쫓버리고 도망쳐온 방인철연구사동무이군요.》

《뭐요? ... 이 동무가 정말...》

《왜요? 도망쳐왔다는 표현이 귀에 거슬리는가요?》

《동문 도대체 누군데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면서 그러오?》

《저에 대해선 이미 그쪽에서 알고있는것 같던데요. 저두 과학원에서 새 기술도입을 위해 삼일군에 파견된 같은 연구사예요. 그래 자신의 인격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동무가 우리 새 세대 과학자들을 욕되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그 값을 보상할 생각인가요?》

《이 동무가 정말 보자보자하니까... 동무가 뭘 안다고 인격이요 뭐요 하면서 중뿔나게 나서서 그러오? 난 삼일군을 위해서 할만큼은 다 하구 온 사람이요. 반년동안이나 자신의 온 넋을 바쳤단 말이

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쓰다고 뺄는걸 난들 어떻게 하란 말ियो?》

《받아먹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라도 반드시 먹여야 할 약이면 먹여야지요. 그것이 조국과 인민에게 필요한것이라면 말ियो요. 전 더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 동무에게 자그마한 량심이라도 있다면 보이라를 되살리기 위하여 안타까이 뛰어다니는 행정경제위원장동지를 생각해서라도 그 서퍽짜리도 안되는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그 길만이 동무가 우리 당에 의해서 자란 새 세대 과학자로서 제구실을 할수 있는 길이라고 전 생각해요.》

연희는 인사도 없이 정거장쪽을 향해 총총히 걸어갔다.

충격을 받은듯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는 방인철.

다시 승용차안

책임비서가 말을 계속한다.

《위원장동무가 방인철연구사의 어머니를 료양소에 모셔온건 아주 잘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우리가 연구사동무의 어머니병을 고쳐줍시다.》

《알겠습니다. ...》

료양각 호실

방인철이 침상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약물고뿌를 드린다.

인철 어머니가 약물고뿌를 받아들고 훌훌 불며 마시고나서 묻는다.

《그러니 넌 위원장이 네 누이네 집엘 갔을 때두 내 애긴 하질 않았단 말이지?》

《예, 제가 그때 언제 그럴 경황이 있었나요.》

《하긴... 그런걸 난 위원장이 너하구두 의논이다 뻘대기에 아무 생각없이 따라왔구나. 위원장이 참 쉽지 않은 사람이다.》

《...》

밖에서 조심스러운 문기척소리와 함께 꽃보자기에 싸것을 무겁게 든 연희가 들어선다.

《아니 동무가 어떻게...》

방인철이 놀라와하는데 인철 어머니가 알은체를 하며 반긴다.

《에이구, 평양연구사처녀가 또 왔구나. 웬걸 그렇게 또 가지구 오나? 어제 가져온 수박두 그대로 있는데...》

연희는 보따리를 침상옆에 놓고 스스럼없이 인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정히 묻는다.

《어머니, 지난밤엔 저런게 좀 어때요?》

《오, 차도가 좀 있는것 같다. 여느땐 밤에 몇번씩 깨군했는데 지난밤엔 단잠을 잤다네.》

《그래요?! 그러니 여기 온천치료가 어머니한테 맞는구만요.》 하며 연희가 보자기를 헤쳐 아직도 김이 문문나는 풋강냉이를 인철 어머니의 손에 들려준다.

《어머니, 따끈따끈할 때 한개 맛보세요.》

《아이구나. 웬 풋강냉이를 그렇게 많이...》

《위원장어머니가 호실사람들이랑 나눠잡수시라구 터발에 심은 풋강냉이를 써서 보내셨어요.》

《에이구 위원장두 원...》

인철 어머니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인철에게 연희를 소개한다.

《참 애야 인사해라. 평양서 온 연구사처녀란다. 내가 여기 온 첫날부터 같은 연구사의 어머니라구 친딸처럼 이렇게 돌봐준단다.》

《...》 방인철이 어색하여 대답을 못하는데 연희가 풋강냉이를 권하며 말한다.

《거기서두 한개 드세요. 어머니, 우린 벌써 통성했어요.》

《오 그래...》 하며 인철 어머니가 머리를 끄덕이는데 밖에서 승용차 와닿는 소리가 난다.

창밖을 보던 연희가 반긴다.

《어마나 위원장동지가 오셨어요!》

《아니 위원장이...》 하며 인철 어머니가 침상을 거두는데 방문이 열리며 은정이 들어선다. 뒤따라 식료품구력을 랑손에 든 운전사 태봉이 들어온다.

방인철이 나서며 인사한다.

《위원장동지, 안녕하십니까?》

《내 군당책임비서동지한테서 다 들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하며 은정이 그의 손을 뜨겁게 잡는다.

《제가 그만 응졸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위원장동지.》

《됐어요. 이렇게 왔으면 됐지 뭘 더 말할게 있어요. (인철 어머니에게)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번 두 와보질 못해서 정말 안됐어요.》

《에이구 그런 소리 마시우. 어제 보낸 참외랑 수박이 그냥 다 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터발에 심은 강냉이까지 써서 보내줘서 정말 잘 먹수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요? 난 그동안 출장을 갔다 어제야 돌아왔는데요.》

《예?... 아니 그럼 저 평양연구사한테...》

인철 어머니가 무슨 영문이느냔듯 연희와 은정을 번갈아보는데 연희가 손을 입에 가져다대며 은정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눈을 꿈쩍한다.

은정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웃는다.

《호호... 비밀에 불일거까지야 있다. 인제야 방인철연구사와는 한배를 탄셈인데 그의 어머니를 돌봐드리느거야 응당한 일이지.》

《어마나 위원장동진...》

태봉이가 이때라고 한마디 한다.

《하긴 거 연희연구사동문 천상 버겨보이라가 성공돼서 기름공장이 돌아가야 기름실수를 높이는 연구사업을 하게 되었으니 한배를 탄건 사실이구만요. 핫하...》

모두 즐겁게 웃는다.

고마운 눈길로 연희를 바라보는 은정의 마음의 소리.

《연희동무, 고마워요. 내 왜 나를 위해주는 동무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료양소 정원길

은정이가 기쁜 마음으로 방인철, 연희 등과 함께 걷는다.

《난 이젠 버겨보이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겠어요. 당분간은 목재문제때문에 랑정사업소엔 자주 나갈것 같질 못한데 애로되는 일이 있으면 아무때구 찾아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동지.》

승용차가 조용히 그들의 옆에 와서 멎는다.

《그럼 수고하세요. 연희동무 가자구.》 하며 은정이 방인철의 손을 잡아주고 연희와 함께 차에 오른다.

승용차가 서서히 떠나간다.

오래동안 서서 멀어져가는 승용차를 바라우는 방인철.

랑수환의 방

랑수환이 책상을 짚고 벌떡 일어선다.

《뭘요? 위원장이 기차방통에까지 실어주겠다는 목재를 마다하구 그냥 돌아왔단 말이지요?》

그의 앞에 마주앉아있던 치삼이 말한다.

《부위원장동지, 그건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사정이구 뭐구 당장 목재가 걸려서 건설이 중단되었는데 남의 사정을 봐줄새가 있는가? 제길 이거야 손발이 맞질 않아서... 나두 이젠 모르겠소. 일은 잔뜩 벌려만놓구 음... 음...》

입이 쓰거운듯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제 2 부 끝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외 2 편

원현호

예서
고향은
천리던가
만리던가

푸릿한 별빛
잔디 푸른 전호가에 내릴 때면
삼삼히 떠오르누나
내 나서 자란 아름다운 고향산
천이

정다운 그 품을 떠나왔지만
내 결코 고향을 멀리 두고 오지
않았거니
입대의 그날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들어
몸성히 잘 싸우라 당부하던
그 마음 열차에 실고왔고
그 마음 여기 초소에 함께 뿌리
내렸어라

그렇더라
어이해서인지

푸른 하늘 보아도 고향의 눈빛
인듯
이 마음 끝없이 맑아지고
이 몸에 안기는 바람소리에서도
고향의 숨결을 느끼는듯 가슴
후더워라

그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고향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것
만 같아
나는 그들앞에 무척 아름답고
싶어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답게 살
기를 바라는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게 하려고

하기에
먼먼 훈련길을 달려도 힘들지
않고

긴긴 겨울밤을 밝히며
초소근무를 서도 피곤하지 않아라
힘과 용기만이 넘쳐나라

아 고향이란 무엇이길래
떨어질수록 가까웁고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지는것인가
아마도 어머니품에서
아이를 땔수 없듯
순간도 떨어질수 없는것이 고향이고
병사는 그 아들이라 하는가

분계선너머에서
검은 구름 밀려오면
고향사람들 그 밝은 얼굴에
한점 그늘이라도 질가봐
틀어진 총창에
번개를 실어 우뢰 울리나니

내 날리는 멸적의 서리발
아 이것이 병사의 가슴에서 샘솟는
뜨거운 사랑의 분출이 아닌가
병사가 지키는 의리가 아닌가

삶의 원칙

해쑥은 아침
즐거운 출근길에서
종종 목격하는 범상한 일
빠스에 먼저 오르라고
서로서로 권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 생각 깊어진적 한두번 아니
노라

우리 조국은
너를 위해 내가 살고
나를 위해 네가 사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

내 흑시
우리 사회의 이 도리를 어기고
때로는
나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며

집단의 리익은 안중에 없고
동지들의 고충과 아픔
외면한적 없었던가

어려운 일 앞에 나설 때
내 한몸의 편안을 찾으며
남들이 힘겨워할줄
순간이라도 잊은적 없었던가

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나
사람들은 그런 인간을
빛 좋은 개살구로 알려니

나를 위함보다
나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행복
더없는 기쁨으로 아는 우리 사회

이 땅에서
천만가지 생각
천만가지 행동
누구를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
나를 위해
사람들은 보리라
우리 삶의 원칙이란 다름아닌
동지와 집단을 위해 바쳐진
내 삶의 미덕이라고
그래서 생활의 기준으로 되는게라고

가을의 들판에서

풍요한 가을날
황금과도 설레이는 들판에서
땅에 드리울듯
주렁진 열매들을 바라보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

저 곡식들도
봄내 여름내
꽃피고 푸르름 떨칠 땐
머리한번 수그린적 없었으리

내 철없던 그 시절처럼
꽃향기로 벌나비 불러들이고
오가는 길손들 눈길 모으며

오직 하늘 향해 뻗어오를 욕망에

허나 이 가을날에
감사에 젖는 마음인가
알알이 무르익어
이삭마다 무겁게 고개 숙였구나
뿌리내려준 대지앞에
자양의 빛 뿌려준 태양앞에
가꾸어준 그 손길들앞에

하다면
나도 저 곡식들처럼
인생의 가을 맞아서
내 삶의 귀중한 그 모든것에

깊은 생각으로 머리숙여야 하리

그러나 내 사는 순간순간 옮겨딛
는 걸음걸음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도 아름다운 그 은정안고
언제나 보답이 따르지 못하는 내 마음

어디서나 큰절 드려야 하리
나를 손잡아 이끌어준 스승들과 동지들
나를 품안아키우는 어머니조국앞에
내 삶을 꽃피워주는 우리 당앞에

산촌의 저녁길에

리득하

저녁노을 곱게 핀 저녁
배부른 양떼를 앞세우고
사양공쳐너
령을 내리는데

빨간 령장의 젊은 병사들
바쁜 걸음 멈추고
길옆으로 비껴서네
땀흘리며 달려가던 바쁜 걸음
잊은듯이 웃으며 비껴섰네

늦어지는 병사들의 길

걱정도 커서
처녀는 서둘러
양떼를 비껴주려
회초리 끝에 휘파람 날리는데

그러지 말라고
손짓으로 말리며
병사들은 오래도록
길을 비껴주어라
미안해하는 처녀마음
다정한 미소로 위안하며

걱정일랑 너무 말아
사양공쳐너야
병사들의 바쁜 길엔
네가 모는 양무리도 지켜가는
보람찬 의무도 함께 놓여있거니

걸어서 안될 길이면
뛰어서라도
뛰어서도 안될 길이면
날아서라도
병사들은 임무를 수행하리
네 그 마음 힘이 되고 나래가 되어

고향의 저녁에

전성호

노을이 퍼져간다
내 고향 넓은 들에
그 누가 붙들어놓기라도 한듯
서산마루 술숩에 앉아
연분홍 옷자락마냥 너울대는 노을
이어

그 노을속에
보석을 묻은듯
너인들 정히 드다루는

이랑이랑 드넓은 벌에
청맑은 노래가락도 흥에 떴구나

마지막 이랑을 갈아엎은
프락포르도 보습날 들어올리는데
저기 밭머리엔 아직도 빨간 수건
나풀대는 명아
씨앗을 파먹는 메뚜기들 성화에 퇴
근길 늦어나
하지만 속심은 뻗한결

프락포르 밭동소리에 마음이 더 가있지

깎깎대는 처녀들 웃음소리에
놀란 새끼염소들
목깃에 매방울 달랑거리며
어미 찾아 달아나는 내친방독에
곰처럼 웅크리고 앉은 분조장아저씨
파아란 마라초연기 피여올리며
래일의 작업계획 적어가누나

근면과 성실성의 땀방울들이
이랑마다 숨배여 씨앗들을 자
래우고
후덥고 미더운 숨결들이 웃음
과 랑만으로
꽃피워가는 내 고향

또 하루

사랑하는 이 땅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것 있기에
무엇이나 정당고
웃음속에 지는 해도 아쉬운
내 고향의 저녁이여

바치는 그만큼
행복이 마중오는 이 땅

사랑을 줄수록
더욱더 귀중해만지는 고향이여
너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그 마음우에 받들리여
너는 나날이 꽃피고있구나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풍자시

일곱번째 철갑모

유국진

《문민정권》의 허울을 걸치고
점잖은 신사복을 입은
《문민신사》 나리
머리우엔 철갑모를 썼으니
청개구리도 손벽치며 웃는다네

《문민정권》 세우던 날
《민주정치, 문민정부, 개혁정
부》
귀맛좋은 연설로 정계에 나섰
는데
그 《공약》은 다 철회되고
파쇼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신
사나리

부정부비리 청산이요 개굴개굴
부정부패 청산이요 개굴개굴
《장성》 별만 땡가당 떼어버리며

로태우놈 전두환놈 《국방장
관》 나리
큰도적은 끼고 안고 싸고도는
《문민신사》

술취한놈 주정질인가
《문민신사》의 구두발에 채워
막돌처럼 나뿜구는 《4 성》 별
도 있으니
사복우에 철갑모 쓴 파쇼광의
칼부림에
돈을 주고 별을 산 줌도적만 녹
누나

쑥대밭에서 쑥대가 나고
독초뿌리에서 독초가 나듯
군사파쇼 《5 공》 이나 《6
공》 이나
그놈이 그놈 같고 같은 쑥대라

《문민》 《문민》 간판 든 신사
나리
《5 공》 《6 공》 이 벌리던
《공안통치》 도 그대로 벌리고
《로동정책》 도 그대로 흉내내며
《파쇼》 의 칼을 쥐고 란동을
부리거늘

황혼길로 간 《5 공》 《6 공》
을 따라
허울을 쓴 파쇼광 《문민신사》
일곱번째 철갑모에 까마귀도
침을 뱉으니
죽음을 재촉하는 청개구리 울
음소린가
어제도 개굴개굴 오늘도 개굴
개굴

산문시

길

김남주 (남조선)

내가 지금 걷고있는 이 길은
억압의 사슬에서 민중이 풀려나는 길이고
외적의 압박에서 민족이 해방되는 길이고
로동자와 농민이 자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나는 알고있다 이 길의 처음과 끝을
이 길의 력사와 그 매력을 나는 알고있다
처음에 해방군으로 가장한 미군의 점령이 있었다
그것은

평화의 가면이였고 자유의 숨사탕이였고 제국주
의의 숨은 발톱이였다
마침내 그들 점령군들은 잘못된 내 조국의 허리를
두동강내고
그 아래부분을 제 손아귀에 넣었다 그리고 그들은
넙마주이가 쓰레기를 긁어모으듯 그렇게 인간쓰
레기를 긁어모아
구식민지의 관료들, 친일매관자본가와 지주들, 식
민지군대의 장교들

애국투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투옥하고 학살
 하기를 밥먹듯이 했던
 특고 형사들, 헌병 보조원들, 주재소 순사들, 밀정
 들을 굶어모아
 38 선 이남에 소위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웠다
 그리하여 그동안 40 여년동안 양키제국주의자들은
 야바위군의 손놀림으로 꼭두각시정권을 바꿔치기
 하면서
 리가를 박가로 바꿔치기 하고 박가를 전가로 바꿔
 치기 하면서
 땀주무르듯 내 조국의 아래를 주물러왔다
 그리고 그들 야바위군들은 자유민주주의 바로 그
 이름으로
 내 조국의 자유의 기발과 민주주의를 훔쳐갔을뿐
 만아니라
 원조와 경제협력이란 탈바가지를 쓰고 그동안 40
 여년동안
 우리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략탈해갔
 을뿐만아니라
 농약과 화학비료와 공해산업으로 내 조국의 대기
 와 토지를 더럽혔다
 뿐이라, 그들 신식민주의자들은 시카고의 켄영화
 텍사스의 카우보이식뎀스를 동원하여 내 조국의
 춤과 노래를
 질식시키고 병신다리 만들었을뿐만아니라
 강건너 마을의 순결한 처녀지를 집단으로 릉육했
 을뿐만아니라
 끝내는 거례의 끝수까지 반공의식으로 파먹어
 우리의 팔과 다리를 마비시키고 민족의 동질성까
 지 남남으로 갈라놓았다
 나는 알고있다 또한 이 길의 어제와 오늘을
 이 길을 걷다가 쓰러진 다리와 부러진 팔과 교살
 당한 목
 고문으로 구부러진 손가락과 비수에 찢린 등과 뜯
 는의 죽음을
 그들은 지금 공비와 폭도와 역적의 루명을 쓰고
 뽕지쳐참으로 쓰러져있다
 아무도 그들을 일으켜세워 자유와 조국의 이름으
 로 노래하지 못한다
 해와 달과 조국의 별이 밝혀야 한다 밤이 울고있다
 나는 또한 알고있다 내가 걷는 이 길의 오늘과 래
 일들
 이 길 어디쯤 가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온 허위
 가 있고

마침내 우리가 찢어야 할 가면이 있고 성조기가
 있다
 자유의 길 이 길을 어디쯤 가다보면 거기 틀림없이
 압제자가 길들여놓은 사나운 경찰견이 있고
 마침내 우리가 뿔어야 할 억압의 뿌리 이발이 있고
 해방의 길 이 길을 어디쯤 가다보면 거기 자본가
 점령군에 고용된 용병의 무리가 있고
 마침내 우리가 무찔러야 할 총칼의 숲이 있다
 그렇다 자유와 해방과 통일의 길 이 길을 가면 저
 기 틀림없이
 압제와 자본의 턱을 보아가며 재판놀음을 하는 검
 사와 판사가 있고
 마침내 우리가 벗겨야 할 《정의》의 가면이 있고
 불의가 있고
 인간성의 공동묘지 감옥의 밤이 있고 마침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증오의 벽이 있다

 그러니 가자 우리 이 길을
 길은 가야 하고 언젠가는 력사와 더불어 이르러야
 할 길
 아니 가고 우리 어찌랴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어
 깨동무하고 가자
 침묵의 시위를 떠나 피로 섞여진 언어의 화살로
 가자
 제 땅 남의것으로 빼앗겨 죽창들고 나섰던 옛 농
 부의 들녘으로 가자
 제 나라 남의것으로 빼앗겨 화승총 메고 나섰던
 옛 전사의 산맥으로 가자
 부러진 팔 노동의 새벽을 여는 망치소리와 함께
 수유리의 돌사이에서 아우성치는 4 월의 냇과 함께
 파괴된 5 월의 도시 학살당한 금남로의 피물은 항
 쟁으로 가자
 복을 쳐라 동등등 전투의 개시를 알리는 골짜기의
 긴 쇠나팔소리와 함께
 가로질러 들관 싸움을 재촉하는 한낮의 징소리와
 함께
 발을 굴러 땅을 치며 강건너 불빛으로 가자
 가고 또 가면 이르지 못할 길은 없나니 이제 우리
 제 아니 가고 길만 멀다 하지 말자
 가고 또 가면 이르지 못할 길은 없나니 우리 이제
 제 아니 가고 길만 험타 하지 말자
 눌러 학대받고 주려 천대받은자 모든것의 주인되는 길
 오 자유의 길 해방과 통일의 길이어